國語學叢書 54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김 현 저

태학사

한영규 선생님께

김현 올림

머리말

학부 4학년이던 봄 어느 날, 광화문에서 집으로 가는 좌석버스에 올라타 막 서점에서 구입한 얄팍한 책 한 권을 꺼내 읽었습니다. /ㄷ/이 /ㅂ/, /ㄱ/이 되고, /ㅂ/은 또 /ㄱ/이 되고, 그들 속에 일정한 방향이 있고, 세기의 정도가 있다는……. 멀미를 했는지 속이 약간 울렁이면서 팔뚝의 털들이 파르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구나, 나도 이런 걸 한번 해 봐야겠구나. 그때의 흥분이 10여 년을 기다려 이제 조그마한 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2003년 8월에 「活用上에 보이는 形態音韻論的 變化의 要因과 類型」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깁고 보탠 것입니다. 게으름 탓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논문을 찍어내면서 혹시나 찾아올 출판 기회를 다짐했습니다만 결국 몇 자, 몇 문장 손질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봄날 버스에서 시작된 음운론 공부, 제 관심은 온통 생성문법의 형태음운론에 쏠려 있었습니다. 기저형이 입력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규칙들이 적용되어 표면형에 이르는 과정이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똑 부러지게 돌아가는 것이 여간 신기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우리말이 곡용과 활용에서 다양한 음운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박사과정에 다니며 형태음운론의 단맛이 조금씩 빠져갈 무렵, 통시적

인 현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변화도 그 나름대로 흥미로웠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음변화로 인해 헝클어진 상태를 반듯하게 되돌려 놓기도 하고,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 듯 불쑥 엉뚱한 결과를 내어 놓기도 하는 이른바 유추 현상이었습니다. 유추 현상은 늘 다른 단어들 혹은 한 단어의 패러다임을 이루는 다른 어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지라, 처음 공부를 시작하던 때의 제 관심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생성문법의 틀 속에서 형태음운론적인 변화를 서술하기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성문법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형식과 논리에 빠져 있는 듯했고, 변화를 서술할 때에도 규칙 부문의 변화에 너무나 기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공시론적 기술의 생성문법적 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고, 추상적이지 않게 서술하고 싶었고, 언어 변화를 가능한 한 사람 냄새 나게 풀어보고 싶어 버둥거렸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나마 형태음운론과 생성문법, 그리고 통시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포부에 부풀었던 가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 버렸고, 여전히 억지와 빈틈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나이로 아직 志學에도 이르지 못한 저로서 배울 수 있는 날이 앞으로도 많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내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꼭 성함을 밝혀 고마움을 표할 분들이 계시니, 바로 제 논문을 심사해 주신 다섯 분입니다. 먼저 공시론적인 분석의 방법을 일깨워 주신 최명옥 선생님, 자료를 대하는 준엄한 태도를 가르쳐 주신 곽충구 선생님, 음운론과 형태론 사이의 균형을 잡아 주신 송철의 선생님, 그리고 김종규 선생님은 이론적으로 빈약했던 저를 가르쳐 주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끝으로 제 지도 교수이신 이병근 선생님. 그 날 버스에서 제게 음운론

으로의 손길을 뻗어 주셨고, 뭣 모르고 그 손을 덥석 잡았지만, 공부면 공부, 사람이면 사람, 모자라기만 한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분입니다. 고마운 마음,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래도 차근차근 제 궁금증을 풀어주고 제 얘기를 들어준 형님들 인호 형, 성우 형, 봉국이 형, 석규 형 그리고 선배 같은 후배 진호를 비롯한 304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 논문을 국어학총서로 선정해 주신 국어학회의 선생님들, 태학사의 지현구 사장님, 변선웅 편집이사님, 배주야 선생님 그리고 교정과 색인을 도와 준 김이름 선생께도, 사사로이는, 논문 쓴답시고 까칠하게만 굴던 저를 받아 주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 멀리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그리운 아버지께도요.

2006년 7월

다시 그 책을 꺼내 들고

차 례

머리말 • 3

제1장 서 론 • 11

제2장 형태음운론의 서술 방법 • 19

2.1. 활용형의 체계적 고찰 ······ 19
2.1.1. 이형태의 상호 관계 ······ 19
2.1.2. 도출 패러다임 ······ 31
2.2. 생성문법과 형태음운론적 변화 ······ 36
2.2.1. 음변화 ······ 37
2.2.1.1. 개신 ······ 37
2.2.1.2. 재구조화 ······ 45
2.2.2. 불완전 학습 ······ 48

제3장 변화의 요인 • 53

3.1. 음변화 ······ 53
3.1.1. 요소의 변화와 체계의 재구성 ······ 53

3.1.2. 변화의 실제 ······ 58
3.1.2.1. 기저형의 변화 ······ 58
3.1.2.2. 규칙 부문의 변화 ······ 66
3.1.2.2.1. 규칙 첨가 ······ 66
3.1.2.2.2. 규칙 단순화 ······ 74
3.1.2.2.3. 규칙 소실 ······ 81
3.2. 어휘부 최적화 ······ 87
3.2.1. 유추 ······ 87
3.2.1.1. 형식적 동일화 ······ 87
3.2.1.2. 변화의 실제 ······ 96
3.2.1.2.1. 평준화 ······ 96
3.2.1.2.2. 감염 ······ 114
3.2.2. 기저형 선택 조건의 단순화 ······ 120
3.2.3. 용언 어간 구조 조건 ······ 131
3.3. 재분석 ······ 143
3.3.1. 새로운 어간 인식 ······ 143
3.3.2. 변화의 실제 ······ 161
3.3.2.1. 규칙의 비적용 ······ 161
3.3.2.2. 여타 규칙의 적용 ······ 168
3.3.2.3. 동일 규칙의 적용 ······ 180

제4장 변화의 유형 • 183

4.1. 교체의 생성 187
4.1.1. 음운론적 교체의 생성 187
4.1.2. 어휘론적 교체의 생성 194
4.2. 교체 형식과 성격의 변화 196
4.2.1. 형식의 변화 196
4.2.2. 성격의 변화 198
4.2.3. 복합적 변화 204
4.3. 교체의 소멸 207
4.3.1. 음운론적 교체의 소멸 207
4.3.2. 어휘론적 교체의 소멸 209

제5장 결 론 • 211

참고문헌 219

용어 찾아보기 231

어간 찾아보기 235

제1장 서 론

활용이란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형을 형성하는 형태론적인 과정이다. 이전 시기에 형성된 활용형이 마치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활용은 대체로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공시적 결합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가 띠고 있는 음상(phonemic shape)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변동을 겪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언어의 모든 면이 그러하듯 일정한 어간이나 어미가 표면에 실현되기까지의 과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어서, 한 시기의 기저형이 그 다음 시기의 기저형과 다를 수가 있고, 적용되는 규칙 또한 한 시기의 것과 그 다음 시기의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과 유형을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활용은 국어 음운론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음운론적 변동을 시현하는 범주이다. 부사나 관형사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같은 형식으로 실현되지만 체언과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가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용언의 활용은 체언의 곡용에 비해서 어간이나 어미의 구조도 다채롭고 적용되는 규칙도 많아 더욱 다양한 공시적 음운 현상을 보여 준다.[1] 예컨대 체언과는 달리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어간

---

1) 체언과 용언이 그 형식을 달리하여 실현되는 것은 비단 곡용과 활용에서만이 아

이 많이 남아 있다든가, 다양한 어간말 자음과 모음을 지니고 있다든가, 곡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 특히 모음충돌과 관련된 규칙들이 활발하게 적용된다는가 하는 점들은 활용에서의 형태음운론적 변동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공시적 변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문법이론을 수용하여 심층 구조에 기저형을 설정하고 일정한 도출 과정을 통해 표면 구조의 표면형을 도출한다는 틀을 견지한다. 생성문법의 음운론은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연구의 초점이었던 대립이나 체계에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 그 대신 형태소가 보이는 교체에 주된 관심을 둠으로써 연구 대상의 중심을 형태음운론에 두고 그것을 심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기술언어학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라 할 터인바, 기술언어학은 형태론이든 음운론이든 대립보다는 분포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형태 또는 음성을 분석하고 분포를 살펴 이형태와 형태소, 이음과 음소를 확인한 후, 이를 통하여 형태소가 보이는 교체를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의 대치를 기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로 분포로써 기술되던 형태소 교체와 음의 대치를 기술함에 있어서 생성문법에서는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를 상정하여, 기저형이 일정한 도출 과정을 통해 표면형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현 과정을 '기저형—(도출)→표면형'과 같이 추상화할 수 있다면, 용언 어간 '읽-(讀)'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활용1 : 읽-+-어 —(규칙 없음)→ 읽어

니다. 합성이나 파생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교체와 관련한 논의에서 합성이나 파생이 흔히 제외되는 것은 곡용과 활용에서의 교체는 어간과 어미의 공시적 결합 및 도출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분명한 데에 반해 합성과 파생은 통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두 부류에서의 교체를 함께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과 파생, 곡용과 활용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의 양상에 대하여는 李秉根(1975), 姜昶錫(1985), 宋喆儀(1991) 등이 좋은 참고가 된다.

활용2 : 읽-+-고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일꼬

활용3 : 읽-+-지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익찌

활용4 : 읽-+-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잉는

'읽-'의 활용에서 보이는 이상의 형태음운론적 과정은, 어간이 일정한 조건의 어미들과 개별적으로 결합하여 기저로부터 표면으로 도출된다는 측면과 함께 '읽-'이라는 형태소 및 그 이형태들 /읽, 일, 익, 잉/이 일정한 시기에서 계열체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과정'의 역동적 성격과 '체계'의 정태적 성격을 함께 띠고 있는바, '과정'을 기저형과 표면형이라는 두 요소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성격이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시적 요소(기저형과 표면형) 및 그들 사이의 관계(도출 과정)의 합을 도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공시론적 서술 태도가 이와 같다면 통시론적 서술 태도 역시 생성문법적이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어떠한 문법체계도 공시적 현상이나 통시적 현상의 어느 한 쪽만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언어 현상을 서술할 때에는 일관된 문법체계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가 공시태의 통시적 변화이기에 그 일관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시론과 관련하여 생성문법은 규칙 첨가와 소실 및 규칙 재배열, 규칙 단순화 등을 이용하여 음운론적 변화를 서술하였다(Halle 1962, Kiparsky 1965, 1968a, King 1969 등). 음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이든 경계에서이든 일단은 규칙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유추 현상은 대체로 문법의 단순화로, 그 중 상당수는 규칙 재배열로 이해되어 왔다. 생성문법에서는 문법을 곧 규칙의 체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를 이처럼 규칙 부문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시적 현상을 생성문법적으로 다룬다고 하여 그들이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문법은 적어도 규칙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시태의 기술을 위해 고안된 기저형과 표면형, 규칙과 제약, 어휘부와 음운부 등의 기본적인 개념적 도구를 생성문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통시태를 서술할 수만 있다면, 그것 역시 변화의 생성문법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나아가 변화에 대한 전통문법의 설명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더라도 그 설명의 원리를 생성문법에 적합하게끔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한층 나은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음변화에 대하여 생성문법의 서술 방법인 규칙 첨가는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첨가되는 규칙은 추상적인 분절음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든가, 그것이 비음운론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음운규칙이라면 반드시 음운론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등 공시론적 기술에서 요구되는 규칙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생성문법에서는 설정하지 않았던 자립적인 음운 및 그 층위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음변화에 대해서는 굳이 규칙 첨가로 서술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규칙으로 서술되는 '체계음운→음성'의 구도를 버리고 대응으로 서술되는 '음운 : 음성'이라는 이전 문법의 방법을 끌어온 셈이다.

한편 유추 현상에 대해서는 생성문법에서 제안한 설명 방식을 대체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유추 현상은 생성문법에서 대부분 규칙 재배열

---

2) 공시론적 기술을 위한 도구를 그 개념 그대로 통시론적 서술에 응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기저형은 선대형이 아니며, 단순히 음운부의 입력만도 아닌 어휘부에 저장된 단위의 형식이라는 점, 규칙은 변화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기저형과 표면형의 공시적인 관계를 변동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 표면형은 그 자체로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리 속에 저장된 기저형과 규칙을 통해 도출되고 또 그들로써 서술되는 형식이라는 점 등 공시론적인 형태음운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통시적 현상을 서술할 때에도 같은 의미로 유지되어야 한다.

로 서술되었는바, 규칙이 재배열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 내세운 것은 규칙을 최대한 적용하고자 하는 문법 내적 요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저형과 표면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에 불과한 규칙이 그러한 성향을 지닐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문법학자는 기술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능하면 적은 수의 단순한 규칙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겠지만, 실제의 문법이 그러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리'일 뿐이다.

이처럼 규칙의 최대 적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추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생성문법은 패러다임에서 이형태가 적을수록 좋다든가 규칙이 표면형에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좋다는 등의 설명을 하게 된다(Kiparsky 1971). 그러나 이는 스스로 문법의 밖에 있다고 한 표면 구조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생성문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Hock 1986:267~268). 생성문법이 유추 현상을 설명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형태음운론적인 변화를 지나치게 규칙 부문의 변화로 서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들 유추 현상, 엄밀히는 음변화나 규칙 첨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패러다임 차원과 기저형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근(1981)은 패러다임 전체의 고찰을 통해서 유음탈락의 본질을 고구하면서,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경향, 즉 패러다임을 규칙화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부분적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李秉根(1975), 鄭然粲(1980)에서도 이미 패러다임 내에서의 유추 현상이 논의된 바가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공시적인 기저형 설정에 대해 높아진 관심은[3] 崔明

3) 崔明玉(1985, 1988), 한영균(1985), 박창원(1986ㄱ), 金星奎(1988), 배주채(1989), 金京芽(199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생성문법 초기의 추상적인 공시 기술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것인데, 그러한 시도는 음운 현상에 있어서 비음운론적인 제약을 고려하였던 金完鎭(1971), 李秉根(1975) 등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玉(1993)에서 기저형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崔明玉(1993)은 기저형 변화의 판단 기준과 요인, 복수 기저형의 단일화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4] 물론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 연구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기대고 있다. 특히나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휘화된 이형태"(실제로는 이형태가 어휘화된 단위)를 단일화한다는 설명은 평준화를 서술하면서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용언 어간의 변화에 한정할 때 崔明玉(1993)은 대체로 음운론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것이었던 데에 반해 郭忠求(1994)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유추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교체형의 단일화나 혼효, 오분석, 유사한 패러다임의 압력 등의 요인에 의해 어간이 재구조화되는 현상이 논의되었다.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2000)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유형화되었다. 특히나 許雄(1965), 姜昶錫(1985) 등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 오분석은 이후 유필재(2000), 졸고(1999, 2001, 2002), 황문환(2001), 張允熙(2002ㄴ), 임석규(2002ㄱ, 2004), 소신애(2005) 등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음변화, 규칙 첨가로 설명되기 힘든 현상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선행 연구의 설명 방법을 종합하고 생성문법의 틀에 맞도록 약간 가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예컨대 어휘부를 최적화하기 위해 복수 기저형 중 하나를 버림으로써 기억의 부담을 줄인다든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은 형식도 유사하게 바꾼다든가 하는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있다.

4) 기저형 변화에 대한 논의는 각종 형태음운론적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저형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제로 다루어진 논의에는 서남 방언의 ㅂ 변칙 어간의 변화에 대한 김규남(1991), 정인호(1997), 제주의 ㅎ 말음 어간의 변화에 대한 鄭承喆(1996), ㄹ 변칙 어간의 변화에 대한 張允熙(2002ㄴ), 재구한 어간으로부터의 변화를 방언분화와 의미분화를 함께 고찰한 郭忠求(1995) 등이 있다.

또한 언어 사용자가 기존의 규칙을 이용하여 이전 세대의 발화를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남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말 즉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다. 국립국어연구원(1997, 1998)의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이하 『서울Ⅰ』),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Ⅱ)』(이하 『서울Ⅱ』),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이하 『자료집』)의 자료 및 李秉根(1970), 유필재(2001) 등 선행 연구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5] 논의의 목적이 특정 방언의 변화 서술에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언의 자료도 『韓國方言資料集』과 선행 연구를 통해 참조할 것이지만, 논의 대상 자료의 균질성을 위해 가급적 중앙어 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5) 방언형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서울말은 유필재(2001), 그 밖의 지역어는 『자료집』의 자료임을 밝히어 둔다.

제2장 형태음운론의 서술 방법

2.1. 활용형의 체계적 고찰

2.1.1. 이형태의 상호 관계

용언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형으로 실현된다.[1] 우리말의 수많은 어간, 수많은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임의로 선정한 하나의 어간에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등이 결합된 활용형들의 집합, 또는 하나의 어말어미에 어간이 결합되고 그 사이에 선어말어미 등이 결합된 활용형들의 집합만 하더라도 그 원소의 수가 방대하여 체계적 고찰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1) ㄱ. 벗- {벗고, 벗으시고, 벗으면, 벗었으면, 벗으셨으면, ……}
    ㄴ. -고 {벗고, 가고, 벗으시고, 가시고, 벗으셨고, 가셨고, ……}

---

1) 이하에서는 어간의 마지막 음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간 말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자음 어간',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모음 어간'이라고 부르며, ㄱ으로 끝나는 어간은 'ㄱ 말음 어간', ㅏ로 끝나는 어간은 'ㅏ 말음 어간'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 어미에 대하여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자음 어미', /으X/와 /X/의 교체를 보이는 어미를 '으-계 어미', /아X/와 /어X/의 교체를 보이는 어미를 '아-계 어미'라고 부르기로 한다.

활용 전반을 고찰함에 있어서 (1)에서와 같이 활용형에 포함된 공통 부분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기본이 된다. 공통 부분이 없는 {벗고, 좋으면, 가서, ……}와 같은 집합은 활용을 서술하는 데에 일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1ㄱ)은 활용형에 포함된 공통의 어간 '벗-(脫)'을 기준으로 한 집합이며, (1ㄴ)은 공통의 어미 '-고(而)'를 기준으로 한 집합인바, 활용형들의 이러한 분류는 활용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서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어간 또는 어미를 공통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모든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어간 또는 어미의 활용에 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어의 모든 어간과 어미의 경우를 일일이 살피지 않는 한 활용형 전반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개별적인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분류가 요구되는 것이며, 형태음운론적 관심은 자연스레 형태소라는 기호를 이루는 일부인 기표(signifiant)에 놓이게 된다.

어간들과 어미들은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운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이상 그들 어간과 어미들도 음운배열상의 공통점을 지니는 한정된 수의 부류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동일한 부류에 속한 어간, 어미는 거의 같은 활용을 하고 있다. 예컨대 어간 '벗-'의 활용은 '빗-(梳), 솟-(湧), 웃:-(笑), 빼앗-(奪)' 등의 활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어미 '-고'의 활용은 '-더-, -지, -겠-' 등의 활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어간들과 어미들은 각각 'ㅅ 말음 어간', '장애음 어미'와 같이 묶일 수가 있으며, 각 부류의 몇몇 어간 또는 어미의 활용을 서술함으로써 부류 전체의 활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묶인 부류가 언제나 같은 식의 활용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같은 ㅎ 말음 어간이라고 하여도 '놓-(放)'과 '좋:-(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 탈락, 활음화, 모음탈락 등의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유필재(2001:88)에서는 전자를 변칙,

후자를 정칙이라 하여 서로 다른 부류의 어간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2) ㄱ. "放" 노:코, 노으면~노:면, 노은~논:, 노아서~놔:서
　ㄴ. "好" 조:코, 조:으면, 조:은~조:흔, 조:아서

통시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의 어간이 서로 다른 변화를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말의 ㄷ 변칙 어간 또는 이전 시기에 ㄷ 변칙 어간이었으리라 생각되는 어간들의 활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제각각이다(유필재 2001:103).

(3) ㄱ. "聞" 듣꼬, 드르면, 드러　　cf. 깨닫-(覺), 걷-(步), 묻:-(問)
　ㄴ. "達" 다닫꼬~다다르고, 다다르면, 다다라　　cf. 겯:-(染)
　ㄷ. "膨" 붇:꼬~불:고, 부르면~불:면, 부러　　cf. 긷:-(汲), 절:-(鹽漬)
　ㄹ. "焦" 눋:꼬~눌:꼬, 누르면, 누러

(3ㄴ, ㄷ, ㄹ)은 모두 ㄷ 변칙 어간으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화를 서술하면서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이들을 각기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 물론 단어는 저마다의 역사를 지니지만 (3cf)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이 다시 부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3)의 각각에 속하는 어간들을 개별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3ㄷ) '붇:-'의 활용 변화를 다루었다면 '긷:-'의 그것을 다시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활용형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두 차례의 일반화 과정을 살폈다. 첫째는 활용형들 중에서 공통된 형태소를 지닌 것들을 하나로 묶어 '어간 X가 포함된 활용형들', '어미 Y가 포함된 활용형들'과 같은 집합을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의 일반화 과정은 어간과 어미들 중 음운배열상의 공통점을 지닌 것들의 활용 집합을 다시 묶어 'X로 끝나는 어간의 활용형 집합', 'Y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 집

합'과 같은 부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어간, 어미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어간, 어미를 공통 부분으로 지닌 활용형들이라고 하여도 그 집합은 (1)과 같이 매우 많은 원소들을 지닌다. 이들의 체계적 서술을 위한 또 다른 일반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고 하여, 고찰의 대상이 반드시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합을 이루는 한정된 수의 원소들이 서로 치환 가능한 계열적 관계에 있고, 언어적 기능상의 차이로 인한 대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 보일 수만 있다면, 완전한 체계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체계에 가까운 '유사 체계'라고는 여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집합에서 원소의 수를 줄일 필요를 느끼게 된다. '벗-'이나 '-고'의 수많은 활용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음운론적 대립 관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자칫 소모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찰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어간들과 어미들을 일반화하여 부류를 이루게 하였던 것과 유사한 작업이 효과적이되, 다만 우리의 관심이 음운론적 변화의 고찰에 있기 때문에 음운론적인 기준에 의지하게 된다. 즉 활용형들에 포함된 어간 또는 어미의 이형태(allomorph)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활용형으로부터 활용 양상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벗-'의 활용형 '벋떠라, 벋찌; 벅꼬, 벅껜찌만; 번는, 번니; 버스면, 버서도' 등은 어간의 이형태에 따라 '벋X, 벅X, 번X, 벗X'의 부류를 이루게 되며, 어미 '-고'의 활용형 '가고(去), 알고(知); 먹꼬(食), 안꼬(抱); 나코(産), 실코(厭)' 등은 어미의 이형태에 따라 'Y고, Y꼬, Y코'의 부류를 이루게 된다.[2]

---

2) '벋X'나 'Y고' 등은 활용형들의 집합이며 (4)는 이들 집합의 원소를 ∋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편 '벗-'의 경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치동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벅꼬~버꼬, 벋떠라~버떠라'와 같이 후행 자음과 동일 계열의 자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은 생략하였다.

(4) ㄱ. 벗- 벋X ∋ 벋떠라, 벋찌, ……
벅X ∋ 벅꼬, 벅껟찌만, ……
번X ∋ 번는, 번니, ……
벗X ∋ 버스면, 버서도, ……
ㄴ. -고 Y고 ∋ 가고, 알고, ……
Y꼬 ∋ 먹꼬, 안꼬, ……
Y코 ∋ 나코, 실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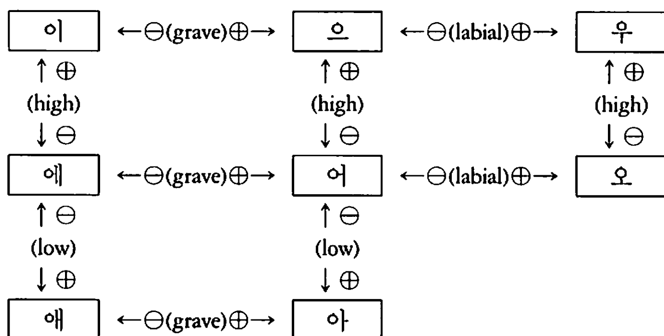
활용형들을 이와 같이 분류함으로써 체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할 대상의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버스면/과 /번는/의 관계, /버서도/와 /번니/의 관계 등 개별적인 활용형들 사이의 관계를 일일이 살필 것이 아니라, 활용형들의 집합인 '벗X'와 '번X'의 관계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다.

한편 (4)는 어간 또는 어미의 이형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고찰의 대상을 어간과 어미의 결합체인 활용형으로부터 어간 또는 어미의 이형태로 전이시킬 수 있게 한다. 즉 (4ㄱ)에서의 X는 어미의 활용에서, (4ㄴ)에서의 Y는 어간의 활용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ㄱ)과 (4ㄴ)에서 고찰의 대상은 각각 어간과 어미의 이형태로 족하다. 이러한 어간이나 어미의 이형태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혹 체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기 위해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음들의 대립 관계를 우선 간단히 살피고 이에 빗대어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 보자.[3]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opposition), 즉 그들이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에 초점이 놓인다. 모음체계를 구성하는 각 모음들은 다른 모음들과 어떠한 음성적 성격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

3) 도식화의 편의를 위하여 8모음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편으로 여타 음성적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각 모음들은 다른 모음들과 관계를 맺으며 체계 내에서 각자의 자리매김을 한다. 예를 들어 /이/와 /에/는 [-grave, -low, -labial]이라는 점이 공통이지만 [high]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와 /으/는 [+high, -low, -labial]이라는 점이 공통이지만 [grave]에서 차이를 보인다.[4]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 따라 각 모음들은 체계 내에서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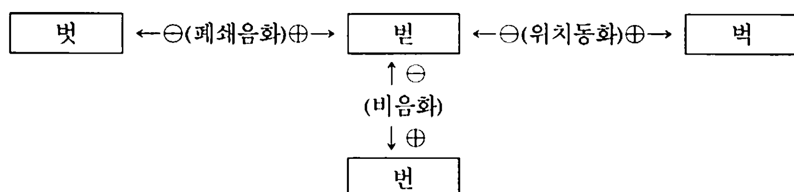
<그림1 : 모음체계>

<그림1>을 보면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표시된 것은 /에/와 /으/뿐이지만, 이와 같은 표시가 /이/와 그 밖의 요소들이 아무 관계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는 /오/와 [grave, labial, high]에 의한 대립 관계에 있다. 만일 이 두 음이 전혀 새로운 [X]라는 하나의 자질에 의해서만 대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대립은 <그림1>에 표시되었을

4)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변별적 자질 및 그 약호는 다음과 같다. [consonantal (cons)], [vocalic (voc)], [grave], [labial], [palatal (pal)], [sonorant (son)], [continuant (cont)], [nasal], [tense], [aspirated (asp)], [high], [low]. 가능한 한 자음과 모음에 같은 자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모음에서 유용한 [back]과 [round]를 대신하여 [grave]과 [labial]을 쓰고자 한다.

것이다. 그러나 /이/와 /오/의 대립 관계를 규정하는 세 자질은 각각 그것만으로 대립되는 짝들, 예를 들어 /이/ : /으/([grave] 대립), /으/ : /우/([labial] 대립), /우/ : /오/([high] 대립)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오/의 관계는 이들의 대립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가 한 어간 또는 어미의 이형태들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모음체계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관계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음성 자질은 음운 현상으로 대신하고, 음성 자질의 유무는 음운 현상의 적용 여부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컨대 '벗-'의 이형태들은 다음의 도식과 같이 특정한 음운 현상을 두고 이분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림2 : 이형태의 이분법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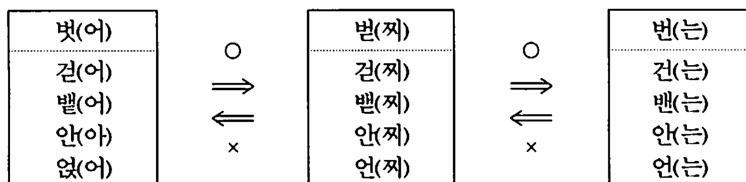
/벗/ : /벋/, /벋/ : /벅/, /벋/ : /번/의 대립쌍들은 각각 다른 모든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폐쇄음화, 위치동화, 비음화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술한 모음체계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표시된 대립짝들이 하나의 자질에 의해서만 대립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또한 직접적인 관계가 표시되지 않는 /벗/ : /벅/, /벅/ : /번/, /번/ : /벗/의 대립은 그 관계가 /벋/과의 대립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음운체계의 경우와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음운체계를 모델로 하여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음운체계에서의 음성 자질을 이형태들에 적용

된 음운 현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high], [grave] 등의 음성자질에는 어떠한 방향성도 함의되어 있지 않은 반면, 폐쇄음화, 위치동화, 비음화 등 음운 현상의 '~화'라는 용어에는 변화 혹은 변동의 방향성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림2>는 마치 하나의 이형태 /벗/에 폐쇄음화가 적용되어 또 다른 이형태 /벋/으로 변하고, 다시 /벋/이 /벅/과 /번/으로 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한 형태소가 둘 이상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교체를 보일 때, 어느 한 이형태를 기본형(basic form) 또는 기본 교체형(basic alternant)이라 하고 다른 이형태들은 기본형에서 변한 것이라는 등의 서술을 흔히 본다. 그러나 기술언어학에서 이형태들 사이의 교체는 무방향적 혹은 양방향적인 성격(Dressler 1985:16)을 띤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엄밀히는 적절하지 못한 서술이라 할 것이다.

<그림2>에서 거론된 음운 현상, 기본형 및 교체의 방향성 등은 모두 이형태 실현 환경의 비교 즉 이형태들 사이의 분포 관계에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졸고 2003:227~233). '벗-'을 예로 하여 평폐쇄음화와 비음화에 관련된 부분만을 살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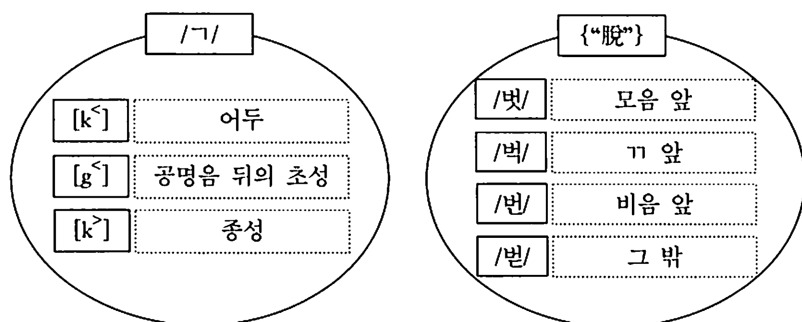
<그림3 : 실현 환경의 상호 비대칭성>

모음 앞에서 /Xㅅ/으로 실현되는 형태소는 장애음 앞에서 언제나 /Xㄷ/으로 실현된다. 반면 장애음 앞에서 /Xㄷ/으로 실현되는 형태소는 모음 앞에서 /Xㅅ/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Xㄷ/(/거더/의 /걷/)으로 실

현되기도 하고 /Xㅌ/(/배터/의 /밸/)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즉 모음 앞 /Xㅅ/의 실현은 장애음 앞 /Xㄷ/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장애음 앞 /Xㄷ/의 실현은 모음 앞 /Xㅅ/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장애음 앞 /Xㄷ/과 비음 앞 /X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장애음 앞 /Xㄷ/의 실현은 비음 앞 /Xㄴ/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로써 모음 앞에서 /Xㅅ/이 실현된다는 것만으로 같은 형태소가 장애음 앞에서는 /Xㄷ/으로, 비음 앞에서는 /Xㄴ/으로 실현됨을 규칙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실현 환경의 상호 비대칭성은 특정한 형태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특정한 문법 범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음운론적인 조건이 같다면 동일하게 해당되는 음운 현상인 것이다. <그림2>에서는 /벗/과 /벋/ 및 /벋/과 /번/의 실현 환경이 보이는 상호 불균형 관계가 각각 '폐쇄음화'와 '비음화'라는 음운론적인 용어로 서술된 것이다. '벗-'의 기본형을 /벗/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교체에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역시 /벗/과 여타 이형태들의 실현 환경이 보이는 비대칭적 상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한편으로 분포 관계로도 정립될 수 있다. 이는 이형태가 자족적인 단위라기보다는 형태소라는 상위 단위에 종속되어 있는 단위라는 점에서 음운(phoneme)과 이음(allophone)의 관계에 빗댈 만하다. <그림2>를 통해 살핀 이형태들의 이분법적 관계도 궁극적으로는 분포 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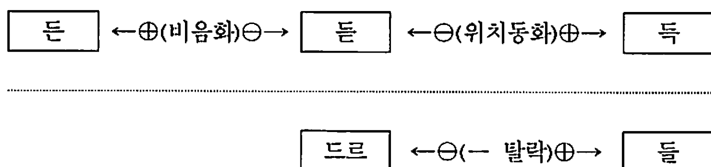
<그림4 : 이음과 이형태의 분포 관계>

몇 가지 점에서 위의 둘은 매우 흡사하다. 첫째, 상위의 단위와 그에 종속된 하위의 단위라는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ㄱ/과 [k<, g<, k>]에서는 음운과 이음의 상하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脫"}과 /벗, 벅, 번, 벋/에서는 형태소와 이형태의 상하위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아울러 상위의 단위만이 의미와 관련성을 갖고 있어 음운은 이음과는 달리 의미를 변별할 수 있으며, 형태소는 이형태와는 달리 음상과 함께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위이다.

둘째,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보적으로 분포함으로써 각 요소들의 실현 환경 총합이 상위 단위의 실현 환경과 일치한다. /ㄱ/은 [k<]가 실현되는 어두, [g<]가 실현되는 공명음 뒤의 초성, [k>]가 실현되는 종성 이외에는 실현되지 않는다. 하위 단위들의 실현 환경에 누락되어 있는 환경, 예컨대 [k<, g<, k>]의 어느것도 실현되지 못하는 장애음 뒤에서는 상위 단위인 /ㄱ/도 역시 실현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형태소 {"脫"}이 실현되는 환경은 각각의 이형태들이 실현되는 환경의 총합과 다르지 않다.

용언 어간의 이형태들은 이상의 이분법적 관계 또는 분포 관계로써 대부분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 다만 변칙 어간의 경우는

관계 표시의 두 방식이 모두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은 ㄷ 변칙 어간 '듣-'의 이형태들이다.[5]



<그림5 : 변칙 어간 이형태의 이분법적 관계>

<그림5>에서 /듣/ : /득/ : /든/의 관계, /드르/ : /들/의 관계는 각각 위와 같이 이분법적인 관계로 서술될 수 있지만, /듣, 득, 든/과 /드르, 들/ 사이의 관계는 같은 방법으로는 서술될 수가 없다. 두 이형태군을 연결지을 만한 음운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듣	'-지, -더라' 등 ㄱ 이외의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
득	'-고, -겠-' 등 ㄱ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
든	'-는, -나' 등 비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
드르	'-(으)면, -(으)니까, -(으)ㄴ' 등 으-계 어미 앞
들	'-아도/어도, -았/었-' 등 아-계 어미 앞

<그림5′ : 변칙 어간 이형태의 분포 관계>

한편 <그림5′>은 각 이형태들의 실현 환경을 보인 것인데, <그림5>와는 달리 이형태들을 두 무리로 나눌 만한 이유가 없다.[6] 정칙 어간

5) /드르/와 /들/ 사이의 ㅡ 탈락은 둘 중에서 전자를 기본적인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으-계 어미 앞에서 /Xㅡ/로 실현되는 어간은 아-계 어미 앞에서 언제나 /X/로 실현되지만 ㄹ 말음 어간에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의 경우인 <그림4>와 비교해 보면, 실현 환경이 순수하게 음운론적으로만 기술될 수는 없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듣, 득, 든/은 자음어미, /드르/는 으-계 어미, /들/은 아-계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고 할 것인바, 이들 중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라는 부류는 교체를 염두에 둔 형태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듣, 득, 든/이 실현되는 자음어미는 다시 음운론적으로 분류되어 장애음, ㄱ,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나뉘어 실현 환경이 기술된다.

변칙 어간의 기본형은 /듣, 득, 든/과 /드르, 들/의 두 이형태군에서 하나씩 선정될 수가 있다. 전자에서는 정칙의 ㄷ 말음 어간과 같이 /듣/이 기본형이라 할 것이며, 후자에서는 정칙의 ㅡ 말음 어간과 같이 /드르/가 될 것이다. <그림5>에서 ⊖값만을 갖는 이형태 역시 /듣/과 /드르/이다. 비록 기본형이 둘이기는 하지만 각각이 포함된 이형태군 내에서의 교체, 즉 나머지 이형태들의 실현을 규칙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형 선정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문제는 두 기본형 /듣/과 /드르/, 나아가 이들 각각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두 부류의 이형태군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이다. 이분법적 관계로는 기술될 수가 없음은 앞서 논하였지만, 분포 관계로 기술되기 또한 쉽지 않다.

(5) ㄱ. /듣/ : ㄱ 이외의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
/드르/ : 으-계 어미 앞
ㄴ. /듣/ : 자음어미 앞
/드르/ : 그 밖

6) /드르, 들/의 실현 환경인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는 복수 기저형을 지닌 어미이며, /듣, 득, 든/의 실현 환경인 자음어미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자음어미 중에도 '-ㄴ다/-는다', '-ㅁ니다/-씁니다' 등은 복수 기저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ㄱ)은 <그림5′>에 기술된 실현 환경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하위 단위가 실현되는 환경의 합이 상위 단위의 실현 환경보다 작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즉 ㄱ이나 비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 아-계 어미 앞이라는 환경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형 이외의 이형태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어렵다. 즉 /듣/이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된다는 정보만이 주어지므로 /득, 든/의 실현이 /드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는 /드르/와 /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ㄴ)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우선 자음어미 앞이라는 환경과 그 밖이라는 환경의 합은 어간이 실현되는 환경에서 누락되는 바가 없다. 또한 /듣, 득, 든/이 모두 자음어미 앞의 이형태이고, /드르, 들/이 그 밖의 환경에서 실현되는 이형태라는 점에서 각 이형태군 안에서 각각 /듣/과 /드르/가 기본형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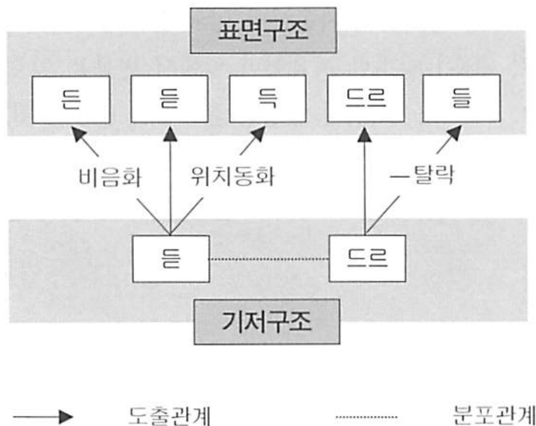
그러나 (5ㄴ)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자음어미 앞에서 언제나 /듣/만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며 자음어미 이외의 환경에서 언제나 /드르/만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자음어미 앞에는 /득, 든/도 실현되고 있고, 자음어미 이외의 환경에서는 /들/도 실현되고 있으므로, /듣/이 일정한 자음어미 앞에서 변동을 일으켜 /득, 든/으로 실현되고, /드르/가 그 밖의 일정한 환경에서 변동을 일으켜 /들/로 실현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형도 어디까지나 표면에 드러난 하나의 이형태일 뿐, 다른 이형태로 변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2.1.2. 도출 패러다임

기술언어학에서 /듣, 드르/가 /득, 든, 들/로 변할 수 없는 것은 기본형

도 여러 이형태들 중 하나일 뿐이어서 그 문법적 지위가 여느 이형태와도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듣, 드르'가 나머지 이형태들과는 다른 문법적 지위를 지닌 형식이라면 /득, 든, 들/로의 변동은 기술 가능하다. 나아가 '듣, 드르'가 이형태가 아니라면 (5ㄴ)의 실현 환경상의 문제점도 해결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형태와는 다른 성격의 '듣'이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된다는 것과 이형태 /듣/이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후자의 기술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전자의 기술에서는 '듣'이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되 그 하위 환경인 비음 앞에서는 /든/으로 변동되고 ㄱ 앞에서는 /득/으로 변동되는 한편 그 밖의 환경에서는 그대로 /듣/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성문법에서는 형태소가 실현되는 형식을 기저 구조와 표면 구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기저 구조의 '듣'은 표면 구조의 /든/이나 /득/으로 변동되며, '드르'는 /들/로 변동되는 한편, 둘 모두 그대로 /듣/과 /드르/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 변칙 활용의 요소와 관계>

<그림6>에서는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생성문법에서 표면형이 지니는 지위에 관련된 것인데, 생성문법의 표면형이란 기저형과 규칙을 통해 실현된 것일 뿐 상호 관계를 밝힐 만큼 문법 내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의 분포 관계를 직접 나타내지 않더라도 도출 관계 및 기저의 분포 관계를 매개로 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든/과 /득/의 관계는 '/든/←(비음화)—//듣//—(위치동화)→/득/'과 같이 서술될 수 있는데,[7] 이는 <그림1>이나 <그림2>에서 두 요소 사이의 관계가 다른 요소를 매개로 하여 기술되었던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기저형과 표면형이 맺고 있는 관계는 기술언어학에서 기본형과 여타 이형태들의 관계와 같이 비대칭적이다. 예컨대 비음 앞의 /든/은 기저 층위에서 //듣//일 수도 있지만, //든//이나 //듯//일 수도 있고, 아-계 어미 앞의 /들/은 기저 층위에서 //드르//일 수도 있지만 //들//이나 //듫//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저 층위의 //듣//은 비음 앞에서 언제나 /든/으로 실현되고, //드르//는 아-계 어미 앞에서 언제나 /들/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기저형과 표면형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방향성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둘 사이의 관계를 '도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기저형 //듣//과 //드르//가 맺고 있는 관계는 (5ㄴ-)과 같다. 즉 전자는 자음어미 앞에서, 후자는 그 밖의 환경에서 선택된다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으며, 두 환경의 합은 상위의 단위인 형태소 '듣-'이 실현되는 모든 환경과 일치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저의 분포 관계는 단일 기저형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기저의 분포 관계는 崔明玉(1985, 1988), 배주채(1989), 金京芽

---

7) 표면형에 대립되는 기저형을 표시할 때에는 // //를 쓰기로 한다. 이 표시는 그 안에 적혀 있는 분절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단지 기저형임을 나타낼 뿐이다.

(1990) 등에서는 기저형 선택 규칙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되기도 하였다.

> … 비생성적이다. 이들 규칙은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휘화된 교체형을 서로 연결시키며 아울러 적합한 어미에 결합될 교체형을 배정시키는 것이다. (崔明玉 1985:183)

> 기저형이 여럿(대개 둘 또는 셋)인 형태소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적절한 기저형을 배정하는 규칙이다. (배주채 1989:25)

崔明玉(1985)에 따르면 기저형 선택 규칙은 상이한 성격의 두 기능을 한다. 그 하나는 기저형들을 '연결'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저형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배주채(1989)의 정의를 참조하면, 후자의 '배정'이 선택 규칙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종단교점(terminal node)이 처한 문법적 · 의미적 맥락에 맞는 형태소가 어휘부로부터 선택되고, 형태음운적 맥락에 맞는 기저형이 선택 규칙에 의해 적절하게 배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형태소의 선택과 기저형의 배정이 순차적인 별개의 과정으로 다루어진 것은 통사 구조의 종단교점이 처한 문법적 · 의미적 맥락과 형태음운적 맥락을 별개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崔明玉(1985)에 거론된 '연결'이 <그림6>의 분포 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문제는 연결의 대상이 되는 두 형식이 지니고 있는 문법 내적 지위이다. 각각의 기저형이 별개의 어휘 항목을 이루고 그 두 어휘 항목을 연결하는 것인지, 복수의 기저형이 하나의 어휘 항목을 이루고 항목 내적으로 기저형들을 연결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한영균(1985:395)에서는 각 기저형들이 보이는 분포의 상보성을 근거로 하여 복수 기저형들이 하나의 어휘 항목을 이루고 있다고 논하였다.[8] 여기에 복수의 기저형들이 문법적 ·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는 점, 그 환경의 합이 상위 단위의 실현 환경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그림6>에 표시된 기저의 분포 관계라고 할 것이다.

	v. "脫"		v. "聞"	
등재단위	//벗// (모든 환경)		//듣// (환경A)	//드르// (환경B)
표면형	/벗/ /벋/ /벅/ /번/		/듣/ /득/ /든/ /드르/ /들/	

<그림7 : 기저형과 실현 환경>

단일 기저형을 지닌 형태소 '벗-'은 표면에서 언제나 /벗/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부에 표시된 기저형 //벗-//에 '모든 환경'이라 적어 둔 것은 표면에서의 '환경'과는 다른 의미로, 즉 종단교점에 형태소가 삽입되는 단계(=음운부의 입력)에서의 삽입 환경이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표면 환경'에 대한 '기저 환경'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9] 또한 단일 기저형을 지닌 형태소의 기저형은 그 형태소가 삽입되는 모든 기저 환경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굳이 '모든 환경'이라는 표시를 둘 필요가 없겠지만, 복수 기저형을 지닌 형태소의 경우에는 문법적·의미적 맥락뿐만 아니라 형태음운적인 맥락에 맞추어 형태소가 지닌 복수의 기저형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

이와 같이 복수의 기저형들은 함께 하나의 어휘 항목을 이루고 있고,

8) 마치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는 두 음성 [h]와 [ŋ]이 음성적 유사성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의 음소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상보적 분포만으로는 복수 기저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부족하다. 자음어미 앞에서 선택되는 //듣-(聞)//과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 앞에서 선택되는 //무르-(問)//가 한 형태소를 이루지는 않는 것이다.

9) 기저형이 선택되는 조건을 /으면/ 또는 /면/, /아도/ 또는 /어도/ 등과 같이 표면에 드러나는 음운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으-계 어미, 아-계 어미와 같이 제시하는 것 역시 기저형이 삽입되는 환경이 표면의 것이 아니라 기저의 것임을 말해 준다.

그 안에서 상보적인 분포 관계로 '연결'되어서, 종단교점이 처한 문법적·의미적·형태음운적 맥락에 맞추어 삽입된다.[10] 결과적으로 따로이 기저형들을 '배정'할 기저형 선택 규칙은 필요치 않게 된다.[11]

이형태들 가운데에서 기본형을 선정하는 기술언어학과는 달리 생성문법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이형태들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한다. 어떠한 형태소의 표면형들과 기저형이라는 요소, 그리고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도출 관계 및 기저의 분포 관계의 총합을 도출 패러다임(derivational paradigm)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체계에서 홀로 변하는 것이 없듯이 도출 패러다임에서도 홀로 변하는 것은 없다. 어느 한 요소나 관계가 변하면 다른 요소나 관계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변화에 의해 표면형이 변하면 규칙이 첨가됨으로써 도출 관계가 따라서 변하거나 규칙이 첨가되지 않고 기저형이 따라서 변하게 되고, 어휘부의 압력으로 기저형이 변하면 반드시 표면형이 따라서 변한다. 체계적인 고찰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2. 생성문법과 형태음운론적 변화

문법은 공시적 현상과 통시적 현상을 모두 포괄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적 현상을 서술하는 문법체계와 통시적 현상을 서술하는 문법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서술 태도의 일관성이 문제일 것이

---

10) 물론 기저형은 패러다임 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휘부의 한 요소로서 여타 어간의 기저형들과도 계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기저형 변화의 요인으로 다루게 될 감염이나 용언 어간 구조 조건과 관련이 있다.

11) 金星奎(1988)이나 배주채(1998)에서처럼 //듣-(자음어미 앞)/드르-(그 밖)//과 같이 환경과 함께 표시하는 것은 이미 기저형 선택 규칙이 불필요함을 뜻한다.

며, 어떠한 문법체계가 공시적 현상이나 통시적 현상의 어느 한 쪽만을 서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법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생성문법은 공시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 규칙을 고안하였다. 이들 도구는 매우 편리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시론적 연구들이 이를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공시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문법체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시적 현상의 설명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공시론적 기술을 위한 도구의 유용성이 재확인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통시적 음운 현상에 대한 생성문법의 본격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는 Kiparsky(1965)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운론적 변화를 음변화(sound change)와 불완전 학습(imperfect learning)에 의한 것으로 나누고, 음변화는 다시 개신(innovation)과 이에 뒤이은 재구조화(restructuring)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본절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생성문법적 접근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2.2.1. 음변화

2.2.1.1. 개신

생성문법이 통시적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선 해결하여야 했던 과제는 음변화를 그들의 문법체계에서 어떻게 서술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소장문법학자는 변화를 겪은 단어들을 모아 일반화하여 법칙으로 서술하였고, 구조문법에서는 음운체계와의 관련성 및 음변화로 인한 음운체계의 변화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음운 및 음운층위를 인정하지 않는 생성문법에서 음운체계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Halle(1962)는

음변화를 규칙 첨가(rule addition)로 서술하였다.[12]

우선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믈(水)>물'의 원순모음화를 예로 하여, 구조문법과의 차이를 비교하며 생성문법의 서술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13]

(6) [mil] > [mul]

ㄱ. /mil/ : [mil] ⇒ /mul/ : [mul] cf. /i/>/u/

ㄴ. ∥ mil ∥ → [mil] ⇒ ∥ mil ∥ —(규칙)→ [mul]

(6ㄱ, ㄴ)은 각각 형태소 내부의 원순모음화에 대한 구조문법과 생성문법의 서술이다. (6ㄱ)에서는 도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운표시(phonemic representation)와 음성표시(phonetic representation)의 대응 관계를 보였으며, (6ㄴ)에서는 체계음운표시(systemetic phonemic representation)로부터 음성표시로의 도출로 표시하였다. 두 문법 모두 외면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mil]로 발화되던 단어가 [mul]로 발화된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두 문법이 각각 어휘부 표시의 변화((6ㄱ)의 /mil/>/mul/) 또는 규칙의 첨가((6ㄴ)의 —(규칙)→)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음성표시의 변화가 음운표시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조문법의 서술을 이해하는 데에는 Twaddell(1938)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변화 이전 특정 음성과 특정 음운은 일정한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그 음성이 변화를 겪게 되면 해당 음운과의 대응 관계가 깨지게 된다. 대응 관계를 잃은 음성은 스스로 음운이 되어 대응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다른 음운과 대응 관계

12) Hooper(1976:84~86)에서는 규칙 첨가에 대하여 기존의 음성 실현 방법에 변형이 가해진 것이라 하여 규칙 변형(rule modification)이라 하였다.

13) 음운은 / / 안에, 음성은 [ ] 안에 표시하였고, 체계음운은 임의로 ∥ ∥ 안에 표시하였다.

를 맺게 된다.

Twaddell이 든 첫 예는 움라우트에 이은 동화주의 소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음운 /u/는 움라우트가 적용되어 i 앞에서는 [ü]로 실현되고, 그 밖의 위치에서는 [u]로 실현되었다. 음운표시 /uCi/와 음성표시 [üCi]가 대응 관계에 있던 가운데 [ü]의 실현 환경인 [i]가 [ə]로 약화되는 또 다른 음변화가 일어난 결과 [ü]는 더 이상 /u/와의 대응 관계에 있지 못하게 된다. 즉 [ü]와 [u]의 대립이 음운화되어 각각 /ü/와 /u/의 지위를 지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전 /uCi/였던 기저표시가 /üCə/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음운화(phonologization)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국어의 경우 이에 정확히 해당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축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후행하는 활음 j에 의한 전설모음화를 비롯한 일련의 음성 과정을 통한 것이라고 본다면(韓榮均 1991ㄱ, ㄴ)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7)	/a/ : [a]		/a/ : [ɛ]		/ɛ/ : [ɛ]
'냏(川)'의 단독형	/naj/ [naj]	[a]→[ɛ]/__j	/naj/ [nɛj]	[j]→ø	/nɛ/ [nɛ]
'낳(歲)'의 단독형	[na] /na/		[na] /na/		[na] /na/

우선 음운 /a/가 j 앞에서 이음과정인 전설모음화를 통해 [ɛ]로 실현됨으로써 음운표시 /aj/는 음성표시 [ɛj]와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후 j의 탈락으로 인하여 [ɛ]와 [a]의 대립이 음운화되어 [ɛ]의 음운표시가 /ɛ/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변이음 환경 즉 움라우트나 전설모음화의 동화주가 소실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6)과 같이 변화의 환

경(동화주)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과는 다른 유형을 보여 준다.

Twaddell은 또한 변화된 음성이 기존의 다른 음운과 대응 관계를 이루게 된 예도 들고 있다. 역시 움라우트를 예로 들고 있는데, /aCi/와 대응 관계에 있던 [aCi]가 변화를 겪어 [eCi]로 실현될 때에 [e]는 /a/의 이음으로 대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에서 변화된 [e]가 실제로는 또 다른 음운 /e/의 이음인 [e]와 같은 음이기 때문에 [eCi]의 음운표시는 /aCi/가 아닌 /eCi/일 수밖에 없게 되어 음운표시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음운과 음성 사이의 양방향동일성 조건(biuniqueness condition)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서 (6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14]

(8) /mil/ : [mil] ⇒ /mil/ × [mul] ⇒ /mul/ : [mul]

즉 변화 이전에는 /i/에 대응되던 음성 [i]가 [u]로 변화되고, 변화된 이 음성이 기존의 음운 /u/의 이음 [u]와 동일한 음이기 때문에 음운표시마저 /mul/로 바뀐 것이라 할 것이다.

구조문법에서 (6)을 음운표시의 직접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자립적 음운(autonomous phoneme)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생성문법은 그러한 단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규칙의 첨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Bynon 1977:117). 다시 말해 구조문법에서는 음운 및 이와 대응을 이루는 음성을 두고 이 두 단위 사이에 양방향동일성 조건을 적용시킬 수가 있었지만, 생성문법에서의 음성표시는 체계음운표시로부터 음운규칙에 의해 사상(mapping)된 것일 뿐 음성의 변화를 체계음운에까지 소급하여 변화시킬 만한 대응 관계를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15]

---

14) (8)의 ×는 음운표시와 음성표시의 대응 관계가 깨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음변화에 대한 구조문법과 생성문법의 서술 태도는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의 설정 및 규칙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처럼 음운 및 음운층위의 상정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를 다시 말하면, 기저형, 표면형, 규칙을 응용하는 생성문법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음운 및 음운층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음운과 음성 사이의 양방향동일성 조건을 이용하는 (6ㄱ)과 같은 구조문법적 서술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음운규칙과 관련하여서도, 그 입력은 체계음운표시이고 출력은 음성표시라는 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규칙의 입력과 출력이 같은 성격의 분절음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음운표시인 규칙을 음운규칙,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음성표시인 규칙을 음성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표시 /먹는/에 규칙이 적용되어 /멍는/이 될 수도 있으며, 음운표시 /셔/에 대응하는 음성표시 [ʃjə]가 [ʃə]로 변동을 겪을 수도 있다.[16]

15) 다른 한편으로 생성문법은 심층 구조에서 표면 구조로의 도출이 곧 문법이라고 여긴 만큼 도출 과정의 변화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도 규칙 첨가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또한 생성문법에서 게신을 일으키는 규칙은 도출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첨가될 수는 있지만, 중간에 삽입(insertion)될 수는 없기 때문에 (King 1973) 음성표시에만 변화를 가져올 뿐 체계음운표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는 곧 모든 음변화에 대하여 기저표시는 그대로 둔 채 규칙의 첨가를 통하여 음성표시의 변화를 서술해야 하는 서술 태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6) 이러한 성격의 규칙은 조화음운론(harmonic phonology : Goldsmith 1993)의 층위내 규칙(intralevel rule) 또는 조화 규칙(harmonic rule)과 흡사한 것으로서, 음운과 음성 각 층위의 분절음 연쇄는 해당 층위를 지배하는 제약에 조화롭도록 변동을 겪는다.

(6′) [mil] > [mul]

ㄱ. /mil/ : [mil] ⇒ /mul/ : [mul] cf. /i/>/u/

ㄴ. /mil/ : [mil] ⇒ /mil/ —(규칙)→ /mul/ : [mul]

(6′ㄱ)은 구조문법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인 반면, (6′ㄴ)은 다소 개량된 생성문법적 서술로서 음운 및 음운층위를 상정하여 음운과 음성을 대응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음운규칙을 음운표시에서 음운표시로의 변동으로 보아 '/i/→/u/'라는 규칙을 첨가하여 본 것이다. 이것만을 보면, 이 둘 중 어느 한 방법을 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지만, Kiparsky (1968b)의 교체 조건(alternation condition) 이후 70년대의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generative phonology)에 이르도록 진행된 공시론적 기술에서의 기저형 설정 및 규칙 상정에서의 추상성과 구체성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6′ㄱ)이 타당하고도 경제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운론만이 아닌 형태론적인 면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음운론적 관점에 서서 가급적 표면 음성형에 가까운 기저형을 설정하고, 교체를 보이지 않는 형태소의 기저형을 고정시킴으로써 형태소 내부에 적용되는 규칙을 가급적 상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6′ㄴ)은 적합하지 못하다.

음성표시의 변화로 인하여 음운표시가 바뀌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기저형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저형은 도출 과정의 입력일 뿐만이 아니라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위의 음운표시이기 때문이다. 물론 (6)과 같이 변화를 겪은 형태소가 교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혹은 교체를 보이더라도 변화를 겪은 부분이 그와는 전혀 무관할 경우에는 변화된 음운표시 그대로 기저형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체와 관련된 음이 변화를 겪을 때에는 음운표시의 변화에 이은 조정을 통해 기저형이 변하든가 도출 관계가 변화를 입게 된다.

(9)

기저형	플-	⇒	풀-
도출관계	규칙 없음	═	규칙 없음 ↑ ②
표면형	/플고, 플면, 프러/		/풀고, 풀면, 푸러/ ↑ ①
	[p^hilgo, p^hilmjən, p^hirə]	>	[p^hulgo, p^hulmjən, p^hurə]

변화된 음성표시가 음운표시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이 ①이며, 이는 양방향동일성 조건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음성과 음운의 대응 관계로 확인된 /풀고/ 등의 음운표시 자체는 기저형이 아니라 어간이 실현된 표면형일 뿐이다. 그리고 '기저형—(도출)→표면형'이라는 도출 패러다임의 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여타 요소 및 그들간의 관계는 다시 ②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9)와 같이 기저형이 변화를 입기도 하고 후술될 바와 같이 도출 관계가 변화를 입기도 한다.

생성문법의 규칙 첨가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음변화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났을 경우이다.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든 음변화가 규칙 첨가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규칙 첨가는 매우 유용한 서술 방법이 된다. 다음은 음절말 'ㅅ>ㄷ'이 형태소 경계(벗-+-고)에 적용된 예이다.

(10) [pəsko] > [pətko]

ㄱ. /pəsko/ : [pəsko] ⇒ /pətko/ : [pətko]

ㄴ. /pəsko/ : [pəsko] ⇒ /pəTko/ : [pətko]

ㄷ. /pəsko/ : [pəsko] ⇒ /pəSko/ : [pətko]

ㄹ. ‖ pəsko ‖ → [pəsko] ⇒ ‖ pəsko ‖ —(규칙)→ [pətko]

ㅁ. /pəsko/ : [pəsko] ⇒ /pəsko/ —(규칙)→ /pətko/ : [pətko]

(10ㄱ, ㄴ, ㄷ)은 구조문법의 서술이다. 변화 후의 (10ㄱ)은 앞선 (6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표면의 [t]가 /t/의 이음이라는 이유로 기저표시를 /pətko/로 파악한 것이다. 해당 음운표시와 음성표시의 음운론적인 면만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형태론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른 활용형 /pəsimjən, pəsə/ 등을 감안할 때 (10ㅁ)과 같이 규칙이 없다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이지 못한 서술이라 할 것이다. (10ㄴ, ㄷ)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10ㄴ)은 중화(neutralization)와 원음소(archiphoneme), (10ㄷ)은 형태음소(morphophoneme)를 이용한 것이다. (10ㄴ)은 /s/와 /t/가 개별 음소로서 존재하면서 각각 [s], [t]와 대응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두 음소의 대립이 중화되어 음성 [t]로 실현된다는 서술이다. 이 때의 중화된 음소 즉, 음절초에서 /s/와 대립을 이룰 수 있는 /t/와는 별개로 음절말에서 /s/와 대립을 이루지 못하는 원음소 /T/를 설정하고 이를 음성 [t]와 대응시킨 것이다. (10ㄷ)은 이와는 약간 달리 집합 개념의 형태음소 /S/를 설정하고, 이 분절음이 환경에 따라 [s]와 [t] 모두와 대응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10ㄹ, ㅁ)은 생성문법의 서술이다. 전자는 체계음운표시에서 음성표시로의 사상을, 후자는 음운표시에서 음운표시로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둘 모두 규칙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표시에 초점을 두었던 (10ㄴ, ㄷ)보다는 대응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 현상을 서술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위가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ㄴ, ㄷ)에 비해 문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형태론적으로는 하나의 형태소에 대한 하나의 기저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ㄱ)에 비해 효율적이다. (10ㄹ)과 (10ㅁ)을 비교할 때, 도출 과정만을 보면 전자가 오히려 후자보다 간결하지만 앞서 (6)에서 살핀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음운층위를 인정하는 후자의 서술이 낫다고 할 수 있다.

규칙 첨가는 도출 패러다임에서 도출 관계의 변화를 뜻한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현상만이 규칙 첨가로 서술될 수 있으며,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는 음운 층위를 인정하는 한 규칙 첨가로 서술할 필요가 없이 앞서와 같이 대응 관계로 서술된다.

(11)

기저형	벗-	=	벗-
도출관계	규칙 없음	⇒	규칙 첨가
			↑②
표면형	/벗고, 버스면, 버서/		/벋꼬, 버스면, 버서/
			↑①
	[pəsko, pəsɨmjən, pəsə]	>	[pətk'o, pəsɨmjən, pəsə]

형태소 경계에서도 ①의 과정은 역시 양방향동일성 조건에 의한 것이며, 이렇게 변화된 자음어미 결합형과 여타 활용형들을 종합하여 새로이 도출 패러다임을 재구성(②과정)하면서 규칙이 첨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2.2.1.2. 재구조화

Kiparsky(1965)에서는 음변화가 개신, 즉 규칙의 첨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 후속되는 재구조화에 의해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개신이 일어난 세대의 발화, 예컨대 [mul]은 기저형 //mil//에 규칙이 적용되어 실현된 것이지만, 이 발화를 듣고 자신의 문법을 구축하는 그 다음 세대에서 기저형을 아예 //mul//로 바꾸고 규칙을 버림으로써 음변화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조화에는 이전 세대에서의 개신, 이전 세대보다 단순해진 문법, 이전 세대와 동일한 출력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요구된다(Kiparsky 1970/1982:53).

> 재구조화는 언어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법 단순화와 다르다. 재구조화는 새로운 규칙이 첨가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문법을, 같은 언어를 생성해 내면서도 보다 단순한 문법으로 대체할 뿐이다.[17]

원순모음화라는 규칙이 이전 세대에 첨가되고, 그들과 동일한 출력인 [mul]을 산출해 내면서도 규칙 적용 과정을 버림으로써 좀 더 단순해진 문법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재구조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대체로 King(1969)의 재구조화 및 재어휘화(relexicalization : Vennemann 1972, Jeffers 1974, 1976), 어휘적 재구조화(lexical restructuring : Bynon 1977)라는 용어로 유지된다.[18]

이러한 개념의 재구조화는 음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는 모든 음변화가 공시적인 규칙으로 존재하였다는 초기 생성문법의 서술 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쓰기는 어렵다. 물론 '믈'에서 '물'로 변하는 도중에 수의적으로 '믈'로도 '물'로도 발음할 수가 있고, 그 경우 원순모음화가 수의적인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수의적인 규칙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교체를 기술하기 위한 도구이기에 교체하지 않는 부분에 적용할 수는 없다.[19] 따라서 '믈'에서 '물'로의 변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두 어형을 모두 발화하

---

17) Restructuring, however, differs from simplification in that it involves no actual change in the language, but merely the substitution, for an unnecessarily complex grammar arising through the addition of a new rule, of a simpler grammar which generates the same language.

18) 일찍이 Jakobson(1931)은 음운체계의 변화를 분류하면서, 음운 목록의 변화 없이 음운들 사이의 관계만이 변화하는 재음운화(rephonologization)를 논의하면서 이와 같은 의미로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다. 이후에도 DeArmond(1974:103), Jeffers(1974:250, 1976:217) 등에서는 음운론적 재구조화라고 하여, 음운화와 비음운화도 모두 포함한 음운체계의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9)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인 申昇容(2004)와 이진호(2005ㄴ)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흥미롭다.

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어느 한 어형에서 다른 어형으로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화자가 두 어형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래의 국어 음운론 연구에서 재구조화라는 용어는 대체로 King(1969:39)의 '기저 표시에서의 변화(change in underlying representation)'를 그대로 '기저형(underlying form)의 변화'에 한정시켜 받아들여 쓰고 있다. 물론 같은 뜻으로 재구성, 재어휘화, 어휘적 재구조화란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20] '믈'에서 '물'로의 변화는 공시적 규칙의 상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저형이 변하였기 때문에 재구조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 패러다임에서 기저형은 음변화에 의해서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초기 생성문법에서 정립된 재구조화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어에서 재구조화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12)가 이에 가까운 경우라 할 것이다.

(12) 시기1 : 규칙① ㅸ→ㅂ, 규칙② ㅸ→w가 있음.

굽:고 ←(규칙①)— //굽:-// —(규칙②)→ 구워[21]

시기2 : ㅸ이 비음운화되었고 규칙①②가 없음.

굽:고 ←(규칙Ø)— //굽:-/구우-// —(활음화)→ 구워[22]

---

20) 방언연구회 편(2001)의 '재구조화' 항목 참조할 수 있다. 한편 Kiparsky의 재구조화는 문법의 대체(substitution)를 지칭한 것이며, 그를 따른 King의 재구조화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구조화와는 사실은 조금 다른 듯하다. '기저표시①→표면표시①'라는 틀 속에서 표면표시는 그대로인 채 기저표시만이 달라졌다는 뜻으로 보면, '기저표시①⇒기저표시②'라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표시①→표면표시①'에서 '기저표시②→표면표시①'로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재구조화의 '구조'는 통합적인 구조가 아니라 계열적인 구조라 할 것이다.

21) 이하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세 어형의 상성은 표시하지 않고 '굽:고'에서와 같이 잉여적이었으리라 여겨지는 장음을 표시하며 유동적 상성이 모음 앞에서 평성화된 것은 '구버'와 같이 단음으로 간주한다.

22) 도출과정에서 아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규칙Ø'로 표시한다.

어간 말음에 적용된 음변화 'ㅸ>w'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崔明玉 1985:165~166). 이전 시기인 시기1에 개신(규칙②의 첨가)이 있었고, 출력 /굽:고, 구워/도 두 시기에서 같다. 그러나 시기2의 문법이 시기1의 문법보다 단순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ㅸ이 음운체계에서 빠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간의 재구조화와는 무관한 것이며, 어간의 변화만을 볼 때 단일 기저형에서 복수 기저형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자립적인 음운을 상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성문법의 논의에서 언급될 수 없었던 음운체계의 변화(ㅸ의 비음운화)가 시기2의 도출 패러다임으로 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는 점도 문제일 수 있다.

기저형은 음변화에 의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어휘부의 단위로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도 하고, 언어 사용자가 문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임의로 바꾸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추라고 불리던 현상의 경우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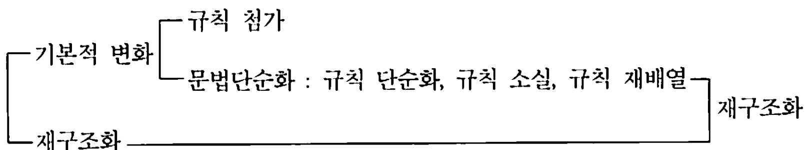
2.2.2. 불완전 학습

생성문법의 역사음운론은 규칙 첨가와 재구조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음변화와 아울러 언어 변화의 다른 한 축으로 다루어져 온 유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규칙의 재배열(reordering)과 단순화(simplification), 소실(loss), 문법의 단순화, 체계적 재구조화(systematic restructuring) 등의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parsky(1965)는 음운론적 변화를 음변화와 불완전 학습으로 나누고, 규칙 재배열, 규칙 소실 등을 후자에 포함시켰다. King(1969)에서는 음운론적 변화를 기본적 변화(primary change : change in the rule component)와 재구조화의 둘로 나누어 규칙 첨가, 단순화, 소실, 재배열 등을 전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기

본적 변화를 규칙 첨가와 문법 단순화 또는 최적화로 나누고 다시 문법 단순화는 재구조화와 함께 묶어 다시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다. 매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규칙 첨가와 나머지 변화들을 구분하려 했던 것은 그 만큼 변화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13) King(1969)의 음운론적 변화 분류



Bynon(1977)은 여기에 약간의 현상을 추가하여 체계적 재구조화(systematic restructuring)라 하여 어휘적 재구조화와 구분하였다. 어휘적 재구조화란 Kiparsky(1965), King(1969)의 재구조화와 같으며, 체계적 재구조화란 규칙 재배열 등을 포함하여 문법의 형식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과 표면형의 규칙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의 둘로 나뉘었다.

이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Vennemann(1972)는 음운론적 변화를 음성적 동기를 지닌 것과 개념적 동기(conceptual motivation)를 지닌 것으로 나누고, 규칙 소실이나 일부의 규칙 단순화 및 재배열 등을 후자에 포함시켰다.

유추의 두 하위 부류인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와 유추적 확대(analogical extension)가 두 종류의 규칙 재배열로 설명(Kiparsky 1968a/1982:41～43)되었듯이 규칙 재배열은 음변화 이외의 음운론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정작 국어의 경우는 동일 방언에서 규칙의 재배열로 설명될 만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23]

23) 국어의 예를 통하여 규칙 부문의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룬 박창원(1990)에서는 규칙의 단순화를 대신한 규칙의 확산, 규칙의 소실을 세분한 규칙의 상실과 소멸 그리고 규칙의 축소를 다루되 규칙의 재배열은 제외하고 있다. 이진호(2002:71)에서

두 방언이 규칙순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어형을 보일 때, 이는 흔히 파동설(wave theory)로 설명된다. 즉 변화가 진원지로부터 해당 방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간적 차이가 방언간 규칙순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iparsky(1965/1971:25)에서는 하나의 방언에서 과거의 규칙순과는 다른 규칙순으로 나타날 경우는 파동설로 설명될 수 없음을 들어 규칙 재배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한 방언 내의 규칙들이 재배열되는지, 실제로 규칙의 순서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두 방언에서의 규칙순이 다르다는 것뿐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미약할 뿐더러, 실제로 그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예들도 서로 다른 방언의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규칙이 재배열되지 않는다면 생성문법에서 종전의 유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규칙이 재배열되는 이유를 규칙 부문 안에서 구하지 못하고 표면형에서 구하게 된 이상,[24] 생성문법은 더 이상 규칙 재배열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규칙 차원이 아닌 기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어휘부 최적화를 위한 기저형의 변화 또는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기저형의 변화로 서술할 것이다.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요인은 해당 패러다임 내부에 있지 않다.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는 문법 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문법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단위들이 정연한 부류를 이루고 보다 단순한 상태로 기억될

도 역시 규칙 재배열의 부당함이 논의되었다.

24) Kiparsky(1965, 1968a)에서는 유표적인 순서에서 무표적인 순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규칙이 재배열된다고 하고 있다. 즉 출혈 순서를 줄이고 급여 순서를 늘림으로써 문법 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Kiparsky(1971)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재배열 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패러다임 조건(paradigm condition)과 투명성 조건(transparency condition)을 들어 표면형의 규칙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재배열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문법 내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좀 더 편안한 조음을 추구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문법 외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사용자의 추론에 의해서 언어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 역시 문법 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제3장 변화의 요인

3.1. 음변화

3.1.1. 요소의 변화와 체계의 재구성

용언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과 표면형 그리고 도출 과정은 어느 하나 독자적인 것이 없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 구조, 공시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통시적인 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하나의 변화에 대해 다른 것들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겪게 되어 전체가 재구성된다고 할 것이다. 본절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음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규칙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일차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은 표면형에 끼치게 된다.

기저형과 표면형은 도출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고 도출 과정은 그들을 연결시키는 관계라고 할 때에, 요소와 관계 중 음변화가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요소라는 사실은 이미 Saussure(1916/1990:103～105)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의 논의를 움라우트 및 약모음 탈락이라는 음변화와 명사 'fōt(足)'의 단수 : 복수 대립이라는 공시적 관계를 예로 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기1 : fōt ⟷ fōti
V
시기2 : fōt ⟷ fēt

첫째, fōti에서 fēt로의 변화는 fōt의 복수형을 fēt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공시적인 관계와는 별개의 현상이다.
둘째, 변화한 것은 체계를 이루고 있는 fōti라는 요소이지 요소들 간의 관계 자체가 아니다.
셋째, 통시적 변화는 우연한 것이며, 우연히 주어진 fōt와 fēt라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시 단수 : 복수의 대립을 이루게 된다.
넷째, 통시적 변화는 공시적인 대립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공시적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따르면 공시태를 이루는 요소들 및 그들 간의 관계가 동시에 변하지 않는 한, 공시태는 다른 공시태로 직접 변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변화된 요소 및 변화되지 않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새로운 상태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이 정립된 공시태가 이전의 공시태와 다를 때에 공시태가 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공시태의 재구성(restructuring of synchrony)'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1]

앞선 설명은 단수 : 복수라는 문법적 범주 관계를 예로 한 것이지만, 이는 공시태의 모든 관계로 확대·응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ㅸ의 변화에서는 문법 범주와는 무관한 음운의 대립 관계가 그와 같은 식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음변화 'ㅸ>w'가 모든 표면형에 걸쳐 완성되어 ㅸ이 전혀 실현되지 않을 때,[2] 공시태의 음운체계는 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1) '재구조화'라고 하지 않은 것은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2) 'ㅸ>w'는 표면형 /ᄀᆞᄫᆞᆯ, 구ᄫᅥ/ 등이 /ᄀᆞ올, 구워/ 등으로 바뀐, 표면형의 개별적 변화들로부터 추상화된 공식에 지나지 않는다.

(2) 시기1 /ᄀᆞᄫᆞᆯ, 구ᄫᅥ/ : ㅂ과 ㅸ을 포함하고 있는 음운체계
∨ ⇓
시기2 /ᄀᆞ올, 구워/ : ㅂ은 포함하되 ㅸ은 포함하지 않은 음운체계

먼저 표면형이 변하고, 변화된 표면형에 걸맞은 음운체계가 구성된다. 비음운화란 시기1의 음운체계를 이루고 있던 ㅂ을 비롯한 모든 음운과 ㅸ의 대립이 시기2의 음운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기1과 시기2 사이에서 실제로 음변화에 의해 변화한 것은 'ᄀᆞᄫᆞᆯ, 구ᄫᅥ' 등 개별 단어들의 표면형이고, 시기1과 시기2의 공시태(음운체계)는 서로 다를 뿐, 음변화 자체가 곧 비음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상태의 '상위'에 시간의 경과 및 기원적 동일성이 확보된 것이 '변화'이다.[3]

음변화는 음운체계 즉 음운의 계열 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음운연쇄 즉 통합 구조적 제약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바,[4]

(3) 시기1 /닭고, 앉고, 늙고/ : *장애음-자음-$
∨ ⇓
시기2 /닥꼬, 안꼬, 늘꼬/ : *자음-자음-$

시기1에서는 /ㄳ, ㅄ, ㄼ, ㄺ/ 등의 음절말 자음군이 표면에서 실현되던 데에 반해, 시기2에서는 어떠한 음절말 자음군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면형의 변화를 일반화하여 진술한 것이 음운제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3) 방언간 규칙순의 차이를 규칙 재배열이라 하여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를 '변화'라 단정한 소치이다.

4) 여기서의 제약이란 공시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위 및 그들의 연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가리킨다. 즉 정해진 시기에 어떠한 음운 혹은 음운연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 기술적으로 타당하게 진술한 명제들이 곧 음운제약인 것이다(졸고 2006).

활용의 문제로 돌아와 음변화가 활용형의 도출 패러다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자. 도출 패러다임은 기저형과 표면형의 두 요소와 이 둘을 관련짓는 도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음변화는 요소(기저형 혹은 표면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이다.[5] 이러한 서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음변화에 의한 개신을 규칙 첨가 즉 도출 과정의 변화로 보는 표준적 생성문법의 서술과는 사뭇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생성문법에서도 일차적인 변화는 표면에 드러난 음성형이며, 변화 이전의 음성형을 도출해 내는 문법과 변화 이후의 음성형을 도출해 내는 문법의 차이를 드러내어 기술할 때에 요긴한 방법이 변화 이후의 문법에 규칙을 첨가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King 1969:14).

(4)	표면형①	←(관계①)—	기저형	—(관계②)→	표면형②
시기1	/믿(는)/	←(규칙Ø)—	//믿//	—(규칙Ø)→	/믿(찌)/
	V				
시기2	/민(는)/	←(?)—	// ? //	—(?)→	/믿(찌)/

(4)에서 직접적인 변화는 '믿는>민는'에 국한되며, 이를 비롯하여 '먹는(먹-+-는)>멍는, 밥만(밥+-만)>밤만, 입맏(입#맛)>임맏, 국민(國民)>궁민' 등과 같은 표면의 개별적 변화들을 일반화하여 비음 앞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면적인 음변화를 겪은 표면형①이지만 그 변화는 용언 어간 '믿-(信)'의 도출 패러다임에서 볼 때에는 극히 일부 요소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적인 변화가 확인된 표면형①과 변하지 않은 표면형②,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①과

5) 음변화의 적용 대상이 표면형이라는 점은 한영균(1985), 이진호(2002:69~72) 등에 국어의 예로써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관계② 및 기저형이 재구성되고 그것이 이전과 다를 때 비로소 도출 패러다임이 변하였다고 할 것이다.

표면형①이 변함으로 인하여 관계①이나 기저형 둘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변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저형—(관계②)→표면형②'에서는 직접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형①의 변화에 영향을 입어 함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기저형과 관계②를 그대로 둔 채 관계①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관계①을 그대로 둔 채 기저형과 관계②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기저형 및 도출 관계를 상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전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도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가. 패러다임의 재구성 자체가 변화를 감안한 것일 수는 없다. 앞서도 논한 바와 같이 패러다임이 재구성되고, 재구성된 패러다임이 선행 시기의 패러다임과 보이는 차이로써 비로소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가 가급적이면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려 한다든지, 반대로 다르게 하려 한다든지 하는 등의 논의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언어 사용자는 이전 세대의 발화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도출 패러다임을 지닌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기준을 해당 어간의 패러다임 밖에서 찾고자 한다. 즉 특정한 어간 또는 어미의 도출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때에는 해당 패러다임 외적인 조건들에 어긋남이 없이 전체 언어 체계 속에서 조화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패러다임이 언어 전체의 체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바, 외적인 조건이란 비슷한 조건의 여타 어간 또는 어미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음운체계나 음운제약, 규칙부문 등과 같이 도출 패러다임과는 다른 차원의 공시태일 수도 있다. 음변화는 언어 사용자의 의지

와는 무관한 것일 수 있지만, 공시태의 재구성은 음변화로 인해 조화롭지 않게 된 상태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의지적이고 적극적 행위이다.

3.1.2. 변화의 실제

3.1.2.1. 기저형의 변화

음변화가 일어나 도출 패러다임의 한 요소인 표면형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기저형이든 도출 관계이든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변하게 된다. 본절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기저형만의 변화 혹은 기저형과 도출 관계 모두의 변화이다.[6]

(5) ㄱ. "閉" ᄀᆞᆷ고 ←(규칙Ø)— //ᄀᆞᆷ-// —(규칙Ø)→ ᄀᆞ마
⇒ 감고 ←(규칙Ø)— //감-// —(규칙Ø)→ 가마
cf. "纏" 감고 ←(규칙Ø)— //감-// —(규칙Ø)→ 가마
ㄴ. "泥" 즐고 ←(규칙Ø)— //즐-// —(유음탈락)→ 즈니
⇒ 질고 ←(규칙Ø)— //질-// —(유음탈락)→ 지니
cf. "長" 길고 ←(규칙Ø)— //길-// —(유음탈락)→ 기니

(5ㄱ)은 무조건 변화인 'ㆍ>ㅏ', (5ㄴ)은 조건 변화인 전설모음화가 각각 'ᄀᆞᆷ-'과 '즐-'의 표면형에 적용된 것으로서, 새로운 규칙을 첨가시키지 않고 기저형을 이전과는 다른 //감-//과 //질-//로 설정함으로써 도출 패러다임을 재구성한 것이다. 기저형을 그대로 //ᄀᆞᆷ-//과 //즐-//로 설정하고, 공시적 규칙으로 'ㆍ→ㅏ', 전설모음화를 상정하지 않을 수도

6)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성조와 음장은 논외로 한다.

있지만,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표면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으면서 교체에 관여하지도 않는 분절음을 기저에 설정한다는 추상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둘째로는 같은 부류의 표면형의 실현을 보이는 기존의 어간 '감-', '길-'의 도출 패러다임이 그러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끝으로 (5ㄱ)의 경우 음운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분절음인 'ㆍ'가 기저형에 포함된다는 점도 해당 패러다임 외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6) ㄱ. "蹴" ᄎᆞ고 ←(규칙Ø)— //ᄎᆞ-// —(ㆍ탈락)→ 차
⇒ 차고 ←(규칙Ø)— //차-// —(ㅏ탈락)→ 차
cf. "去" 가고 ←(규칙Ø)— //가-// —(ㅏ탈락)→ 가
ㄴ. "除" 츠고 ←(규칙Ø)— //츠-// —(ㅡ탈락)→ 처
⇒ 치고 ←(규칙Ø)— //치-// —(활음화+활음탈락 또는 ㅣ탈락)→ 처
cf. "負" 지고 ←(규칙Ø)— //지-// —(활음화+활음탈락 또는 ㅣ탈락)→ 저

(6ㄱ, ㄴ)은 각각 (5ㄱ, ㄴ)과 똑같은 무조건 변화와 조건 변화가 표면형에 적용된 것이지만 기저형과 함께 도출 관계도 달라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7] (6ㄱ)은 아-계 어미 결합형을 도출하는 규칙이 ㆍ 탈락에서 ㅏ 탈락으로 바뀌었고, (6ㄴ)은 ㅡ 탈락에서 활음화(보상적 장모음화 없음)에 이은 활음탈락 혹은 구개음 뒤의 ㅣ 탈락(鄭承喆 1988:39 참조)으로 바뀌었다.

(5)와 (6)은 같은 음변화에 의해 촉발되었음에도 그 결과가 서로 다른

7) (6)에서와 같은 기저형의 변화와 도출 관계의 변화는 두 변화의 양상이 일치할 뿐더러 그것이 또한 표면형의 변화 양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자칫 음변화가 기저형, 표면형, 도출 관계에 모두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게 할 수도 있다. (6ㄱ)만을 예로 들면, 표변형 /ᄎᆞ고/에서 /차고/로의 변화나 기저형 //ᄎᆞ-//에서 //차-//로의 변화, 규칙인 ㆍ 탈락(ㆍ→ø/__ㅏ)에서 ㅏ 탈락(ㅏ→ø/__ㅏ)으로의 변화가 모두 'ㆍ>ㅏ'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데, 이는 (5)의 경우 모든 표면형에 동일한 음변화가 적용된 반면 (6)은 변화 이전 상태의 어간 교체 /ᄎᆞ~ㅊ/, /츠~ㅊ/으로 인하여 모든 표면형에 동일한 음변화가 적용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만일 같은 표면형 변화에 대하여 기저형만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는 (6′)과 같을 것이며, 도출 관계만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는 (6″)과 같을 것이다.

(6′) ㄱ. 차고 ←(규칙Ø)— //차-/ᄎᆞ-// —(ㆍ탈락)→ 차
　　ㄴ. 치고 ←(규칙Ø)— //치-/츠-// —(ㅡ탈락)→ 처
(6″) ㄱ. 차고 ←(ㆍ→ㅏ/_C)— //ᄎᆞ-// —(ㆍ탈락 = ㆍ→ø/_V)→ 차
　　ㄴ. 치고 ←(ㅡ→ㅣ/ㅊ_C)— //츠-// —(ㅡ탈락 = ㅡ→ø/_V)→ 처

이들은 변화 전후 도출 패러다임의 차이를 최소화한 셈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6′)은 표면에 실현되지 않는 어형인 'ᄎᆞ, 츠'를 기저형으로 상정하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복수 기저형을 지녀 어휘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6″)은 실현되지 않는 기저형 상정의 문제와 아울러 음변화 및 그에 의하여 첨가된 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6)에서의 도출 관계의 변화를 두고 ㆍ 탈락과 ㅡ 탈락이 소실되고 ㅏ 탈락과 활음화 등이 첨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소실이나 첨가는 규칙의 목록에서 사라지고 생겨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칙 목록에는 변화가 없지만 특정 어간이나 어미의 패러다임에서 규칙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현상을 '규칙 제외'와 '규칙 추가'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한다. 제외되는 규칙은 규칙 목록에서 소실될 수도 있지만, 추가되는 규칙은 규칙 목록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6ㄴ)의 ㅡ 탈락은 비록 해당 패러다임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여타 ㅡ 말음 어간이나 ㄷ 변칙 어간 등의 패러다임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규칙 목록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6ㄱ)의 ㆍ 탈락은 규칙 목록에서 소실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규칙의 구조기술에 포함되어 있던 분절음이 비음운화를 겪게 되면 그 규칙은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8]

도출 패러다임에서 규칙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현상은 비단 음변화에 의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부를 최적화하기 위해 기저형을 변화시키거나 활용형을 이전과 달리 분석함으로써 기저형이 달리 설정되었을 때에도 규칙은 해당 패러다임에서 제외되고 추가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들 제외와 추가가 지니는 공통점은 기저형의 변화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기저형이 유지된 채 규칙이 제외되거나 추가될 수는 없다.

정리하건대 (5, 6)의 예들은 표면형의 변화로 인하여 기저형이 변하되, 표면형과 기저형 사이의 도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 것이다. 비록 도출 관계가 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기저형이 변함으로써 그 패러다임에 규칙이 추가 또는 제외된 것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규칙 목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 (5, 6)의 예들은 변화된 기저형이 기존의 어간들과 같은 부류에 묶일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저형이 변하였다고 하여도 어휘부에 그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기존의 규칙을 응용하여 기저형을 변화시키되 기존의 어간들과는 다른, 새로운 음운 구조의 기저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7) ㄱ. "炙" 굽:고 ←(폐쇄음화)— //구ᇦ:-// —(평성화)→ 구ᄫᅥ
⇒ 굽:꼬 ←(?)— // ? // —(?)→ 구워
ㄴ. "作" 짓:고 ←(무성음화)— //지ᇫ:-// —(평성화)→ 지ᅀᅥ
⇒ 짇:꼬 ←(?)— // ? // —(?)→ 지어

8) 규칙 소실에 관하여서는 3.1.2.2.3에서 논의한다.

(7)은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ㅸ과 ㅿ 및 성조의 비음운화, 음절말 'ㅅ>ㄷ', 경음화 등의 음변화를 경험한 것으로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활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출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표면형이 변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요소인 기저형 혹은 기저형과 표면형 사이의 도출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9]

(7′) ㄱ. 굽:꼬 ←(폐쇄음화)— //굽:-// —(규칙1)→ 구워
ㄴ. 짇:꼬 ←(폐쇄음화)— //짇:-// —(규칙2)→ 지어
cf. 규칙1 : $\beta \rightarrow w$ / ___ V
규칙2 : $z \rightarrow \emptyset$ / ___ V

재구성된 도출 패러다임 (7′)은 이전과 동일한 기저형에 도출 관계만이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재구성이 지니는 문제점은 崔明玉(1985), 한영균(1985), 박창원(1986ㄱ) 등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10] 그 중 崔明玉(1985:167)에서는 "β나 z가 자음체계의 변화로 소멸됨으로써 어린이들은 그들 교체형이 단일한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복수 기저형을 지닌 변칙 어간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7′)과 같은 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ㅸ, ㅿ의 비음운화에 있다는 것이다.[11] 다시 말해 음운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분절음을 이용하여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9) 성조나 음장의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어간 분절음의 변화만을 논의한다.
10) 박창원(1986ㄱ)에서는 변화보다는 기저형과 규칙에 관한 공시론적 서술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崔明玉(1985)와 한영균(1985)에서는 공시론적인 기술의 문제와 아울러 변칙 어간이 생기게 된 연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1) 한영균(1985:385)에서는, 어간이 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자립성을 획득한 후 음변화를 겪었는데, 이미 별개의 필수적 규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저 어간 이형태(복수 기저형)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중세 국어 당시 자음 앞에서 어간 말음이 변동을 하던 ㆆ 말음 어간에 음변화인 모음간 ㆆ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곧 도출 패러다임과는 다른 차원의 공시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언어 사용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저형에 ㅸ, ㅿ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수 기저형으로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간 말음을 음운체계 내의 ㅂ과 ㅅ으로 설정하고 'ㅂ→w', 'ㅅ→ø'의 규칙을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2] ㅂ 변칙 어간과 ㅅ 변칙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 이형태의 모음이 대체로 장음으로 실현되기는 하지만, '밉-(憎)'과 같이 단음으로 실현되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어간의 음장을 규칙의 구조기술로 내세울 수 없다(崔明玉 1985:164). 결국 정칙 활용을 하지 않는 특정한 어간만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구별 자질(diacritic feature)이 요구된다.

(7″) ㄱ. 굽:꼬 ←(규칙Ø)— //굽:-[+규칙1]// —(규칙1)→ 구워
ㄴ. 짇:꼬 ←(폐쇄음화)— //짓:-[+규칙2]// —(규칙2)→ 지어
cf. 규칙1 : p → w / ___ V
규칙2 : s → ø / ___ V

(7″)은 몇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구별 자질의 사용이다. ㅂ

12) 어간 말음을 w로 설정하고 자음 앞 'w→ㅂ'을 규칙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이 崔明玉(1985:154), 한영균(1985:392)에 베풀어져 있기는 하나, 그들 논의는 음운제약의 지배 범위, 어간 구조의 제약, 음변화와 공시 규칙의 관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저형이 발음 가능 단위인 음절을 기준으로 하여 재단될 것이 아님은 '웃:-(笑), 읽-(讀)' 등의 기저형을 보아 알 수 있고(이진호 2002:45), 기존의 어간 부류에 없는 어간이 새로 생겨남은 그들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규칙 'w→ㅂ'에 대하여서는 외국어나 외래어의 w계 하향이중모음의 w를 ㅂ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show 쇼/쇼우/*숍, now 나우/*납 등)도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변칙의 어간 말음을 w로 설정하고 'w→ㅂ' 규칙을 상정한다면, w로 끝나는 어간이 이들뿐이기 때문에 구별 자질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어간 말음을 ㅂ으로 설정한다면 정칙 어간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ㅂ→w' 규칙이 이들에만 적용된다는 정보를 어휘부의 어디엔가 표시해야 한다. ㅅ 변칙 어간에 적용될 'ㅅ→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표시는 그 구체적인 표시 방식도 문제이려니와 해당 어간이 변칙 어간이라는 기술언어학의 서술 방식에서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13]

결국 (7)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7) ㄱ'. 굽:꼬 ←(규칙Ø)— //굽:-/구우-// —(활음화)→ 구워

ㄴ'. 짇:꼬 ←(규칙Ø)— //짇:-/지으-// —(ㅡ탈락)→ 지어

'굽:-/구우-, 짇:-/지으-'와 같은 어간의 기저 구조는 이전까지는 국어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즉 'Xㅂ-/X우-, Xㄷ-/X으-'와 같은 기저형을 지닌 어간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선 (5, 6)의 예들과는 달리 기존의 어간 부류에 편입되지 못하여 문법을 다소 부담스럽게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복수 기저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수한 교체를 보이는 '나모/낡(木)', '흐르-/흘ㄹ-(流)' 등은 물론이거니와, 중세 당시 이미 'Xㄷ-/Xㄹ-' 정도의 기저형을 지녔으리라 생각되는 ㄷ 변칙 어간들도 단일한 기저형만으로는 생성음운론적 기술이 어려운 것들이다.

(7)처럼 비음운화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하게 일부 이형태에만 음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단일 기저형 어간에서 복수 기저형 어간으로 변한 예가 있다.

---

13) ㅂ 말음이나 ㅅ 말음으로의 기저형 변화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규칙 목록에 첨가하여야 한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규칙 첨가임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어느 경우에서도 기저형이 함께 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8) "擠" 메:고 ←(규칙Ø)— //메:-// —(평성화)→ 메어
⇒ 미:고 ←(?)— // ? // —(?)→ 메어

'ㅔ>ㅣ'의 모음상승은 중부 방언에서는 장모음에만 적용된 변화이다. 중세 당시 유동적 상성이던 이 어간의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은 어간의 상성이 장모음으로 남아 있지만, 아-계 어미와의 결합에서 평성화를 겪은 어간은 단모음으로 남게 되어 음변화를 피한 결과 /메:~메/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 적용된 모음상승이 자음 앞의 형태만을 변화시켜 /미:고, 메어/와 같은 활용을 하게 된 것이다.[14]

(8′) ㄱ. 미:고 ←(규칙Ø)— //미:-/메-// —(규칙Ø)→ 메어
ㄴ. 미:고 ←(모음상승)— //메:-// —(단모음화)→ 메어
cf. 모음상승 ㅔ: → ㅣ: / ___]v.st. + C[15]

(8′ㄱ)은 규칙을 첨가하지 않고, 단일 기저형 '미:-'로의 후속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복수 기저형을 설정한 것이다. 즉 /미:고, 미:면, 메어~메:/보다는 /미:고, 미:면, 미어~며:/의 활용이 많이 보이는바, 이는 /메어~메:/가 음변화를 통해 /미어~며:/로 변한 것이라는 볼 수 없으며, (8′ㄱ)과 같은 복수 기저형 '미:-/메-'가 '미:-'로 단일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재구성된 도출 패러다임은 (8′ㄴ)과 같이 기저형은 그대로인 채 새로

14) 자음 앞의 형태는 모음상승을 겪은 반면 모음 앞의 형태는 그대로 남은 몇 예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화성의 /미:구, 민:다, 메어라, 메:, 메:라/, 양평의 /미:구, 미어떠니, 메:따구/, 여주의 /미:구, 미어라, 메어/, 강화의 /띠:고, 떼야/, 양주의 /띠:구, 떼:야/ 등. 아-계 어미 결합형의 /메:X, 떼:X/는 /메어X, 떼어X/에서 ㅓ가 탈락하여 실현된 것이다.
15) 자음 앞이라는 조건을 둔 것은 모음 앞에서 단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운 규칙을 첨가시켜 재구성될 수도 있다. 다만 규칙이 첨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割), 떼:-(分), 꿰:-(貫)' 등 모든 용언이 동일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세력(勢力), 계획(計劃)' 등의 /ㅔ:/는 자음 앞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체언의 '게:(蟹)' 등은 '-는, -도' 등과 결합하여 그대로 /게:는, 게:도/ 등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첨가되는 규칙은 음운제약과는 무관한 형태음운규칙이라 할 것인바, 음변화의 결과로 이처럼 형태음운규칙이 첨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3.1.2.2. 규칙 부문의 변화

3.1.2.2.1. 규칙 첨가

형태소 결합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을 기술한 규칙은 그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흔히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으로 나뉘는바, 전자는 음운론적인 정보만을 포함한 규칙을, 후자는 음운론적인 정보 이외에 형태론적인 정보를 비롯한 비음운론적인 정보도 포함한 규칙을 가리킨다.

음운규칙은 구조기술에 기술된 모든 음운 및 음운의 연쇄가 문법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 언어에서 실현되는 음운 또는 음운연쇄에 대한 종합적 진술인 음운제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음운제약은 음운의 구조에 관한 것과 음운의 배열에 관한 것으로 나뉘는데,[16] 3.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변화는 이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칠

---

16) 이러한 구분은 Stanley(1967)에서 형태소 구조 조건을 분절음 구조에 대한 것과 분절음 배열에 대한 것으로 나누었던 것을 원용한 것이다. 음운제약은 음운 층위의 단위인 음운에 대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음성 층위에도 그 단위인 음성에 대하여 음성구조제약, 음성배열제약과 같은 음성제약이 있을 수 있다. 국어의 음운제약에 대한 개관은 李珍昊(2005ㄱ)을 참조할 수 있다.

수가 있다.

음운구조제약은 한 언어의 음운을 이룰 수 있는 변별적 자질 자체 및 한 분절음에서의 그 조합에 대한 진술이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high], [+low], [+labial]이 하나의 음운을 이룰 수 없다든가, [+cons], [+pal], [+son]가 하나의 음운을 이룰 수 없다든가 하는 제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17] 즉 음운체계에 존재하는 음과 존재하지 않는 음을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 곧 음운구조제약인 셈이다.

음변화에 의한 음운구조제약의 변화가 음운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음운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던 구조주의 문법은 음변화를 크게 음운화, 재음운화, 비음운화로 나누었던바, 이를 음운구조제약의 변화에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음운화와 관련하여서는, 전설모음이 /이, 에, 애/뿐이던 시기에는 [-grave]와 [+labial]이 결합될 수 없었지만, /외/와 /위/가 음운화됨으로써 이 두 자질이 하나의 음운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ㅈ이 치조음 /ʦ/이던 때에는 [+pal]이 모음이나 활음에만 존재하여 [-cons]과만 결합할 수 있었지만,[18] ㅈ이 경구개음 /ʧ/로 재음운화됨에 따라 [+pal]이 [+cons]과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비음운화 역시 음운구조제약의 변화로 서술될 수 있다. ㅸ이 음운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cons]과 [+labial], [+cont]가 한 음운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되며, ㅿ이 음운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voiced]가 어떠한 자질과도 함께 음운을 이룰 수 없는 비변별적인 자질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음운구조제약은 분절음의 내적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

17) [-high, +labial]인 /ㅂ, ㅁ/은 [-low]이다. 한편 [+cons, +pal, +son]인 [ɲ, ʎ]이 실현되기는 하지만 이는 음운이 아니라 /ㄴ, ㄹ/의 이음에 불과하다.
18) 후기 중세 국어의 '舌不縮'을 [+pal]에 가깝다고 보아 /이, j/를 [+pal]로 보았다.

그 변화는 규칙의 첨가와는 무관하며 오직 기저형에 관련될 뿐이다. 즉 기저형에 ㅸ, ㅿ을 두고 새로운 음운구조제약을 바탕으로 하는 'ㅸ→ㅂ, ㅸ→w'나 'ㅿ→ㄷ(또는 'ㅿ→ㅅ'과 'ㅅ→ㄷ'), ㅿ→ø'과 같은 규칙을 상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음운체계에 없는 분절음을 기저형에 설정하는 것은 도출 패러다임과 음운체계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음변화에 의하여 음운규칙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은 음운배열제약이다. 음운배열제약은 흔히 공시적인 음운규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장애음과 비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약은 그러한 연쇄가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문법적 경계를 사이에 두고 연쇄가 이루어지려 할 때 '밥+-만→밤만, 먹-+-는→멍는' 등의 비음화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장애음과 평장애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약 역시 '밥+-도→밥또, 먹-+-지→먹찌' 등의 경음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제약과 규칙의 밀접한 관계는 때로 어느 한 편이 잉여적이라 느껴지게끔 하기도 하지만, 제약과 규칙은 그 서술의 대상이 분명히 다르다. 두 형태소가 공시적으로 결합하면서 장애음과 비음이 만나게 되면 장애음이 비음으로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동 자체는 규칙이 서술하는 대상인 반면 제약은 그러한 변동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음운 및 음운 배열이 서술의 대상인 것이다.

음변화는 음운배열제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 문법적 조건에 상관없이 제약에서 진술되는 모든 음연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변화 이전과 이후의 음운배열제약이 다를 것이며, 일부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음운배열제약까지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전자의 경우라 할 것인데, (9ㄱ)의 음변화는 이전에는 허용되던 폐쇄음-비음 연쇄 모두에 적용되어, 이 연쇄가 더 이상 실현되지 않도록 바꾸었으며, (9ㄴ)의 음변화는 ㄹㄴ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도록 바꾸어 놓았다.

(9) ㄱ. 표면형 : 업는(負), 먹는(食), 얻는(得) > 엄는, 멍는, 언는
음운제약 : 폐쇄음-비음 ⇒ *폐쇄음-비음
ㄴ. 표면형 : 놀나-(儒), 일는(失) > 놀라-, 일른
음운제약 : ㄹㄴ ⇒ *ㄹㄴ

(10) ㄱ. 업는 ←(규칙∅)— //업-// —(규칙∅)→ 업고
ㄱ'. 엄는 ←(비음화)— //업-// —(규칙∅)→ 업꼬
cf. 비음화 : 폐쇄음 → 비음 / ___ 비음
ㄴ. 가는 ←(규칙∅)— //-는// —(규칙∅)→ 일는
ㄴ'. 가는 ←(규칙∅)— //-는// —(유음화)→ 일른
cf. 유음화 : ㄴ → ㄹ / ㄹ ___

(9)와 같이 표면형이 변하고 그러한 변화를 일반화하여 진술한 음운제약이 변한 상황에서, 곡용과 활용에서 이로 인한 교체가 생겨났을 때 이는 (10)과 같이 음운규칙의 첨가로 기술될 수 있다.[19] 음운론적 조건만으로 명시되는 음운규칙은 반드시 음운제약을 기반으로 하는데, 만일 음운제약의 변화가 없이 활용형들만이 변하였다면 그들을 음운규칙으로 관계 지을 근거가 없게 된다. 즉 무리하게 음운규칙을 써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패러다임 외적 조건들과의 조화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규칙으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규칙을 문법에 첨가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음변화에 의해 음운제약이 변하였다면 그 변화된 부분에 상응하는 규칙을 새로 상정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음변화가 단어에 따라 그리고 문법적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

19) (10ㄱ')의 경음화는 어간의 변동과 무관하고, (10ㄴ')의 자음군단순화는 어미의 변동과 무관하기에 생략하였다.

어 간다는 생각에서 보면 음운제약의 변화 여부를 단정짓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음변화의 적용 대상을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곡용의 경우와 활용의 경우로만 나누었을 때 음변화의 점진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11)	형태소 내부	형태소 경계	
	스믈(二十), 슳-(厭)	벗-(脫)+-으면	옷(衣)+-은
ㄱ.	스믈, 슳-	버스면	오슨
ㄴ.	스믈~시믈, 슳-~싫-	버스면	오슨
ㄷ.	시믈, 싫-	버스면	오슨
ㄹ.	시믈, 싫-	버스면~버시면	오슨
ㄹ'.	시믈, 싫-	버스면~버시면	오슨~오신
ㅁ.	시믈, 싫-	버시면	오슨
ㅂ.	시믈, 싫-	버시면	오슨~오신
ㅅ.	시믈, 싫-	버시면	오신

(11)은 음변화가 보이는 일반적인 양상, 즉 형태소 경계에서보다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적용되고, 형태소 경계의 경우 활용에서 먼저 적용되고 곡용에서는 나중에 적용되며, 각각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수의적으로 적용되다가 차차 필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상황이다.[20]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11ㄱ), 형태소의 교체와 무관한 (11ㄴ, ㄷ)은 규칙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의 (11ㅅ)은 앞선 (9, 10)과 같이 음변화로 인하여 필수적 음운규칙인 전설모음화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계이다.[21]

20) (11)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믈~시믈, 슳-~싫-, 버스면~버시면, 오슨'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인 규칙의 첨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활용과 곡용의 양상이 각각 수의적 적용과 비적용의 단계에 있는 (11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1ㄹ~ㅂ)도 형태소의 교체와 관련되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규칙을 이용하여 서술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방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11ㄹ)은 활용에 국한하여 수의적인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11ㄹ′)은 활용과 곡용 모두에서 수의적인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2) ㄱ. ㅡ → ㅣ / ㅅ]v.st. + ___ (수의적)

ㄴ. ㅡ → ㅣ / ㅅ ___ (수의적)

(11ㄹ=12ㄱ)은 용언 어간이라는 형태론적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태음운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적용 양상이 수의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수의적인 적용 양상을 보이는 규칙은 대체로 다음의 (13)과 같이 문법적인 정보와는 무관한 음운규칙이기 때문이다.[22]

(13) ㄱ. 얻꼬~억꼬 ; 밤까지(夜)~방까지 ; 번개(雷)~벙개

cf. 위치동화 : {ㄷㅂ, ㄴㅁ} → {ㄱ, ㅇ} / ___ ㄱㄲㅋ (수의적)

ㄱ′. 옫뽀다(衣)~옵뽀다 ; 선비(儒)~섬비

cf. 위치동화 : {ㄷ, ㄴ} → {ㅂ, ㅁ} / ___ ㅂㅃㅍㅁ (수의적)

ㄴ. 먹꼬~머꼬 ; 옫처럼(衣)~오처럼 ; 접뻰(接變)~저뻰

---

21) 음운제약은 어떠한 문법적인 사실과도 무관한 음운층위에서 음운론적인 사실에만 관여적이다. 형태소 내부는 이미 변화가 적용되어 기저형이 변하였기 때문에 음운제약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형태소가 연결될 경우에도 음운층위에서는 각각의 형태소가 지니는 문법적인 정보는 무용하다(졸고 2003 참조).

22) 중복자음감축은 배주채(1996:131)을 참조하였다. 한편 곡용에서의 활음화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다소 특별한 교체를 하는 호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ㅏ/ㅓ로 시작하는 조사가 없을 뿐더러,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ㅣ ㅔ 연쇄에서의 활음화를 제외하고는 ㅔ로 시작하는 조사들은 활음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금세<금시(今時)+-에'나 '당최<당초(當初)+-에'와 같이 곡용형이 화석화된 단어들은 곡용에서도 미약하게나마 활음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j 활음화는 단어 내부에서의 적절한 예가 찾아지지 않는데, '기억(記憶)'을 빨리 발음할 경우 /겨:/으로도 발음한다거나 '미역(沐)'의 준말인 '멱:'이 여기에 가까운 것이다.

cf. 중복자음감축 : {ㅂ, ㄷ, ㄱ} → ø / ___ {ㅃㅍ, ㄸㅌㅉㅊ, ㄲㅋ} (수의적)

ㄷ. 피어(發)~펴:, 주어(與)~줘: ; 두엄(肥)~둼:

cf. 활음화 : {ㅣ, ㅜㅗ} → {j, w} / ___ ㅏㅓ (수의적)

(13)으로 미루어 보아 곡용과 활용에서 모두 수의적인 변동을 보이는 (11ㄹ′)은 (12ㄴ)의 수의적 음운규칙으로 기술할 만하지 않은가 싶다. 물론 (11ㄹ)도 (12ㄴ)과 같은 규칙이 있기는 하되, 곡용이 규칙을 저지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활용이라는 정보로 인하여 촉발(trigger)되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곡용과 활용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 존재하되, 곡용이라는 정보로 인하여 규칙의 적용이 저지(block)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11ㄹ)을 규칙적으로 서술하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13)의 규칙들은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음운규칙들인데, 규칙이 비음운론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들도 음운제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음변화는 '질-(泥)', '즐기-(樂)'에서와 같이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을 지닌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해 어느 한 쪽에만 일어나기도 하고, '번개~벙개', '선비~섬비'와 같이 하나의 단어라고 하여도 적용된 어형과 적용되지 않은 어형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일상적인 발화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연쇄를 지닌 '번개, 선비'보다는 '벙개, 섬비'가 많이 실현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검토해 보면 어떠한 음연쇄의 발음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비해 다른 음연쇄가 더 많이 실현되거나 선호된다는 식의 정도성을 지닌 음운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음연쇄가 부자연스럽거나 드문 것이 된다면 그것 역시 음운배열제약이 변하였다고 할 것이며(13′), 이와 관련하여 수의적인 음운규칙이 첨가되었다고 할 것이다(13″).[23]

23) 다소 부자연스러운 음운연쇄에는 ?를 표시하였다.

(13′) ㄱ. 중자음–변자음 ⇒ ?중자음–변자음

전부변자음–후부변자음 ⇒ ?전부변자음–후부변자음

ㄴ. 동일위치장애음–동일위치장애음 ⇒ ?동일위치장애음–동일위치장애음

ㄷ. ㅣㅜㅗ-모음 ⇒ ?ㅣㅜㅗ-모음

(13″) ㄱ. 얻꼬 ←(규칙Ø)— //얻-// —(규칙Ø)→ 얻찌

⇒ 억꼬 ←(위치동화)— //얻-// —(규칙Ø)→ 얻찌

ㄴ. 먹꼬 ←(규칙Ø)— //먹-// —(규칙Ø)→ 먹떠라

⇒ 머꼬 ←(동일자음감축)— //먹-// —(규칙Ø)→ 먹떠라

ㄷ. 피어 ←(규칙Ø)— //피-// —(규칙Ø)→ 피고

⇒ 펴: ←(활음화)— //피-// —(규칙Ø)→ 피고[24]

(11ㅁ)은 곡용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활용에서는 변화된 어형만이 실현되는 경우로서 흔히 형태음운규칙으로 기술되고는 한다. 형태음운규칙은 대체로 (15)에서처럼 같은 형태소 경계라고 하여도 곡용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활용에서만 적용되며, 적용 양상 또한 대체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11ㅁ)은 (14)의 형태음운규칙으로 기술될 수 있다.[25]

(14) ㅡ → ㅣ / ㅅ]v.st. + ___ (필수적)

(15) 안꼬(抱)~*안고, 안찌~*안지, 안떠라~*안더라 ; 안괴(內), 안조차, 안도

장애음 → 경음 / 비음]v.st. + ___ (필수적)

---

24) 宋喆儀(1991:292)에서 활음화가 표면음성제약(여기서의 음운제약)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제약의 정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 (11ㅂ)은 활용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14)와 함께 곡용에서는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요구되지만, 곡용에서만 적용되는 수의적인 규칙이 자연스러운지는 의심스럽다.

문제는 음변화로 인하여 (12ㄱ)이나 (14) 그리고 앞선 절의 (8′ㄴ)과 같은 형태음운규칙이 첨가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음변화는 규칙적이며 그 환경은 철저하게 음성적인 것이어야 하고(규칙성 가설 regularity hypothesis), 그 결과 새로이 첨가되는 규칙은 모두 음운규칙이라고 여겨지고 있다(Hooper 1976:85). 그러나 (11ㅁ)은 이와는 달리 음변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는 적용되어 기저형이 변하였고, 형태음운규칙 (14)가 첨가되어 활용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음변화가 규칙적이고 그 환경이 철저하게 음성적이라는 가설은, 일정한 음 또는 음연쇄가 어떠한 문법적인 조건에 있든 모두 변화를 겪어 커다란 진화(evolution)의 단계가 마무리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가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를 기술할 때에는 규칙성 가설을 엄격하게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전설모음화의 경우 (11ㅁ)의 상태가 진화가 진행 중인 도중이든 아니면 음변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종결된 상태이든 그 시기의 공시태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형태음운규칙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형태음운규칙은 음운제약에 기반한 음운규칙과는 달리 어찌 보면 철저히 공시론적 기술 도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변화 즉 생성이나 소멸 등의 원인이나 과정을 알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다만 (11ㅁ)의 경우는 음변화 도중이라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원인에 의한 첨가인 셈이다.

3.1.2.2.2. 규칙 단순화

음변화는 하나의 음만 겪기도 하지만 일정한 부류에 속한 음들이 함께 겪기도 한다. 예컨대 ㅍ 앞에서의 탈락은 ㄹ만이 겪는 변화이지만, 비음 앞에서의 비음화는 평폐쇄음에 속한 ㅂㄷㄱ이 겪는 변화이다. 후자의 음변화는 특정한 부류 전체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시작되어 차차 부류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

간에 따라 변화를 겪는 음이 많아지면서 각 시기의 공시적 규칙도 점점 더 단순하게 재구성된다.

문헌의 표기대로 발음되었다면[26] 비음화는 처음에는 치조폐쇄음에서 주로 보이다가 차차 다른 폐쇄음들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진호 1997:97~98). 다음은 공시적 규칙으로서의 비음화로 기술되어야 할 활용의 예를 보인 것인데, 시기의 구분은 문증된 자료를 토대로 한 대강의 것이다.

(16)

	시기1	시기2	시기3	시기4
듣-+-는	듣는	든는	든는	든는
벗-+-는	벗는	번는	번는	번는
젓-+-는	젓는	전는	전는	전는
굽-+-는	굽는	굽는	굼는	굼는
먹-+-는	먹는	먹는	먹는	멍는

시기1과 시기2는 ㄷ만이 비음화를 겪는 시기로서 서로 같지만, 음절말 중자음의 실현 양상은 서로 다르다. 시기1은 ㅿㅈㅊ 등이 음절말에서 ㅅ으로 실현되어 ㄷ과 대립을 이루던 때인 반면, 시기2는 ㅅㅿㅈㅊ 등이 모두 ㄷ으로 실현되는 때이다. 시기3은 치조음과 양순음이 비음화를 겪는 때, 시기4는 연구개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음이 비음화를 겪는 때로 상정한 것이다. 시기3과 시기4를 따로 둔 것은 양순음의 비음화 어형이 연구개음의 비음화 어형보다 현저하게 많이 문증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각 시기의 공시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27]

---

26) 李基文(1972ㄱ:135)에서는 '걷너-(渡)~건너-, 돋니-(行)~돈니-' 등의 합성어를 예로 하여 후기 중세에 ㄷ의 비음화가 존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활용의 경우도 ㄷ 말음 어간만이 비음화를 겪은 예를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두시언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李翊燮 1963:81).

27) 후기 중세의 ㅈㅊㅉ은 치조음이기 때문에 [palatal]이 아니라 [delayed release]를

(17) ㄱ. 시기1의 비음화 : 치조폐쇄음의 비음화

[-grave, -pal, -cont] → [+nasal] / ___ [+nasal]

ㄴ. 시기2의 비음화 : 치조장애음의 비음화

[-grave, -son] → [+nasal] / ___ [+nasal]

ㄷ. 시기3의 비음화 : 치조장애음과 양순장애음의 비음화

[*α*grave, *α*labial, -son] → [+nasal] / ___ [+nasal]

ㄹ. 시기4의 비음화 : 장애음의 비음화

[-son] → [+nasal] / ___ [+nasal]

(18) ㄱ. 시기1의 음절말 중자음 변동

[+pal, -son] → [+cont] / ___ $

ㄴ. 시기2, 3, 4의 음절말 중자음 변동

[-grave, -son] → [-cont] / ___ $

(17ㄱ)은 치조음 중에서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ㅅㅿㅈㅊ을 제외하기 위하여 [-pal, -cont]로 규칙의 입력을 제한한 것이다.[28] (17ㄴ)에서는 음절말 중자음의 변동이 (18ㄱ)에서 (18ㄴ)으로 달라짐으로 인해 굳이 이들을 제외할 필요 없이 치조장애음 전체가 비음화의 대상임을 나타내었다. 입력이 ㅅ이든 ㅈㅊ이든 그것이 치조장애음이라면 비음 앞에서의 출력은 모두 ㄴ인 것이다. (17ㄷ)은 엄밀하게 보면 입력이 각각 [-grave, -labial, -son]와 [+grave, +labial, -son]인 두 규칙이 이접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자질 체계로는 치조음과 양순음이 자연스러운 부

이용하여 치조폐쇄음과 구별함이 옳지만,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구개음으로 다룬다. 규칙(17ㄱ)의 입력은 [-grave, -delayed release, -cont]가 될 것이며, 규칙 (18ㄱ)의 입력도 [+delayed release]만으로 충분하다.

28) 음절말에 ㅈㅊ이 실현되지 않음에도 굳이 이들을 제외하기 위해 [-pal]을 표시한 것은 기저의 ㅈㅊ이 비록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비음인 ㄴ으로도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류로 묶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음변화가 시작된 (17ㄱ)과 완성된 (17ㄹ)만을 비교하여 보면 규칙에 쓰인 자질이 줄어들어 규칙이 단순해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간 단계를 보면, (17ㄱ)에서 (17ㄴ)으로의 변화는 자질이 하나 줄어든 반면 (17ㄴ)에서 (17ㄷ)으로의 변화는 오히려 자질이 하나 늘어났으며, (17ㄷ)에서 (17ㄹ)로의 변화에서는 자질이 다시 둘 줄어들어 들쑥날쑥하다. 그러나 (17)은 잉여적인 자질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인바, 자질의 수를 올바로 비교하려면 다음의 음운구조제약을 통하여 완전히 명세하여야 할 것이다.

(19) ㄱ. [-grave, -pal, -cont] → [+cons, -voc, -labial, -son, -high, -low]
ㄴ. [-grave, -son] → [+cons, -voc, -labial, -nasal, -low]
ㄷ. [αgrave, αlabial, -son] → [+cons, -voc, -nasal, -low]
ㄹ. [-son] → [+cons, -voc]

(19ㄱ)은 어떤 음운이 [-grave, -pal, -cont]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음운은 유음이 아닌 순수자음이자 장애음이며 양순음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 제약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ㄴ, ㄷ, ㄹ)에서 예측된 자질들을 모두 포함하여 (17)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아진다.

(17′) ㄱ. [+cons, -voc, -grave, -labial, -pal, -son, -cont, -high, -low] → [+nasal] / ___ [+nasal]
ㄴ. [+cons, -voc, -grave, -labial, -son, -nasal, -low] → [+nasal] / ___ [+nasal]
ㄷ. [+cons, -voc, αgrave, αlabial, -son, -nasal, -low] → [+nasal] / ___ [+nasal]
ㄹ. [+cons, -voc, -son] → [+nasal] / ___ [+nasal]

(17)과 (17′)을 비교해 보면 우선 (17ㄱ)과 (17ㄴ)에서는 자질 수 차이가 하나였던 것이 (17′ㄱ)과 (17′ㄴ)에서는 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2의 규칙은 시기1의 규칙에서 제외되었던 마찰음과 파찰음의 두 계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17)보다는 (17′)이 사실에 더 가깝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기2와 시기3의 규칙에 필요한 자질의 수가 서로 같다는 점도 (17)과는 다른 점이다. 다만 (17′ㄴ)에서는 ±가 쓰인 반면 (17′ㄷ)에서는 가변자질계수 *α*가 쓰인 점이 다른데, 이 둘을 두고 어느 쪽이 더 단순한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규칙의 입력이 되는 음운 계열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본 연구의 자질 체계로는 이들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coronal]과 [anterior]를 이용하면 치조음과 양순음이 [+anterior]로 묶일 수 있게 되어 다음과 같이 자질의 수가 줆을 확인할 수 있다.

(17″) ㄴ. $$\begin{bmatrix} \text{+cons, −voc, +coronal, +anterior,} \\ \text{−son, −nasal, −high, −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nasal}] \ / \ ___ \ [\text{+nasal}]$$

ㄷ. $$\begin{bmatrix} \text{+cons, −voc, +anterior, −son,} \\ \text{−nasal, −high, −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nasal}] \ / ___ \ [\text{+nasal}]$$

한편 (18)에서도 규칙이 변화를 겪었는데, 음운구조제약을 참조하여 완전 명세하면 다음과 같이 규칙에 필요한 자질의 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규칙 단순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출력이 [+cont]에서 [−cont]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8′) ㄱ. $$\begin{bmatrix} \text{+cons, −voc, −grave, −labial, +pal,} \\ \text{−son, −cont, −nasal, +high, −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 \ / \ ___ \ \$$$

ㄴ. $$\begin{bmatrix} \text{+cons, −voc, −grave, −labial,} \\ \text{−son, −nasal, −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 \ / \ ___ \ \$$$

여기에 관여하는 음변화는 음절말의 'ㅅ>ㄷ'이지만 그로 인하여 규칙 'ㅅ→ㄷ'이 새로 첨가되지는 않았다. 시기2의 공시태를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은 'ㅅㅈㅊ→ㄷ'이지 결코 'ㅅ→ㄷ'은 아닌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1에는 (18ㄱ)이 존재하였고 시기2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18ㄴ)이 존재할 뿐, 전자에서 후자로 변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대체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29]

반면 문증된 표기와는 달리 15세기의 ㅈㅊ이 ㅅ으로 중화된 것이 아니라 ㄷ으로 중화된 것이었다면(金周弼 1988, 金京芽 1992, 졸고 1997 등), 시기1과 시기2의 규칙은 출력이 동일하여 동질의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ㄱ.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 -\text{grave}, & -\text{labial}, & -\text{son}, \\ +\text{pal}, & -\text{cont}, & -\text{nasal},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 /\ __\ \$$

ㄴ.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 -\text{grave}, & -\text{labial}, \\ -\text{son}, & -\text{nasal}, & -\text{low} & \end{bmatrix} \rightarrow [-\text{cont}]\ /\ __\ \$$

지금까지 살핀 것과는 달리 규칙의 단순화는 음변화의 적용 대상이 문법적 조건에 따라 확대될 때에도 발견된다. 문헌의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ㅄ 자음군의 단순화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중세에 활용에서만 적용되던 ㅄ 자음군의 단순화가 현재에는 곡용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30]

---

29) 'ㅿㅈㅊ→ㅅ'이 존재하던 시기에 'ㅅ→ㄷ'이 새로 첨가되고 이것의 기존의 규칙과 합하여져 'ㅅㅿㅈㅊ→ㄷ'이 되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표면형이 서로 다른 두 시기가 있고 각 시기에 걸맞는 공시태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30) ㅄ 자음군과는 달리 마찰음-폐쇄음 연쇄이던 ㅺ 자음군의 단순화는 중세 당시 이미 곡용과 활용에 모두 적용되는 음운규칙이었다.

(20) ㄱ. ㅅ → ø / ㅂ ___]v.st. $

"價" 갌, 갌도, 갑시 ; "無" 업고, 업스면, 업서

ㄴ. ㅅ → ø / ㅂ ___ $

"價" 갑, 갑도, 갑시 ; "無" 업고, 업스면, 업서

이 규칙과 관련된 음변화가 활용에서 먼저 적용되고 곡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20ㄱ)에서 (20ㄴ)으로의 변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하나는 (20ㄱ)이 (20ㄴ)으로 단순화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곡용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인 'ㅅ→ø/ㅂ__]n.st.$'이 첨가되고 이 규칙이 기존의 (20ㄱ)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합하여졌다는 것이다.[31] 이 경우는 전자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체언 어간말의 ㅄ이 종성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20ㄱ)의 시기에는 ㅄ이 음절말에 발음될 수 없다는 음운제약이 존재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음운제약이 있었지만 특정한 문법 범주에만 해당된다거나, 특정한 문법 범주가 그로부터 자유롭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ㄴ)은 모든 음절말 ㅄ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음운제약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ㅄ 자음군의 단순화는 음운제약에 기반한 규칙이 되어 형태론적 조건이 필요없는 음운규칙으로 바뀐 것이지, 이미 형태음운규칙 (20ㄱ)이 존재하고 음변화가 마무리되는 상황에까지 굳이 또 다른 형태음운규칙이 첨가되었다고 서술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31) 이는 박창원(1990:429~430)에서 음변화가 형태론적인 조건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제시한 두 관점에 따른 것이다.

① x>y/__z] Morphology A	① x>y/__z] Morphology A
② x>y/__z] Morphology A, B	② x>y/__z] Morphology B
③ x>y/__z] Morphology A, B, C	③ x>y/__z] Morphology C

3.1.2.2.3. 규칙 소실

규칙의 첨가가 있으면 소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규칙이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규칙은 적용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소실되기도 하고, 적용 대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실되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박창원(1990:436)에서는 전자를 규칙의 소멸, 후자를 규칙의 상실이라고 하여, 각각 "작용이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영역이 없어지는 경우"와 "음운규칙이 작용하다가 그 작용을 그만두면서 원형태가 회복되는 경우"로 구별하였다.

규칙 소멸은 규칙의 구조기술을 만족시킬 만한 어간이나 어미가 현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ㅸ 말음 어간이 사라지면서 음절말 'ㅸ→ㅂ'은 적용될 대상을 잃게 되었고, ㅺ 등의 말음 어간이 사라지면서 음절말 ㅺ 자음군의 단순화는 적용될 대상을 잃게 되었다. 두 규칙 소멸은 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음운체계나 음운제약과의 관련성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음절말 'ㅸ→ㅂ'에서 입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규칙에 쓰인 ㅸ은 음운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음인바, 제약의 관점에서 보면 음운구조제약을 어기는 음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 중에서 규칙의 소멸에 관련이 깊은 것은 전자이다. 규칙의 출력인 구조변화는 음운제약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지만 규칙의 입력인 구조기술은 음운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예를 들어 자음군단순화의 구조변화인 C$는 음운제약을 따른 결과이지만 구조기술인 CC$는 음운제약의 영향력이 아직 미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절말 'ㅸ→ㅂ'의 경우도 ㅸ이 구조기술에 속해 있으므로 음운(구조)제약을 어긴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절말 'ㅸ→ㅂ' 규칙이 입력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을 이루고 있는 분절음이 음운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음운체계에 없는 분절음을 규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ㅅㄱ 자음군의 단순화가 소멸된 것은 ㅅ이나 ㄱ이 비음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체계와는 무관하다. 규칙의 입력인 ㅅㄱ$이나 출력인 ㅅ$도 음운제약의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규칙의 소멸은 순수하게 어간 기저형의 변화로 인한 입력의 소실 때문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즉 ㅅㄱ 말음 어간이 모두 ㄲ 말음 어간으로 바뀜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의 소멸은 현상의 중심이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저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칙 소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어 현상을 서술할 때에 해당 규칙이 서술되지 않을 뿐, 규칙은 그대로 문법에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칙 상실은 규칙의 입력이 이전과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현상의 중심이 규칙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생성문법에서 흔히 논의되어 오던 규칙 소실(rule loss)이 이와 같은 경우로, 상실되는 규칙이 공시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던 것이었는지, 상실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하지만, 국어의 예로서는 그 어느 것도 확실히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32]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ㄱ 약화 규칙의 소실이 아닐까 한다.

중세 국어의 곡용 및 활용에서 보이는 /ㄱ ~ ㅇ/의 음교체는 둘로 나뉘어 기술될 수 있다. 李丞宰(1996:77)은 곡용에서 적용되는 모음 뒤의 ㄱ 약화(규칙1)와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유음, 활음 뒤의 ㄱ 약화

---

32) Kiparsky(1965/1971:27)에서 예로 들어진 어말 무성음화 규칙의 소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bund//—(어말 무성음화)→/bunt/ ⇒ //bund//—(규칙Ø)→/bund/

cf. //bunt//—(규칙Ø)→/bunt/. 부사 avek(<aveg).

변화의 원인이 음변화(유성음화)에 있지 않음은 'bunt'의 굴절형이나 비굴절어인 부사 'avek'가 변하지 않음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bund'의 d가 어말 무성음화의 적용 대상이면서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Vennemann(1972)에서는 이에 대해 음운규칙이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해지면서 소실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규칙2)로 나누었다.

(21) 규칙1 : ㄱ → ㅇ / [-cons, +voc]]n.st. + ___

규칙2 : ㄱ → ㅇ / [αcons, αvoc] + ___

(22) 나(我)+-과 —(규칙1)→ 나와　　나-(出)+-고 —(규칙Ø)→ 나고

ᄆᆞᆯ(馬)+-과 —(규칙2)→ ᄆᆞᆯ와　　ᄆᆞᆯ-(捲)+-고 —(규칙2)→ ᄆᆞᆯ오

새(鳥)+-과 —(규칙2)→ 새와　　새-(曙)+-고 —(규칙2)→ 새오

먹(墨)+-과 —(규칙Ø)→ 먹과　　먹-(食)+-고 —(규칙Ø)→ 먹고

이러한 기술은 공시론적인 면과 통시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의 문제를 지닌다. 공시론적 기술에서의 문제는 규칙1이 곡용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점이다. ㄱ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사 또는 첨사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어 형태음운론에서 이처럼 곡용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안다.[33]

통시론적으로는 현대 국어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23) 나+-과 —(규칙Ø)→ *나과　　나-+-고 —(규칙Ø)→ 나고

말+-과 —(규칙Ø)→ 말과　　말-+-고 —(규칙Ø)→ 말고

새+-과 —(규칙Ø)→ *새과　　새-+-고 —(규칙Ø)→ 새고

먹+-과 —(규칙Ø)→ 먹과　　먹-+-고 —(규칙Ø)→ 먹고

규칙1과 규칙2가 소실된 이후 활용에서는 별 문제 없이 표면형을 도

33) 곡용과 활용에서 규칙의 적용이 차이나는 것은, 앞서 3.1.2.2.1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음변화가 활용에서만 적용되고 곡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출할 수가 있지만 곡용은 문제가 된다. '말+-과→말과'는 규칙2가 소실되면서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할 수가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 규칙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적용된 듯한 '나와, 새와'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규칙1과 규칙2의 소실만으로는 현대 국어로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규칙1을 상정하지 않고, 조사 및 첨사를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다.

(24) ㄱ. -과 : 그 밖
　　　-와 : [-cons, +voc] 뒤
　ㄴ. -과 : [+cons] 뒤
　　　-와 : 그 밖
　ㄷ. -과 : [+cons, -voc] 뒤
　　　-와 : 그 밖

(24ㄱ)은 모음 뒤에서는 '-와'가 선택되고 활음과 자음 뒤에서는 '-과'가 선택되게 한 다음 유음과 활음 뒤에서 규칙2가 적용되게끔 한 것이며, (24ㄴ)은 모음과 활음 뒤에는 '-와'가 선택되고, 자음 뒤에서는 '-과'가 선택되게 한 다음 유음 뒤에서 규칙2가 적용되게끔 한 것이다. (24ㄷ)은 유음 이외의 자음 뒤에서 '-과'가 선택되고, 모음, 유음, 활음 뒤에서는 '-와'가 선택되게 함으로써 이후 규칙2의 적용을 막고 있다. 이미 규칙의 목록에 활용에서도 적용되는 규칙2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칙의 면에서는 이 세 기술이 등가를 지니지만, 기저형 선택 조건을 보면 가장 적은 자질을 이용한 (24ㄴ)이 가장 무난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34]

34) [vocalic] 대신 [syllabic]을 이용하면 (24ㄱ)은 '-와 : [+syllabic] 뒤'가 되어 요구되

(24ㄴ)과 같이 조사 및 첨사의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하게 되면 규칙1은 상정할 필요가 없으며, 규칙2는 유음으로 끝나는 용언과 체언 어간 및 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및 어미 뒤에서만 적용되게 된다.

(25) 나+-와 —(규칙Ø)→ 나와　　나-+-고 —(규칙Ø)→ 나고
　　몰+-과 —(규칙2)→ 몰와　　몰-+-고 —(규칙2)→ 몰오
　　새+-와 —(규칙Ø)→ 새와　　새-+-고 —(규칙2)→ 새오
　　먹+-과 —(규칙Ø)→ 먹과　　먹-+-고 —(규칙Ø)→ 먹고

이렇게 보면 현대의 (23)은 (25)로부터 규칙2의 소실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조사의 복수 기저형 및 기저형 선택 조건은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가 있게 된다.

문제는 ㄱ 약화 규칙의 성격이다. 유음과 활음 뒤라는 음운론적 조건, 형태소 경계라는 형태론적 조건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하놀히어늘(←하놀ㅎ+-이-+-거늘)', '떠러디리어늘(←떠러디-+-리-+-거늘)'과 같이 지정사 '-이-'나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도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규칙의 비음운론적 조건으로서 형태소 경계나 활용, 곡용과 같은 문법 범주가 아닌 특정한 형태소를 나열한다면 그것은 형태음운규칙이 아니라 '어휘음운규칙'이라 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와 '-리-'가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이 두 형태소의 기저형을 //ij, rij//로 설정한다면, 표면에는 언제나 /i, ri/로 실현된다는 절대 중화가 걸림돌이 된다.[35] 이처럼 ㄱ 약화 규칙은 순

는 자질의 수가 (24ㄴ)과 같다. 그러나 (24ㄱ)은 규칙2의 소실 이후 곡용에서 '*새과'를 도출하게 된다.

35) ㅎ 말음 어간 역시 간혹 '좋-(良)'의 ㅎ이 모음 앞에서 발음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표면에 ㅎ이 실현되지 않음에도 ㅎ을 지닌 기저형을 설정하고 축약, 탈락, 대치를 겪는 것으로 기술된다. 배주채(1998:106)에서는 /지고, 지면, 저/와 같이 활용을 하는 어간의 기저형을 //즈-//로 설정하였는데, 이 역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

수한 음운규칙도 아닐 뿐더러 형태론적 범주에 따라 적용되는 형태음운 규칙일 수도 없다.

/ㄱ ~ ㅇ/의 음교체가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수 기저형에 의한 것이라는 기술도 쉽지 않다. 유음과 활음 뒤에 조사나 어미의 '-ㅇX'가 선택되고 그 밖에는 '-ㄱX'가 선택된다고 하여도, '-이-'와 '-리-'가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음과 같이 특정한 형태소가 복수 기저형의 선택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이진호 2002:47, 졸고 2002:783 참조).

(26) '-고'의 기저 구조

-오 : [*α*cons, *α*voc] 뒤, 지정사 '-이-'와 선어말 어미 '-리-' 뒤

-고 : 그 밖

이처럼 중세 국어의 ㄱ 약화는 서술하기가 까다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규칙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상실되었다고 서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중세 국어 이전 시기에 유음과 활음이 모종의 후속 자음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던 음운제약이 있었는데,[36] 그 제약이 약해지면서 형태소 경계라는 형태론적인 조건이 덧붙게 되었고, 더 나아가 형태음운규칙으로도 서술되지 못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진정한 규칙 상실로 서술될 수 있는 현상

는 ㅡ를 기저에 설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기저형이 어디까지 추상적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리-'의 기저형을 //ij//, //rij//로 설정한다고 하여도, '-다, -더-'가 /라, 러/로 실현되는 현상까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예) 새-+-더라→새더라 *새러라

36) ㄹ 말음 용언 어간의 경우 후속될 수 있는 자음어미의 두음은 ㄱ이나 ㄴ ㄷ ㅿ뿐이다. 그런데 ㄱ과 만나면 ㄱ을 약화(알-+-고→알오)시키고, ㄴ ㄷ ㅿ의 평치조음을 만나면 ㄹ이 탈락(알-+-ᄂᆞ니→아ᄂᆞ니, 알-+-더라→아더라, 알-+-ᅀᆞᆸ고→아ᅀᆞᆸ고)하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음이 아쉽다.

3.2. 어휘부 최적화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 각각은 내적으로 내용과 형식이 일대일 혹은 일대다의 대응을 이루고 있고,[37] 외적으로는 다른 단어들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문법적 혹은 의미적인 부류를 이루고 있다.

단어 내적인 구조를 최적화한다고 함은 하나의 내용에 둘 이상의 형식이 대응되어 있을 때 그 형식의 수를 줄이거나, 서로 닮은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한 한 일대일 대응을 이루게 한다든가, 형식이 저장되어 있는 방식을 간소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어 외적으로는 같은 의미적 부류에 속해 있는 단어들의 형식을 비슷하게 바꾼다든가, 같은 문법적 부류에 속해 있으면서 형식적인 면에서 예외적인 존재를 최소화하는 등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3.2.1. 유추

3.2.1.1. 형식적 동일화

유추(analogy)는 처음 사항비례(a:b=c:d)의 수학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언어학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Varro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고 한다(Jeffers and Lehiste 1979:60에서 재인용).

---

37) 내용과 형식이 다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는 다의어는 어휘부를 최적화하기 위해 형식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같은 부류에 속하여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항이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다르면서, 이 두 사항 간의 관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두 사항이 함께 있을 때, 두 묶음의 단어들은 같은 이법에 속하기 때문에 각각의 묶음을 동류라고 하며, 네 사항 사이의 비교를 유추라고 한다.[38]"

근대에 들어 유추는 음변화, 차용과 함께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로써 이용되었는데, 당시의 유추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39] 그 하나는 현재 생성문법에서의 규칙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언어의 생산성에 대한 소장문법학자들의 서술 도구, 즉 불규칙성(anomaly)에 대립되는 규칙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굴절, 단어형성, 음교체 나아가 문장의 발화에 이르기까지 언어 사용자는 기억된 것을 단순히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이미 습득한 자료에 유추하여 발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Paul 1886/1891:96~98). 이러한 의미에서의 유추는 이후 Sturtevant(1917/1968:113~121, 1947:104~107), Lehmann (1962:179) 등으로 이어졌으며, Anttila(1977)에서는 생성문법에서의 규칙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제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유추란 예전에는 흔히 '잘못된 유추(false analogy)'라고 불리

38) If there are two things of the same class which belong to some relation though in some respect unlike each other, and if alongside these two things two other things which have the same relation are placed, then because the two sets of words belong to the same *Lógos* each one is said separately to be analogue and the comparison of the four constitutes an *Analogía*.

39) Saussure(1916/1990:192)에 따르면 초기 언어학자들은 유추를 곧 '잘못된 유추'라고 칭했다고 한다. rhotacism의 경우, 질서정연한 원상태 'honōs'에서 벗어난 'honor'를 잘못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문법을 규범문법이라 여기고, 언어가 생명체와 같이 쇠퇴해 갈 때에야 유추가 나타난다고 여긴 결과라 생각된다. 이후 소장문법학자에 이르러서야 유추는 음변화와 더불어 언어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진정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한다. 소장문법학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덕호(1985)를 참조할 수 있다.

던 것들로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유추가 이에 해당된다(Vincent 1974: 428 참조). 소장문법학자들은 음변화의 예외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예외들을 묶어 예컨대 Verner의 법칙과 같이 따로 일반화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용이나 잘못된 유추로 그 요인을 돌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후 Bloomfield(1933), Hockett(1958)을 비롯한 현대 언어학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유추가 이처럼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생성문법에서 유추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규칙을 통하여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을 도출한다는 기본적인 서술 방법을 갖춘 생성문법에서 규칙성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유추는 규칙에 밀려 들어설 자리가 없다. 문제가 되는 후자의 '잘못된 유추'는 초기 생성문법에서부터 Kiparsky(1965, 1968a), King(1969) 등에 의해 규칙의 소실, 재배열, 단순화 등과 같이 규칙 부문의 변화로 설명되어 왔다. 이들 규칙 부문의 변화는 처음에는 문법의 단순화, 규칙의 최대 적용 등 문법 내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후 표면의 패러다임을 규칙화한다든가 표면형에 규칙이 투명하게 반영된다든가 하는 규칙 외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결국 전통문법의 표면중심적 사고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곧 유추 현상을 생성문법에서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여도 유추 현상 본연의 성격을 자신의 문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한, 본질적인 설명에 이르지 못함을 말해 준다.

생성문법에서 유추를 완전히 폐기할 수 없음은 다음에 들게 될 여러 사례들을 보아 분명하다. 기저형, 규칙, 표면형 도출이라는 생성문법의 서술 방법을 유지하면서 유추를 변화의 기제로써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개념을 가능한 한 좁은 범위로 한정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유추라 여겨지던 현상들의 일부는 유추가 아닌 다른 기제로 서술될 것인데, 이는 생성문법 내에서 변

화의 기제로서 유추를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생성문법의 여타 공시론적 기술 도구를 언어변화에도 응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우선 유추 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례와 유사성의 개념을 살피고, 이것이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 라틴어 어원(proportio)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있어서 비례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임에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비례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Bloomfield(1933)에서는 어떤 단어가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른 단어와 유사하게 변하는 현상을 감염(contamination)이라 하고 이를 유추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례가 유추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Paul(1886), Sturtevant(1947), Hockett (1958), Jeffers and Lehiste(1979) 등은 감염이나 혼효(blending), 역형성(back formation, inverse derivation), 민간어원(popular etymology, folk etymology), 재분석(metanalysis, reanalysis), 재해석(reinterpretation), 재절단(recutting), 부적절한 절단(improper clipping) 등을 유추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성격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이들 모두 또는 일부를 유추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추에서 비례의 개념을 누락시킬 필요성은 없다. 설령 비례의 개념이 유추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현상들을 선험적으로 유추라 규정하고 유추에서 비례의 개념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40]

유추의 그리스 어원(analogía, "공통부분")에 드러난 유사성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사성이 초래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언어라는 기호가 기의와 기표

40) 심지어 Hock(1986:195)에서는 생략(ellipsis), 절단(clipping), 두자어(acronym), 우언법(periphrasis) 등에 대해서도 "음변화나 의미변화로 설명할 수 없으니" 유추로 보아야 한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는 비록 세부적 분류는 되었을지언정 소장문법학자들이 음변화 이외의 것들을 위해 마련한 예외 처리 도구로서의 '잘못된 유추'의 개념 그대로이다.

또는 내용과 형식과 같이 양면을 지닌 동전과 같은 존재라면, 요인이 되는 유사성과 그 결과로 이끌린 유사성 역시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뉠 것이다.

(27) ㄱ. 형식적 유사성에 이끌려 형식적으로 유사해짐
ㄴ. 내용적 유사성에 이끌려 형식적으로 유사해짐
ㄷ. 형식적 유사성에 이끌려 내용적으로 유사해짐
ㄹ. 내용적 유사성에 이끌려 내용적으로 유사해짐

본 연구의 관심은 형태음운론적인 변화에 있으므로 고찰 대상은 (27ㄱ, ㄴ)에만 한정된다. 즉 어떠한 유사성에 이끌렸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27ㄱ)과 (27ㄴ)을 모두 유추라고 할 것인가 어느 하나만을 유추라고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음운론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음운론적인 유사성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이다.

(28) matter was [əw] : matter is [əri] = idea was [əw] : X(= idea is [əri])

표면적으로 보아 'matter was[mætəwəz]'와 'idea was[aidiəwəz]'가 보이는 [əw]의 유사성으로 인해 'idea is'도 'matter is[mætəriz]'와 같이 [r]을 넣어 [aidiəriz]로 발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Paul(1886/1891:95)에서는 음의 치환(sound substitution)도 (28)과 같이 비례식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에 따른 유추는 생성문법의 규칙과 같은 것이며, 좁은 의미의 유추로 보아도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Lehmann 1962:181).

41) Bynon(1977:37)에서는 유추적 확대의 한 예로 설명하고 있으며, Hock(1986:187)에서는 형태음소적 비례 유추(morphophonemic propotional analogy)라 하고 있다.

(28)의 변화를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규칙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보면, 'matter was'에 적용되던 음절말 r 탈락 규칙이 기저에 r을 가지고 있지 않은 'idea was'에까지 적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으로 인한 기저형 //aidiər//의 r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추의 근거가 된 좌측 항목이 없이 규칙의 존재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생성문법의 공시적 기술 도구인 규칙을 통시적 변화에도 활용하여 서술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음변화와 차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추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추의 영역을 필요 이상으로 넓힐 필요는 없다.

한편 유추가 문법적 ·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어형들을 음성적으로도 유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Hock(1986:167)의 설명은 내용적 유사성에 의해 형식적 유사성이 초래됨(27ㄴ)을 의미한다.[42] 결과적으로 내용과 형식의 일대일 대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와 형식의 일대일 대응(one meaning—one form correspondence)이라는 전통적 원리나 Vennemann(1972)에서 개념적 유추(conceptual analogy)의 근간이 된 Humbolt의 원리(Both roots and grammatical markers should be unique and constant.)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것들이다. 패러다임의 평준화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인데, 서로 다른 형식의 이형태들이 그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묶고 있는 문법적 · 의미적인 동일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한 같은 또는 비슷한 형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43]

이와 같이 유추의 근본이라 할 비례, 형식적 · 내용적 유사성이 어떠한 단위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고찰을 통해, 유추가 생성

---

42) Its most common function is to make morphologically, syntactically and/or semantically related forms more similar to each other in their phonetic (and morphological) structure.

43) Jeffers and Lehiste(1979)는 평준화를 유추와 달리 다루었지만, Paul(1886/1891:94)에서는 실질적 비례(material proportion : 한 단어가 실현된 여러 형태들이 이루는 집단에서의 비례)도 유추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

문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예들이 다음과 같이 비례의 항목으로서 굴절형을 두고 있다.

(29) ㄱ. boot : boots
vow : vows
··· : ···
foot : X = foots *feet
cow : X = cows *kine

ㄴ. jump : jumped
show : showed
··· : ···
help : X = helped *holp
go : X = goed *went

비례를 이루는 (29ㄱ)의 'boot, boots, vow, vows'와 'foot, cow', (29ㄴ)의 'jump, jumped, show, showed'와 'help, go' 그리고 유추의 결과인 'foots, cows, helped, goed' 등은 어떠한 문법적 지위를 지니는가. 'boot, vow, foot, cow, jump, show, help, go'를 기본형(basic form), 그 밖의 어형들을 도출형(derived form)이라 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한 형태소의 단수형, 복수형, 현재형, 과거형 등으로서 굴절 패러다임에서는 동등한 지위의 굴절형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형이 곧 생성문법의 기저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규칙적인 복수형, 과거형들이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억 속에 있지 않은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이 포착된다는 것은 생성문법으로서는 서술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44]

---

44) 한편 생성문법의 개념적 도구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비례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matt<u>er w</u>as [əw] : "/mætər#wəz/에서 어간말의 r이 탈락함"
= id<u>ea w</u>as [əw] : X(= "/aidiər#wəz/에서 어간말의 r이 탈락함")

양측의 좌항들 'matter was'와 'idea was'는 단어나 형태소가 아니라 그들의 결합체이며, 우항들은 기저와 규칙이라는 문법적 사실이다. 전자가 기억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후자의 경우도, 어간말의 r이 탈락한다는 규칙은 분명 기억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개별 상황에 대한 그 규칙의 적용 자체는 기억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생성문법은 기본적으로 심층에 기저형을 지니고 있고 모든 표면형이 그로부터 도출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저형이나 도출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문법의 유추란 표면형의 유사성에 이끌려 또 다른 유사한 표면형을 발화하는 것뿐이다. 전통문법의 유추를 생성문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생성문법의 표면형은 기저형이 일정한 과정을 통해 겉으로 발화된 것일 뿐 그들 간의 유사성이 논의될 만한 독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문법은 심층의 것이지 표면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추 현상은 기저의 차원이나 도출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만 했고, 초기 생성문법은 후자의 방안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도출 과정에서 규칙을 빼거나(규칙 소실) 그 순서를 바꿈(규칙 재배열)으로써 유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추를 대신하여 주로 거론된 규칙의 재배열 자체가 지니는 난점도 문제이려니와, 공시 규칙의 일반성과 자연성을 강조하는 70년대 중반 이후 현대 문법의 서술 성향에서 보아도 규칙 부문의 변화로 유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국 생성문법은 패러다임 조건이나 투명성 조건을 내세우는 등 Hock(1986:267~268)의 지적과도 같이 결국 표면형 중심의 전통문법으로 되돌아온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기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서술은 어떠한가. 기저형이란 음운부의 입력이기도 하지만 어휘부 단위의 음운형식이기도 하다. 어휘부에 기억된 단위들은 표면형과 달리 생성문법 내에서도 얼마든지 유사성이 거론될 수 있다. 즉 어떠한 어휘항목의 기저형이 이와 문법적·의미적으로 유사한 어휘항목의 기저형과 비슷해진다거나, 한 어휘항목의 여러 기저형들이 문법적·의미적 동일성으로 인하여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해진다거나 하는 서술도 충분히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

유추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생성문법 내에서도 (29)를 유추로 여길 근거가 마련된다. (29ㄱ)은 'feet'의 모음교체(ablaut), 'children'의 '-ren',

'data'의 '-a' 등과 같은 복수 접미사의 여러 형태들 또는 보충법적 복수형('kine' 등) 등을 동일한 형태소라는 문법적 · 의미적 공통성 아래에 동일한 음성 형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29ㄴ)도 초점을 과거시제 접미사에 두고 동일 접미사의 여러 실현 형태들이 음성적으로 가까워진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 형태소의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문법 형태소들도 여러 이형태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곧 유추라 할 수 있는 것이다.[45]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생성문법의 틀 내에서 음운론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유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추란 문법적 · 의미적인 유사성에 의해 음성적으로도 유사해지는 현상을 뜻하며, 유추의 각 항목은 기억되어 있는 단위이어야 한다. 한편 비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대체로 유추의 일종으로 다루어진 패러다임 평준화를 고려한다면 비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생성문법에서의 유추는 도출 차원이 아닌 기저 차원에서의 현상이다. 기저 차원이란 단지 음운부의 입력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기억되어 있는 단위의 음운형식인 기저형을 뜻한다.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와 비슷하게 기저형을 바꾸고, 하나의 단어에 둘 이상의 기저형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들을 서로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바꿈으로써 어휘부는 부담을 덜게 된다.

45) 이렇게 보면 (29)에서 정작 유추의 대상이 된 것은 각각의 명사, 동사가 아니라 그들과 결합되어 있는 접미사이며, 비례 유추가 아닌 접미사 패러다임의 평준화인 셈이다.

3.2.1.2. 변화의 실제

3.2.1.2.1. 평준화

평준화란 패러다임 내의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완전히 또는 일부 없애는 현상을 말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유추와는 별도의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의 단어가 여러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고 이를 줄인다는 점에서 유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형태소가 언제나 같은 형식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의미와 형식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지만, 국어에서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가 교체의 일부를 없애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굴절어의 패러다임에서는 일부의 교체만이 평준화되어 하위 패러다임이 단일한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選擇"을 뜻하는 동사는 고대 영어에서 'cēozan(현재), cēas(단수과거), curon (복수과거), coren(과거분사)'으로 쓰였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choose(현재), chose(단수과거), chose(복수과거), chosen(과거분사)'으로 쓰이게 되었다. 과거라는 하위 패러다임 내의 교체가 사라진 것인데,[46] 교착어인 국어에도 같은 의미에서의 패러다임이 있는지, 그 하위 패러다임의 평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 패러다임의 개념이 교착어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이란 인구어 문법에서 하나의 단어에 속하여 성, 수, 격, 시

---

46) 부분적 평준화는 이처럼 패러다임의 하위 부류에서의 평준화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Kiparsky(1968a/1982:42)에서와 같이 교체하는 두 음의 대립 자질이 줄어든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bɔdə : bödə'에서 'bɔdə : bɔ̈də'로의 변화는 이전 [low, back]의 대립을 보이던 것이 [back]의 대립으로 변하였는데, 이 역시 부분적인 평준화라 하고 있다.

제 등의 문법 범주를 갖춘 굴절형들의 한정된 집합을 가리켜 왔다. 국어 곡용의 경우,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격조사들의 수를 적절히 한정하여 체언의 격조사 곡용형들을 패러다임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원소들을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격조사 곡용형만으로 한정한다면, 주격형과는 다른 단독형(예. 흑(土≠흘기), 옫(服≠오시) 등), 보조사와의 결합형들(예. 홍만(←흙+-만), 온만(←옷+-만))은 패러다임의 원소가 될 수 없게 된다. 체언 패러다임의 평준화를 논의하면서 격조사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와는 다른 이형태를 초래하는 '-만' 등의 조사 결합형을 논외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용언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종결어미와의 결합형만을 패러다임에 포함시킬 수도 없을 것이며, 어말어미와의 결합형만을 패러다임에 포함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다수의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결합한 형태 역시 패러다임에 포함시킨다면 그 집합은 너무나 방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집합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설령 패러다임이라고 이름 붙인다 하여도 그것이 문법 전체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47]

평준화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나 굴절형들을 직접 비교한다기보다는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간 또는 어미의 이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다. 경기 지역어의 ㅂ 변칙 어간 '돕:-(助)'은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한다(李秉根 1970).[48]

(30) "助" 돕:찌, 돔:는, 도우면, 도와라 /돕:~돔:≈도우~도w/

⇒ 도우지, 도우는, 도우면, 도와라 /도우~도w/

---

47) 따라서 국어에서는 paradigmatic leveling에 대해 패러다임이 평준화 또는 규칙화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계열적으로 평준화되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48) ~는 규칙에 의한 이형태 교체를, ≈는 복수 기저형에 의한 이형태 교체를 나타낸 것이다. 교체의 이러한 구분은 4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변화를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돕:찌, 도우면/ 등 활용형들의 비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활용형들을 이루고 있는 어간의 이형태 /돕:, 도우/ 등의 비교를 통해서이다.[49] 즉 변화 이전 실현되던 /돕:, 돔:/이 변화 이후에는 실현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평준화의 정의에 포함된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제거'란 곧 이형태의 제거를 뜻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음의 변화는 평준화라고 할 수가 없다.

(31) "憎" 밉꼬, 밈니, 미우면, 미워　　　/밉~밈≈미우~미w/

⇒ 미웁꼬, 미움니, 미우면, 미워　　　/미웁~미움≈미우~미w/

이 현상은 한 형태소라는 문법적·의미적 동일성에 이끌려 이형태들이 음운적으로 유사해졌기 때문에 유추라 할 수 있는바, 한영균(1985: 390), 郭忠求(1994:559)에서는 혼효로 설명하고 있고, 崔明玉(1985:175), 허웅(1991:361), 유필재(2001:100)에서는 평준화로 설명하고 있다. 변화 이전과 비교해 보면 변화 이후의 이형태들은 자음 앞의 이형태가 모두 모음 ㅜ를 지니게 되어 서로 비슷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 이전과 이후의 교체 상황을 보면, 어떠한 교체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준화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형태 /밉, 밈/이 /미웁, 미움/으로 바뀌었을 뿐 (30)의 /돕:, 돔:/과 같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다음의 변화는 격음이나 경음 말음의 어간과 르 변칙 어간에서 종종 보이는 것들로서, 이들도 역시 이형태가 제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49) 패러다임 내의 어기(root) 또는 어간(stem)의 교체가 평준화되는 것을 따로 형태론적 평준화(morphological leveling)라고 부르기도 한다(Hock 1986:182).

(32) "報" 갑고, 감는, 가프면, 가파　　/갑~감~갚/

⇒ 가프고, 가프는, 가프면, 가파　　/가프~갚/

(33) "速"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ㄹ/

⇒ 빨르고, 빨르면, 빨라　　/빨르~빨ㄹ/

(32)의 변화 전후 이형태들을 비교해 보면 /갑/과 /감/이 제거되었지만 새로운 이형태인 /가프/가 나타났다.[50] /갑, 감/의 제거만을 보고 선불리 평준화라고 할 수는 없다. 평준화로는 /가프/와 같은 새로운 이형태의 등장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3)은 (31)과 마찬가지로 이형태들이 서로 비슷해졌다. 자음 앞의 이형태 /빠르/가 /빨르/로 바뀌면서 모음 앞의 /빨ㄹ/과 한결 비슷해진 것이다. (31)에서도 그러하였듯 한 단어의 형식들이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이 유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평준화는 아니다. 다만 (31)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형태의 수가 그대로이되 변화 이전에는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였던 것에서 변화 이후에는 규칙(ㅡ 탈락)에 의한 교체로 바뀌었다는 점이다.[51]

(30)에서 제거된 이형태들은 남은 이형태들과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를 하던 것들이며, (31)은 변화를 전후하여 같은 수의 이형태와 같은 성격의 교체가 유지되고 있다. (32)는 이형태의 수와 형식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모두 규칙에 의한 교체들이며, (33)은 변화 전의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가 규칙에 의한 교체로 바뀌었다.

생성음운론적 도출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형태의 교체는 음운규칙

50) 이는 변화 이전의 /가프면/을 /갚-으면/으로 형태 분석한 결과이다. 만일 이 활용형을 /가프-면/을 분석한다면, 변화 이전의 이형태는 /갑, 감, 가프, 갚/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가프, 갚/으로의 변화는 평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갑, 감/과 /가프/의 상호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51) 이러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규칙화'라는 용어보다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의 규칙활용화'라는 용어가 나을 듯하다.

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형태음운규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교체가 복수 기저형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체의 성격과 평준화가 지니는 상관성을 살피고, 그 안에서 인과성을 찾아낼 수는 없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준화라고 여겨지는 현상들 중 달리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우선 추려내고, 그 현상들이 어떠한 성격의 교체에서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험적인 가설을 교체의 성격과 함께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음운규칙에 의한 교체는 평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저형 '먹-'에서 비음화에 의해 도출된 이형태 /먹/과 /멍/이 평준화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29)에서 평준화된 영어의 복수 접미사 '-ren', '-a', 모음교체 등 비자동적인 교체형은 평준화를 겪는 데에 반해 규칙에 의한 자동적 교체형인 's～z～əz'는 평준화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32)에서는 변화 이전의 이형태들이 모두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변화 결과 이전에 없던 이형태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준화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현상은 새로운 이형태가 생기지도 않아서 평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4) "價" 갑또, 감만, 갑씨 /갑～감～갑ㅆ/
⇒ 갑또, 감만, 가비 /갑～감/
"膝" 무릅또, 무릅만, 무르피 /무릅～무름～무릎/
⇒ 무릅또, 무름만, 무르비 /무릅～무름/

(34)는 음운규칙인 자음군단순화, 평음화에 의한 교체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의 제거는 체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없:-'이나 '갚-'이 으-계 어미나 아-계 어미와의 결합에서 이들과 같이 /업:-

으면/, /갑-아/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즉 (34)는 체언에만 해당되는, 평준화가 아닌 다른 기제로 설명될 문제이며, 음운규칙에 의한 교체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姜昶錫(1985)에서와 같이 자음 앞의 어간을 '갑, 무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모음 앞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다.

형태론적 조건이 부가된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교체에서도 평준화의 예를 찾기는 힘들다. 예컨대 '가-+-고'에서 도출된 어미의 이형태 /고/와 '안-+-고'에서 경음화를 통해 도출된 어미의 이형태 /꼬/는 평준화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52] 물론 여기에서의 경음화는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이라는 형태론적인 조건이 요구되는 규칙이다.

다만 ㄹ 말음 어간은 유음탈락에 의한 교체가 평준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53] 여기서의 유음탈락이란 이른바 동기관적 이화에 의한 것으로서 ㄹ이 어간의 말음일 때에만 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을 가리킨다.

(35)	"氷"	-지	-는	-ㅂ니다	-어	-(으)면	-(으)니까	-(으)ㄹ	-(으)ㄴ
ㄱ	활용형	얼:지	어:는	업:니다	어러	얼:면	어:니까	얼:	언:
	이형태	얼:	어:	어:	얼	얼:	어:	어:	어:
ㄴ	활용형	얼:지	어:는	업:니다	어러	어르면	어르니까	어를	어른
	이형태	얼:	어:	어:	얼	얼	얼	얼	얼

이병근(1981:19)에는 이에 대해 '어간과 어미 양쪽에 관련되는 패러다임의 규칙화'라는 언급이 보인다. 용언 변화의 초점을 어간에만 둘 것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들이 이루는 패러다임에도 두어야

52) 만일 후자가 /안고/와 같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평준화가 아니라 규칙의 소실로 서술될 수가 있다.
53) (35ㄴ)의 /어르면, 어를/ 등의 어간 이형태를 /얼/이 아닌 /어르/로 분석한다면 평준화 자체가 거론될 수 없기에 /얼/로 하였다.

함을 강조하고,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성을 고구하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간의 교체만을 볼 때 (35)는 평준화와 무관하다. (35ㄱ)의 /얼:~얼~어:/의 어간 교체가 (35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변한 것은 이형태의 실현 환경이다. (35ㄱ)에서는 ㅓ 앞에서만 실현되던 /얼/이 (35ㄴ)에서는 ㅡ 앞에서도 실현되는데, (35ㄱ) 패러다임에서 ㅓ 앞이라는 환경이 지니는 지위나 (35ㄴ) 패러다임에서 ㅓ와 ㅡ 앞이라는 환경이 지니는 지위가 똑같이 '모음 앞'이라는 점에서는 둘 모두 정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실현 환경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규칙적이던 것이 규칙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반면 자음 앞의 이형태의 분포 환경은 (35ㄴ)에서 다소 정연해진 듯하다.

(35′) ㄱ. 얼: '-지, -고' 등 장애음 앞, '-면' 앞
어: '-는, -ㅂ니다, -니까, -ㄹ, -ㄴ, -ㅁ' 등 앞
얼 '-어' 앞
ㄴ. 얼: '-지, -고' 등 장애음 앞
어: 공명자음 앞
얼 '-어, -으면, -으니까, -을, -은, -음' 등 모음 앞

(35′ㄱ)에서 이형태 /얼:/이 실현되는 환경이던 '-(으)면' 등이 (35′ㄴ)에서는 이형태 /얼/의 환경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형태 /얼:/과 /어:/의 분포 환경이 장애음 앞과 공명자음 앞으로 바뀌어 이전보다 단순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미의 이형태가 실현되는 환경을 보면, '-(으)면, -(으)니까' 등 으-계 어미의 이형태 /으X/가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만 실현되다가 ㄹ을 포함한 모든 자음 뒤로 실현 환경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에서 어간 이형태의 분포가 달라진 것도 결국은 이러한 어미 이형태의 분포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규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면, ‘얼:-+-는’에 적용된 유음탈락과 ‘얼:-+-(으)니까’에 적용된 유음탈락은 동기관적 이화에 의한 규칙으로서 동일하고, ‘얼:-+-ㅁ니다’에 적용된 유음탈락과 ‘얼:-+-(으)ㄹ’, ‘얼:-+-(으)ㄴ’에 적용된 유음탈락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한 자음군단순화로서 동일하다. 이처럼 동일한 규칙에 의해 도출된 이형태이지만 평준화의 양상은 서로 다르다.[54]

(35″)	ㄱ.	얼:-+-는	—(유음탈락)→	어:는		*어르는
		얼:-+-(으)니까		어:니까	⇒	어르니까
	ㄴ.	얼:-+-ㅁ니다	—(자음군단순화)→	엄:니다		*어름니다
		얼:-+-(으)ㄹ		얼:		어를

이처럼 동일한 규칙에 의해 형성된 이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니까/와 /얼:/은 변화를 겪은 반면 /어:는/과 /엄:니다/는 변화를 겪지 않았다. (35″ㄱ)의 유음탈락은 ㄹ이 용언 어간 말음일 때에만 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으로서 만일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이형태가 평준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는/과 /어:니까/가 모두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이는 곧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교체가 평준화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해 준다. 한편 (35″ㄴ)의 자음군단순화는 음운규칙으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음운규칙에 의한 이형태가 평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를/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어미 쪽에 있는 것이지 형태음운규칙에 의해 도출된 이

54) /어름니다/는 다소 가능하게 여겨지는데, 어미의 기저형이 ‘-ㅁ니다’가 아닌 ‘-음니다’일 가능성이 있다. 이 어미는 ‘-ㄴ다/-는다’ 등과 함께 비자동적인 교체를 하는 자음어미인데, 으-계 어미의 교체 양상인 /으X≈X/와 비슷하게 변한 것은 아닌가 한다.

형태들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2.2에서 행해질 것이니 다만 여기서는 (35)의 변화가 평준화도 아닐 뿐더러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이형태가 평준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한 데에서 그치도록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교체, 즉 하나의 기저형에서 규칙에 의해 공시적으로 도출되는 이형태들의 교체는 평준화되지 않음을 보았다. 이론적으로 보아도 규칙에 의한 이형태의 교체를 줄인다는 것은 생성문법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힘들다. 기저형 //갑ㅆ//과 공시적 음운규칙인 자음군단순화, 비음화를 통해 도출된 /갑ㅆ~갑~감/의 교체는 기저형과 규칙에 의한 표면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굳이 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생성문법은 이형태들 간의 관계가 단일한 기저형과 음운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 음운론의 영역에서 서술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형태론의 영역에서 서술하고 있는데(Anderson 1974:60), 형태론적 변화인 평준화가 음운론적 현상의 결과로서의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이형태성(allomorphy)을 패러다임 내에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패러다임 조건(Kiparsky 197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55] 이형태성이란 무엇인가. 만일 교체의 성격과는 관계 없이 하나의 형태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을 이형태성이라고 한다면, 규칙에 의해 도출 가능한 이형태들 역시 패러다임 조건의 적용 대상, 나아가 평준화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Kiparsky는 이형태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70년대 초중반의 자연생성음운론의 등장과 아울러 교체 및 규칙의 성격에

---

55) 패러다임 조건은 패러다임 긴밀성(coherence : Kiparsky 1972)이나 패러다임 통일성(uniformity : Harris 1973) 등의 용어로도 쓰인다.

대한 논의들을 보면 적어도 '순수한' 이형태성은 음운론의 영역 밖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56] 이후 80년대 초반에 문법에서 형태론이 지니는 위상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형태성은 이형태 각각이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Lieber 1981, Ford & Singh 1983, Dressler 1985 참조). 이후 Kiparsky 역시 이형태성을 효과적인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태어휘론적 교체(morpholexical alternation)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Kiparsky 1994).

Kiparsky(1971)의 이형태성 및 패러다임 조건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평준화란 곧 불규칙적인 교체를 어휘부에 표시, 즉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저형들을 최소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崔明玉 1993:34 참조). 이는 유추를 규칙 차원이 아닌 기저 차원의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본고의 설명 방향과도 일치한다.

(30′) 돕:꼬, 돕:는, 도우면, 도와	//돕:-/도우-//
⇒ 도우고, 도우는, 도우면, 도와	//도우-//
(33′)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르-//
⇒ 빨르고, 빨르면, 빨라	//빨르-//
(36) ㄱ. "達" 다닫꼬, 다닫는, 다다르면, 다다라	//다닫-/다다르-//
⇒ 다다르고, 다다르는, 다다르면, 다다라	//다다르-//
ㄴ. "啄" 좃:고, 조ᅀᆞ면, 조ᅀᅡ	//좃:-//
⇒ 쫃:꼬, 쪼:면, 쫘:	//쫃:-/쪼:-//
⇒ 쪼:고, 쪼:면, 쫘:	//쪼:-//

그러한 관점에 서면 (30′)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교체가 /돕:~돕:

56) Lieber(1981)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이형태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도우~도w/에서 /도우~도w/로 줄어들었다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저형이 '돕:-/도우-'에서 '도우-'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33′)은 비록 교체가 줄지는 않았지만, 기저형이 '빠르-/빨르-'에서 '빨르-'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이 (30′)과 같으며[57] 그로 인하여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평행적인 처리를 받을 만하다.[58]

(36ㄱ)의 ㄷ 변칙 어간의 도출 패러다임도 ㅂ 변칙 어간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닫~다단≈다다르~다달/의 교체는 복수 기저형이 단일화됨에 따라 규칙 활용의 /다다르~다달/로 바뀌었다. (36ㄴ)은 중세 국어의 ㅿ 말음 어간이 복수 기저형을 지닌 ㅅ 변칙의 시기를 거쳐 평준화된 많지 않은 예이다.[59]

평준화란 결국 복수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는 설명이 지니는 장점은, 첫째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유추와 평준화의 고유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평준화를 결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패러다임이 평준화된다고 하든 이형태가 제거된다고 하든 모두 생성문법 내에서 지위가 불안한 표면형을 유추의 근거로 삼을 수

---

57) 장윤희(2002ㄱ:103)에서는 '잇-/이시-(有)⇒잇-'을 예로 하여 '어간 이형태의 단일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복수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단일화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남 방언 및 일부 서남 방언의 /노:라고, 노:라면, 노:래/(黃 崔明玉 1988:61)는 '노:랗-(자음어미 앞)/노:라-(으-계 어미 앞)/노:래-(그밖)'에서 '노:라-(자음 앞)/노:래-(그밖)'로 기저형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I』에도 아-계 어미 앞의 기저형이 으-계 어미 앞에서 쓰인 /노:래면/,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이 아-계 어미 앞에서 쓰인 /노:라서/가 보고되어 있다.

58) 변화 이전 기저형이 '빠르-/빨ㄹ-'이었다면 '빨르-'로의 변화는 혼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빨ㄹ-'과 같이 동일한 두 자음이 어간 말음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는 알 수 없다(이진호 2002:46).

59) 『서울II』에는 ㅅ 변칙의 '잇:-(繼)'에 대해 /이으구, 이(:)구/와 같은 자음어미 결합형도 보고되어 있다. 이들 역시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 앞의 기저형인 //이으-//가 그 선택 환경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밖에 없지만, 현상의 초점을 기억할 수 있는 단위인 기저형에 두게 되면 유추는 생성문법 내에서도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또한 한 형태소라고 하는 문법적 · 의미적 공통점에도 둘 이상의 기저음운표시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이라 풀이함으로써 앞서 정의된 유추의 하위 현상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나아가 한 단어의 복잡한 기저형 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결국은 어휘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현상으로서 평준화를 단지 변화의 결과가 아닌 변화의 요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평준화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세부터 이미 변칙 활용을 하던 ㄷ 변칙 어간, 르 변칙 어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ㅂ 변칙 어간과 같이 음변화를 겪고서 형성된 복수 기저형이나 재분석을 통하여 형성된 복수 기저형에도 평준화는 일어난다.

(37) ㄱ. "擠"	메:고, 메:면, 메어	//메:-//	
	⇒ 미:고, 미:면, 메어	//미:-/메-//	음변화
	⇒ 미:고, 미:면, 미어	//미:-//	평준화
ㄴ. "報"	갑꼬, 감는, 가프면, 가파	//갚-//	
	⇒ 불변	//갑-/가프-//	재분석
	⇒ 가프고, 가프는, 가프면, 가파	//가프-//	평준화

(37ㄱ)은 음변화가 일부 활용형에만 적용됨으로써 복수 기저형을 지니던 상태에서 다시 평준화를 겪은 것이며, (37ㄴ)은 일부 활용형 /가프면, 가파/를 '가프-+-면, 가프-+-아'로 재분석한 결과 형성된 복수 기저형이 평준화를 겪은 것이다. (37ㄱ)은 음변화를 겪은 상태의 어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어 두 변화 요인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지만, (37ㄴ)은 후술할 바와 같이 재분석만으로는 어형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변화를 합하여 하나의 현상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형의 변화만으로는 평준화로도 다른 그 어떤 요인으로도 현상을 말끔히 서술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평준화의 방향, 즉 복수 기저형 중 어떤 기저형이 사라지고 어떤 기저형이 살아 남는지를 살펴 보자.

(38)	표면형	기저형	표면형	기저형	표면형	기저형
ㄱ	도ᇦ:고	//도ᇦ:-//	도ᄫᆞ면	//도ᇦ:-//	도ᄫᅡ	//도ᇦ:-//
		⇓	V	⇓	V	⇓
	돕:꼬	//돕:-//	도우면	//도우-//	도와	//도우-//
ㄴ	메:고	//메:-//	메:면	//메:-//	메어	//메:-//
	V	⇓	V	⇓		⇓
	미:고	//미:-//	미:면	//미:-//	메어	//메-//

(38)은 (30′)과 (37ㄱ)이 평준화를 겪기 전 상태에 이르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38ㄱ)은 '도우-'로 평준화를 겪는데, 이 기저형은 이전 시기의 ㅸ이 비음운화되면서 새로이 설정된 것으로서 아-계 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선택되는 기저형이다. (38ㄴ)은 '미:-'로 평준화를 겪는데, 이 기저형 역시 모음상승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것으로서 자음 앞에서 선택되는 기저형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선 복수의 기저형이 선택되는 조건과 평준화의 방향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38ㄱ)과 같이 모음 앞의 기저형으로 평준화되기도 하고 (38ㄴ)과 같이 자음 앞의 기저형으로 평준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우-'와 '미:-'는 음변화에 의해 달라진 표면형을 공시적으로 도출해 내는 기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8ㄱ)의 경우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 '도ᇦ:-'에서 '돕:-'으로 바뀌었고, (38ㄴ)의 경우 아-계 어미 앞의 기저형이 '메:-'에서 '메-'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둘 모두 표면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표면형의 변화와 무관한 기저형이 사라지고, 변화된 표면형과 관련된 기저형이 살아 남는다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신형이 구형을 대신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7ㄴ)과 같이 표면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33′)의 르 변칙 어간이나 (36ㄱ)의 ㄷ 변칙 어간의 경우는 중세에 이미 복수 기저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표면형이 신형이고 어떤 표면형이 구형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평준화란 궁극적으로 표면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기저 차원의 현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38ㄱ, ㄴ), (37ㄴ)에서 밀려난 기저형인 '돕:-, 메-, 갑-'이나 살아 남은 기저형인 '도우-, 미:-, 가프-'는 모두 새로운 기저형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복수 기저형의 평준화 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표면의 신형과 구형을 기준으로 삼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의 두 평준화를 비교해 보면, 둘 모두 'ᄒᆞ-'가 보이던 변칙 활용으로 인해 복수 기저형을 지니고 있던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의 평준화를 보이고 있는데, 꼭 어느 한 쪽으로만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39ㄱ)은 자음 앞의 기저형으로 평준화되었고 (39ㄴ)은 모음 앞의 기저형으로 평준화된 것이다.

(39) ㄱ. "同" 갇꼬, 가트면, 가태 //같-/가태-//
⇒ 갇꼬, 가트면, 가타 //같-//
ㄴ. "爲" 하고, 하면, 해: //하-/해:-//
⇒ 해:고, 해:면, 해: //해:-//

중세 국어의 ㅸ 말음 어간들은 평준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 준다. ㅸ 말음 어간에서 변화한 ㅂ 변칙 어간 '돕:-/도우-' 등에서 '돕:-'이 사라지고 '도우-'만이 남는 현상을 앞서 살폈는

데, 이와 동궤의 것으로 보이는 변화가 중세의 ㄹㅸ 말음 어간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40) ㄱ. ᄀᆞᆯᇦ:-(竝) ⇒ ᄀᆞᆱ:-/ᄀᆞᆯ오- ⇒ 가루-

ㄴ. 들ᇦ:-(鑿) ⇒ 뚜르- (⇒ 뚫-)

ㄴ′. 들ᇦ:-(鑿) ⇒ 뚤르-

ㅸ 말음 어간과 마찬가지로 ㄹㅸ 말음 어간도 'ㅸ>w' 및 ㅸ의 비음운화를 통해 (40ㄱ)은 /ᄀᆞᆱ:고, ᄀᆞᆯ오면, ᄀᆞᆯ와/의 표면형과 'ᄀᆞᆱ:-/ᄀᆞᆯ오-'의 복수 기저형을 지니게 되었다. 이 어간에 대한 현대 국어의 반사형은 어간말 자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인데, 아마도 현대어의 '가루-'는 복수 기저형 'ᄀᆞᆱ:-/ᄀᆞᆯ오-' 중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인 'ᄀᆞᆯ오-'가 'ᄀᆞ로-'를 거쳐 ㆍ의 변화와 모음상승을 겪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 'ᄀᆞᆱ:-'이 소멸되는 평준화가 일어난 것이다.

(40ㄴ, ㄴ′)의 '들ᇦ:-'은 현재 '뚫-, 뚧-, 뚜르-, 뚤르-, 뚤루-'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중 중부 방언에서 주로 보고된 것은 '뚫-'과 '뚤르-, 뚤루-'이다.[60] (40ㄴ)을 '들ᇦ:-'에서 '뚫-'로의 직접적인 음변화로 설명한다면 'ㅸ>ㅎ'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ㅸ 말음이던 어간이 현재 ㅎ 말음으로 남아 있는 예가 없지는 않으므로, 상정 가능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ㆆ 말음으로 남아 있는 어형까지 포괄하여 'ㅸ(ㅂ)~ㅎ~ㆆ'의 음운 대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정인호 1997:165), 기원적으로 이미 ㅎ 말음이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김규남 1991:103). 그러나 '뚤흐면, 뚤허' 등의 표기가 문헌 자료에 전혀 나

60) 서울, 경기 지역만을 보면, '뚫-'은 서울과 경기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시흥, 광주, 화성, 용인, 평택, 안성에서 보고되었고, '뚤르-'나 '뚤루-'는 연천, 양주, 옹진, 남양주, 가평, 양평에서 보고되었다.

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ㄹ 뒤의 ㅸ이라고 조건을 좁힌다면 중세 국어 ㄹㅸ 말음 어간이 ㄹㅎ 말음 어간으로 변한 것은 이 어간 하나뿐이라는 점도 음변화에 의한 설명을 주저하게 만든다. 음변화나 음운 대응은 매우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40ㄴ′)에 대하여는 '뚫-'에 ㄴ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가 결합하여 유음화를 겪은 /뚤른다, 뚤리/ 등을 좇아 다른 활용형들도 변하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뚤르-'는 '듧:-'에서 먼저 '뚫-'로 변한 이후 이로부터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음어미 중에서도 몇 되지 않는 ㄴ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을 따라서 여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까지 변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듧:-'은 'ㅸ>w'로 인하여 /듧:고, 들우면, 들워/와 같이 활용하였는데, 이후 'ㄹㅇ>ㄹ', 'ㄹㅇ>ㄹㄹ'을 겪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변하였으리라 생각된다.

(40′) "繫" 듧:고, 들우면, 들워 //듧:-/들우-//

⇒ ㄴ. 듧:고, 드루면, 드뤄 //듧:-/드루-//

ㄴ′. 듧:고, 들루면, 들뤄 //듧:-/들루-//

어두 자음 및 모음의 변화를 감안할 때 '뚜르-'는 (40′ㄴ)이 '드루-'로 평준화를 겪은 것이라 할 것이며,[61] '뚤르-, 뚤루-'는 (40′ㄴ′)이 '들루-'로 평준화를 겪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40ㄱ)이나 다음에서 살필 (41)에서와 같이 으-계 어미·아-계 어미 앞의 기저형으로 평준화된 것과 동궤의 현상이다. (40′ㄴ)의 '뚜르-'는 다시 '뚫-'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따르-(注)'가 재분석을 통해 '딿-'로 변한 것과 같은 해석을 받을

61) 정칙의 '뚜르-'로 남아 있는 지역은 매우 적다. 충남 연기가 그러하며, 여기에 다시 모음이 변화된 '뛰르-, 뛰리-'가 전남 신안, 보성, 강진, 장흥에서 보고되어 있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다음의 (41)도 이와 유사한 평준화 과정을 겪은 것이라 생각된다.

(41) ㄱ. ᄀᆞᇦ-(淵) ⇒ ᄀᆞᆸ-/ᄀᆞ오- ⇒ ᄀᆞ오- ⇒ 고이-～괴:-

ㄴ. ᄉᆞᆯᇦ:-(謂) ⇒ ᄉᆞᆲ:-/ᄉᆞᆯ오- ⇒ ᄉᆞᆯ오- ⇒ 사뢰-

이들도 역시 ㅸ이 비음운화된 이후 현대에 ㅂ 변칙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이다. (41ㄱ)은 복수 기저형의 'ᄀᆞᆸ-'을 버리고 단일화된 'ᄀᆞ오-'가 원순성 동화를 겪어 '고오-' 또는 '고:-'로 변하고, (41ㄴ) 역시 복수 기저형이 단일화된 'ᄉᆞᆯ오-'에서 ㆍ가 ㅏ로 바뀌고 ㅇ이 탈락하여 '사로-'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괴:-, 사뢰-'는 이렇게 평준화된 '고:-, 사로-'에 다시 아무런 문법적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ㅣ가 덧붙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62] 그런데 'ᄀᆞᇦ-'은 남부 방언에서 자음어미 앞 기저형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곱-'에 '-히-'가 덧붙은 것으로 보이는 '고피-, 괴피-' 등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바, 이는 마치 '눕:-(臥)'의 사동사가 '누피-～누이-'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사뢰-'는 '아뢰-(告<알외-)'에 유추(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중세 당시 ㄹㅸ 말음을 지니던 어간들도 복수 기저형을 거쳐 평준화될 수 있었다면, 중세의 ㄹㅸ 말음 어간에서 현재 ㄹㅂ 말음 어간으로 변한 것도 평준화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중세 국어의 ㄹㅸ 말음 어간은 '열ᇦ-(薄), ᄠᅥᆯᇦ:-(澁), ᄇᆞᆯᇦ:-(踏), 셜ᇦ:-(恨), 들ᇦ:-(鑿), ᄀᆞᆯᇦ:-(竝), ᄉᆞᆯᇦ:-(謂)'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셜ᇦ:-'은 '-업-' 파생을 통해 현재 ㅂ 변칙의 '서럽-'으로 남고, '들ᇦ:-'은 평준화와 재분석을 통해 'ᄠᅮᆶ-'로 남게 된 것으

---

62) 이러한 ㅣ에 대하여서는 李賢熙(1987), 구본관(1997), 장윤희(1999)를 참고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ㅣ가 덧붙지 않은 '고:-' 및 '사루-'나 '아루-(告)'도 보고되었다 (이기갑 외 편 1998).

로 볼 수 있다.[63] 'ᄀᆞᇕ:-'과 'ᄉᆞᇕ:-'이 평준화를 통하여 '가루-, 사뢰-'가 되었다면 나머지 'ᄋᆢᇕ-, ᄠᆞᇕ:-, ᄇᆞ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칙의 'ᄋᆢᆲ:-, ᄠᆞᆲ:-, ᄇᆞᆲ:-'이 되었을까.

金完鎭(1974:118)에서는 ᇕ 말음 어간들이 변칙 어간이 되지 못한 것은 대립될 만한 정칙 어간이 없다는 '체계'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ㄼ 말음의 정칙 어간으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기존의 문법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될 수 있을지 난감하다. 郭忠求(1994:579), 이진호(1997:52)에서는 비자동적 교체를 하던 어간들이 자동적 교체를 하게 된 'ᄌᆞᄆᆞ-/ᄌᆞᆷ-(沈)⇒ᄌᆞᆷ-'이나 '나모/ᄂᆞᇚ(木)⇒나모' 등과 같은 부류의 단일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생성문법에서 복수 기저형의 평준화로 서술이 가능하다. 예컨대 'ᄇᆞᇕ:-'은 ᄫ의 비음운화 이후 'ᄇᆞᆲ-/ᄇᆞᆯ오-'의 복수 기저형을 지니게 되었고, 이후 'ᄇᆞᆲ:-'으로 평준화되었다는 것이다.[64]

그러나 ㅂ 변칙 어간의 평준화가 대체로 '돕:-/도우-⇒도우-'와 같이 아-계 어미·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이 남은 반면 ᇕ 말음이던 어간은 'ᄇᆞᆲ:-/ᄇᆞᆯ오-⇒ᄇᆞᆲ:-'과 같이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 남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만 'ᄋᆢᆲ-'과 'ᄠᆞᆲ-'은 형용사였기 때문에, ㅜ 말음 어간에 형용사가 없다는 용언 어간 구조 조건에 의해 '여루-, 떠루-'로의 평준화가 저지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동사인 'ᄇᆞᆲ-/ᄇᆞᆯ오-'가 '바루-'로 평준화되지 않은 것은 설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

63) '서럽-'으로의 파생은 근대 이후의 것이므로 파생 접미사의 기저형은 엄밀히는 '-업-'이 아니라 '-업/어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64) 중부 방언의 ㄼ 말음 어간은 'ᄫ>ㅂ'을 겪은 동남 방언으로부터 차용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ᇕ 말음이었던 어간들은 예외없이 차용되면서 ᄫ 말음이었던 어간들은 전혀 차용되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2.1.2.2. 감염

감염(contamination)이란 한 어형이 의미적으로 매우 관련이 깊은 어형과 음성적으로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감염과 종종 섞이어 쓰이는 용어로 혼효(blending)가 있는데, 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의미 혹은 유사한 의미의 두 어형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으로서 감염과는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Hockett 1958:390,433, Jeffers and Lehiste 1979:57,130, Hock 1986:189,197).[65] 그러나 두 현상의 이러한 구분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Paul(1886/1891:160)에서는 감염을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로 섞이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오히려 혼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Sturtevant(1917/1968:39)의 감염 역시 혼효에 가까우나 동의어의 융합이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Jespersen(1922:281~262, 312~313)의 혼효는 Paul(1886)의 감염과 유사하지만 숫자나 달 이름이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Bloomfield(1933)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 정의나 예시된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혼효보다는 감염이라 할 수 있다. Sturtevant(1947:111)의 감염은 Paul(1886)의 것과 동일한데, 감염은 일시적인 현상인 데에 반해 혼효는 그 항구적인 자취가 남겨지는 현상이라고 하여 둘을 구분짓고 있다.[66] Lehmann(1962:185)는 감염 또는 혼효라고 하여, 실제로는 혼효에 가까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감염과 유추의 관계에 대해서도 Paul(1886), Sturtevant(1947), Hockett(1958)에서는 감염을 유추와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Steute-van(1917), Bloomfield(1933), Lehmann(1962), Jeffers and Lehiste(1979),

---

65) 감염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식 변화(shape change : Hockett 1958:380)이지만, 혼효는 단어들의 혼효일 경우 신어 창조(coinage)가 된다.

66) Paul(1886), Sturtevant(1917, 1947), Jespersen(1922), Bloomfield(1933) 등에서는 같은 의미 또는 같은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는 두 문장이 하나로 섞여 발화되는 통사적인 현상도 감염 또는 혼효라고 하고 있다.

Hock(1986)에서는 감염을 유추의 하위 현상으로 다루는 등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67] 후술할 바와 같이 감염이 반드시 유의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적 · 의미적으로 매우 관련이 깊은 단어에 영향을 받아 음운표시가 닮는 현상임에 틀림없고, 단어의 내용적 부분과 형식적 부분을 나누어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에 유추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68]

감염은 흔히 반의어 혹은 같은 어휘장의 단어들, 자주 병치관계(juxtaposition)에 놓이는 단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42) ㄱ. 얕-(淺) ⇒ 야프-　　cf. 기프-(深)

꽂-(揷) ⇒ 꼽-　　cf. 뽑-(拔)

없:-(無) ⇒ 읎:-　　cf. 있-(有)

ㄴ. 세모나-(三角) ⇒ 세모낭-　　cf. 동그랑-(圓)

풀-(解) ⇒ 푸르-　　cf. 끄르-(解)

ㄷ. 사올(三日) ⇒ 사흘　　cf. 이틀(二日)

마손(四十) ⇒ 마흔　　cf. 셜흔(三十), 닐흔(七十)

츠-(舞) ⇒ 추-　　cf. 춤(을) 츠-

(42ㄱ)의 '야프-'는 남부 방언에서 종종 발견되는 어형으로서 許雄(1965:519)에서 이미 반의어에 의한 유추라 설명된 바 있다. '얕-'이 '야프-'에 이르기 전에 '야트-'의 단계를 거쳤다면, 그것은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야프-'로의 변화는 반의어인 '기프-'에 감염된 것

67) Jeffers and Lehiste(1979:57)에서는 감염을 의미적 패러다임 내에서의 평준화라고 하고 있다.

68) 예컨대 (42ㄱ)의 '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深"&형용사 : "淺"&형용사 = 기프- : X(= 야프-)
좌측은 형태소의 내용, 우측은 형식에 해당되어 내용적 유사성에 이끌려 형식적으로도 유사해 진다는 유추의 성격(27ㄴ)에 부합한다.

이다.[69] '꼽-' 역시 남부 방언에서 발견되는 어형인데, 그 기원이 '꽂-'과 다르지 않다면, 반의어 '뽑-'에 감염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70] 매우 특이한 어형인 '얺:-'은 경북 의성(申承遠 1982), 상주(白斗鉉 1985), 안동(최임식 1999), 영주(林錫圭 1999) 등에서 보고된 것으로 자음군단순화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시키기가 힘들어 보인다. 반의어인 '있-'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林錫圭 1999:24).

(42ㄴ)은 김창섭(1996:15～16)에 제시된 예로서 '세모나-⇒세모낳-, 네모나-⇒네모낳-'은 사물의 겉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풀-⇒푸르-'는 "묶인 것, 얽힌 것 등을 원래 상태로 하다"라는 의미적 공통점으로 인하여 감염이 일어났다. '세모나-⇒세모낳-'은 '세모나-'의 으-계 어미 결합형이 ㅎ 변칙 어간으로 재분석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활용형들 중 으-계 어미 결합형만이 재분석되어 기저형이 변하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풀-⇒푸르-' 역시 '날-(飛)⇒나르-'와 같이 재분석에 의한 변화(3.3.2.2 참조)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문제 해결" 등의 추상적 의미를 지닌 '풀-'은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분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물론 두 예 모두 재분석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된 요인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71]

(42ㄷ)의 '사흘, 마흔'은 金完鎭(1973:54～55)에서 유추로 설명된 것인데, 의미적 유사성도 관여하였겠지만 숫자나 달의 이름과 같이 병치

69) 許雄(1965)에는 이 외에도 '할미(祖母)'의 영향으로 '한아비(祖父)'가 '할아비'로 바뀌고 '옳-(是)'의 영향으로 '그르-(非)'가 '긇-'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林敬淳(1976:36)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반의어에 의한 융합형(portmanteau)이라는 용어를 썼다.

70) 경북 영주(林錫圭 1999), 문경(閔元植 1982), 월성(崔明玉 1982), 영덕(崔明玉 1980), 경남 합천(金相熙 1986), 전북 부안(김옥화 2001) 및 전남 몇 지역(이기갑 외 편 1998) 등에 '꼽-'이 보고되어 있다.

71) 金榮振(1975:144)에서는 동남 방언에서 종종 발견되는 '짭-(鹽), 씹-(苦)' 등이 "맛"의 어휘장을 구성하는 '맵-(辛), 싱겁-(淡)' 등에 유추된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에 자주 놓이는 까닭에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72] '츠-(舞)'는 동음이의어 '츠-(除)'가 전설모음화를 겪어 '치-'로 변한 것과는 달리 '추-'로 바뀌었다. 이는 늘 함께 쓰이고 있는 동족 목적어인 명사 '춤'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혹 명사 '춤'을 '추-+-음'으로 분석하여 용언 어간이 역형성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파생명사의 영향으로 용언 어간이 변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에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73]

감염은 이와 같이 한 단어가 관련이 깊은 다른 단어를 닮는 현상으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복수 기저형의 각 기저형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염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변칙 어간을 구성하는 복수의 기저형은 문법적 · 의미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일대일 대응에 가까워지도록 음운적으로도 서로 유사해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憎" 밉꼬, 밈니, 미우면, 미워 //밉-/미우-//
⇒ 미웁꼬, 미웁니, 미우면, 미워 //미웁-/미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현상은 교체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준화라고 할 수가 없다. 종래 유추의 설명을 좇아 자음어미 앞의 표면형이 /밉꼬/가 아닌 /미웁꼬/로 나타난다는 서술(許雄 1965:516)은 각각의 표면형에 대한 기저형을 밝혀야 하는 생성문법에서는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기저형의 변화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비록 한 형태소의 복수 기저형 사이의 현상이기는

72) Bloomfield(1933), Hockett(1958)에서는 이러한 감염을 '원거리 동화(distant assimilation)'의 특별한 예라 하고 있다.

73) '오라-(久)⇒오래-' 역시 파생부사 '오래'로부터의 역형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자동사의 '놀라-(驚)⇒놀래-', 형용사의 '놀나-⇒놀내-' 등과 같이 해석되는 편이 나을 듯하다(장윤희 2002ㄱ:108).

하지만 혼효나 감염 이외의 변화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영균(1985:390), 郭忠求(1994:559)에서는 이를 혼효라고 하고 있다. '미웁'이 '밉'과 '미우'를 합해 놓은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두 기저형이 하나로 합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복수 기저형의 상태라는 점이다. 즉 변화전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과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이 융합되어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 되고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은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단어들 사이의 현상에 빗대자면 동의어인 단어A, 단어B가 있고, 이 두 단어가 융합된 단어C와 단어B가 이전의 단어A, B와 같은 관계로 공존하고 단어A는 사라진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혼효된 기존의 두 단어가 모두 존재하거나 모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이 남고 하나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 (43)을 감염으로 보아,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 '밉-'이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 '미우-'와 비슷하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우-'의 잔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감염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후 두 어형의 유사성 정도가 변화 이전에 비해 커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웁-'과 '미우-'가 '밉-'과 '미우-'보다 서로 닮은 상태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나마 유사성 정도가 수치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44) 두 어형 A, B의 유사성 정도

$$\frac{\text{두 어형 공통의 분절음 수}}{\text{어형A의 분절음 수}} \times \frac{\text{두 어형 공통의 분절음 수}}{\text{어형B의 분절음 수}}$$

이 식에 따르면 '밉-'과 '미우-'의 유사성은 0.44이고 '미웁-'과 '미우-'의 유사성은 0.75로서, 변화 이후 더욱 유사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여기

고자 한다.

복수 기저형 사이에 혼효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은 곽충구(2000)에서 혼효로 설명된 체언의 예이다.

(45) "木" 나무, 나무와, 낭게, 낭기, 낭글 //나무/낭ㄱ//
⇒ 낭구, 낭구와, 낭구에, 낭구가, 낭굴 //낭구//

이 경우는 두 기저형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43)에서 제기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혼효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변화의 세부적인 과정에는 감염과 평준화가 연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45′)	①	②	③	④
표면형	나무와 낭게	낭구와 낭게	낭구와 낭게~낭구에	낭구와 낭구에
기저형	나무/낭ㄱ	낭구/낭ㄱ	낭구/낭ㄱ~낭구	낭구

(45′)과 같은 단계적인 변화를 상정하였을 때, ②는 (43)과 마찬가지로 감염이라 할 것이며 ③은 ④의 평준화에 이르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①과 ④만을 보면 혼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저형이 셋일 때에 두 기저형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6) "膨" 붇:꼬, 부르면, 부러 //붇:-/부르-//
⇒ 불변 //붇:-/부르-/불-// 재분석
⇒ 붇:꼬, 불:면, 부러 //붇:-/불:-/불-// 감염
⇒ 불:고, 불:면, 부러 //불:-/불-// 평준화

첫 변화는 아-계 어미 결합형의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단모음의 어간 '불-'이 새로 생겨났다. 이후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 '부르-'는 자음어미 앞 기저형으로부터 운소 구조를, 아-계 어미 앞 기저형으로부터 음소 구조를 따와 '불:-'로 변하게 된다. 이후 평준화를 통해 장단음 교체 어간이 된다.[74]

정리하건대 감염은 문법적 · 의미적으로 관련이 깊은 단어와 단어, 또는 복수 기저형들 사이에서 한 형식이 다른 형식을 닮아 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75] 예가 많지도 않고 산발적이어서 체계적인 고찰이 쉽지는 않지만, 어휘부의 구조, 좁게는 기저형 내부의 구조를 좀더 단순하게 하려는 노력에 의한 유추 현상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3.2.2. 기저형 선택 조건의 단순화

복수 기저형에 일어나는 평준화와 감염은 기저형 자체의 변화로서 전자는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 후자는 기저형이 서로 닮는 현상이다. 이들은 한 형태소라는 문법적 · 의미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

74) 자세한 내용은 3.3.2.1에서 서술될 것이지만, 장음의 자음 어간이 으-계 어미나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모음이 짧아지는 현상을 공시적 규칙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설명이기 때문에 다소 조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변화의 설명을 공시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75) 일부 지역의 '없-⇒없-'은 복수 기저형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 기저형에서 도출된 이형태들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鄭然粲 1980:43, 郭忠求 1994:557 참조). 기억되지 않는 이형태들간의 혼효가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지만, 달리 요인을 찾기도 난감하다.

한편 '넓-(廣)'은 중세의 '너르-'와 '넙-'의 혼효일 수가 있는데, 중세 당시 '넙-'은 모든 환경에서 용례가 발견되지만 '너르-'는 아-계 어미 결합형이 근대에 들어서야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읊-(詠)', '젊:-(幼)'과 마찬가지로 '앒(前)>앞, 알프-(痛)>아프-'의 양순음 앞 ㄹ 탈락의 역현상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국소적인 변화가 그 역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 음운표시를 가능한 한 고정시키고자 하는 유추 현상이며, 그 결과 어휘부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복수 기저형은 단일 기저형과는 달리 음운표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평준화와 감염이 전자인 음운표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본절에서 다룰 변화들은 음운표시 자체는 그대로인 채 선택 조건만이 변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76] 음운표시 자체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전후하여 교체형이 변하지는 않지만, 결합하는 어간 또는 어미의 기저형이 변하게 된다.

(47) ㄱ. "氷" 얼:면, 어:니까, 얼:, 언:

⇒ 어르면, 어르니까, 어를, 어른

ㄴ. 교체의 유지

면~으면(가면~머그면), 니까~으니까(가니까~머그니까) 등

(47)과 같은 ㄹ 말음 어간의 활용이 변하는 까닭이 어간이 아닌 어미에 있음은 앞서 3.2.1.2.1에서 살폈으니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어미의 ㅡ 탈락 상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어미의 ㅡ 탈락 규칙을 두고, 모음과 유음 뒤에서 적용되던 이 규칙이 모음 뒤에서만 적용됨으로써[77] 유음 어간과의 결합에서는 (47)과 같이 ㅡ가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미의 ㅡ 탈락 규칙을 상정하지 않고 으-계 어미를 '-으X/-X'의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하여,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선택되던 '-으X'가 ㄹ도 포함

76) 예컨대 'A/B⇒A'의 평준화를 'A(환경 a)/B(환경 b)'에서 'A(환경 a, b)/B(환경 ∅)'로의 변화라고 본다면 이 역시 기저형 선택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 이후 실현 환경을 지니지 못한 B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 초점을 둔다면 기저형의 감소로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77) 이렇게 본다면 규칙(48ㄱ)에 요구되는 자질은 [+voc]에서 [+voc, -cons]으로 늘어나 규칙이 복잡해진다.

한 모든 자음 뒤에서 선택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음과 ㄹ 뒤에서 어미의 ㅡ가 탈락하는 현상은 활용과 일부 곡용이라는 형태론적 조건 하에서 일어난다.[78] 또한 이 규칙은 공존하는 '마음(心)~맘:' 혹은 ㅅ 변칙 용언이나 ㅎ 말음 용언의 활용형 '지으니(作)~지:니, 노으니(放)~노:니'에서의 ㅡ 탈락과 비교해 볼 때 필수적으로 적용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놓-+-으니→노으니→노:니'와 비교해 볼 때 '나-(出)+-으니→나니'는 음절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모음화도 수반되지 않는다.[79]

형태론적인 조건이 요구된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전혀 발음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모음 및 ㄹ과 ㅡ의 연쇄에 대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아울러 '마음' 등의 형태소 내부에 적용된 음변화, '지으니, 노으니' 등의 활용형에 적용된 규칙과는 달리 보상적 장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어미의 ㅡ 탈락은 음운규칙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형태론적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이라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규칙적인 교체를 초래하는 규칙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태음운규칙도 형태음운론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ㅡ 탈락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姜昶錫 1982). 한 예로 유음탈락(ㄴ 앞의 동기관적 이화)과의 관계를 들어 보자.

(48) ㄱ. ㅡ → ø / [+voc]]v.st. + ___]ending

ㄴ. ㄹ → ø / ___]v.st. + ㄴ]ending ex. 알:-(知)+-는→아:는

ㄷ. ㄴ → ㄹ / ㄹ ___ ex. 앓-(患)+-는→알는→알른. 갈##남자→갈람자

78) 일부 곡용이라고 한 것은 '무(菁)+-은→문'과는 달리 '물(水)+-은→물은'에서는 ㅡ가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79) 모음탈락과 보상적 장모음화,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李秉根(1978), 韓榮均(1988)이 좋은 참고가 된다.

(48ㄴ)의 유음탈락을 규칙으로 상정하지 않고 ㄹ 말음 어간의 기저형을 '알:-/아:-'처럼 복수로 설정하는 방법(崔明玉 1993:19)도 있지만, ㄹ 말음 어간이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유음탈락은 비록 음운규칙은 아닐지라도 형태음운규칙으로서 손색이 없다. (48ㄷ)의 유음화와 비교해 보면 유음탈락은 ㄹ로 끝나는 용언과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에서만 적용되는 반면, 유음화는 어떠한 문법적 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앓-+-는'에서 자음군이 단순화된 /알는/에 유음탈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ㄴ 앞의 ㄹ이 어간 말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음탈락과 어미의 ㅡ 탈락은 다음의 경우 충돌을 일으킨다.

(49) ㄱ. 알:-+-으니 —(ㅡ탈락)→ 알:니 —(유음화)→ *알:리

ㄱ'. 알:-+-으니 —(*유음탈락)→ *아:으니

ㄴ. 알:-+-니 —(유음탈락)→ 아:니

'알:-+-으니'는 용언 어간 말음이 ㄹ이고 어미 두음이 ㅡ이기 때문에 ㅡ 탈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미가 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ㅡ로 시작하기 때문에 (49ㄱ')에서 보듯 유음탈락은 적용될 수가 없다. 반면 (49ㄱ)처럼 ㅡ 탈락이 적용된다면 이로 인해 도출된 /알:니/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유음탈락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는 도출된 /알:니/에 아직 형태론적 구성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연쇄 속의 ㄴ이 어미 두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니/는 음운규칙인 유음화가 적용되어 /알:리/로 도출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예. 앓-+-니→알니→알리). 이와는 달리 (49ㄴ)은 의문종결어미의 두음이 ㄴ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유음탈락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유음탈락과 어미의 ㅡ 탈락을 모두 규칙으로 상정한 문법은 '알:-+-으니'로부터 /아:니/가 도출됨을 올바로 기술할 수가 없다. 따

라서 어느 한 쪽만을 취하든가 둘 모두를 버려야 할 것인데, 둘 모두 매우 규칙적인 현상인 이상 둘 모두를 버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유음탈락만을 규칙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우선 유음탈락은 음운배열제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발음될 수 없는 ㄹㄴ 연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ㄹㄴ 연쇄를 피하기 위한 방안에 음운규칙인 유음화가 있다고 하여, 유음탈락이 음운제약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ㅡ 탈락의 경우도 음운배열제약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발음이 불가능한 ㄹㄴ 연쇄와는 달리 모음과 모음의 연쇄는 회피의 대상일 뿐 발음이 불가능한 연쇄는 아니다. 이러한 제약의 차이는 규칙의 적용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발음 불가능한 연쇄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연쇄에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음탈락이 필수적으로 적용됨은 전자의 예로 여길 수 있지만, ㅡ 탈락이 필수적으로 적용됨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유음탈락을 규칙으로 상정하지 않고 ㄹ 말음 어간을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면, 자동적 교체를 복수 기저형으로 서술하는 셈이 된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ㄹㄴ이라는 발음 불가능한 연쇄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음탈락에 의한 교체는 자동적 교체라 할 것인데, 이처럼 자동적 교체가 규칙이 아닌 기저형 차원에서 기술되는 경우는 달리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어미의 ㅡ 탈락을 규칙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47)은 '-으X'과 '-X'의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된 으-계 어미(姜昶錫 1982, 金星奎 1988 참조)의 기저형 선택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한 것이라 서술될 것이다.

(47′) -으X : [+cons, -voc] 뒤 ⇒ [+cons] 뒤
-X : [+voc] 뒤 ⇒ [-cons] 뒤

변화 이전에는 '-으X'와 결합하는 자음들 중 ㄹ을 제외하기 위해 [-voc]도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변화 이후에는 ㄹ을 포함한 모든 자음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결국 기저형 선택 조건에 요구되는 자질의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기저형 나아가 어휘부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이해된다.[80]

한편 으-계 어미 중에서 '-(으)시-'는 중세 국어부터 여느 어미들과는 달리 ㄹ 말음 어간 뒤에서도 '-으시-'가 결합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으-계 어미들과 똑같이 ㄹ 말음 어간 뒤에서 '-으시-'가 결합하기도 하고 '-시-'가 결합하기도 한다.

(50) "生"	사ᄅᆞ시면		사르시면		사:시면
-으시-	[+cons] 뒤	⇒	[+cons] 뒤	~	[+cons, -voc] 뒤
-시-	[-cons] 뒤		[-cons] 뒤		[+voc] 뒤

/사르시면/의 경우 어미의 기저형 선택 조건은 변화가 없지만 /사:시면/을 위한 어미의 기저형 선택 조건은 보다 복잡해졌다. 그러나 여타 으-계 어미들과 같은 방식의 교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저형 선택 조건이 여타 어미들과 달라 으-계 어미의 부류 속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던 어미가, 그 선택 조건이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여타 부류들과 완전히 함께 묶일 수 있도록 (47′)과 같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더 단순한 상태를 지향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으-계 어미뿐만 아니라 아-계 어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80) [vocalic] 대신에 [syllabic]을 설정한 음운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순수자음은 [+cons, -syll, αson, αnasal], 유음과 모음을 합하면 [αcons, -αsyll, +son, -nas]인 반면 유음을 포함한 자음은 [+cons, -syll], 모음은 [+syll]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51) ㄱ. -아X : 양성모음 뒤

-어X : 그 밖

예) 살-+-아, 다ᄃᆞᆷ-+-아, 가도-+-아, 거두-+-어

ㄴ. -아X : 양성모음 또는 양성모음—음성모음 뒤

-어X : 그 밖

예) 살-+-아, 다듬-+-아, 가두-+-아, 거두-+-어

ㄷ. -아X : 양성모음 뒤[81]

-어X : 그 밖

예) 살-+-아, 다듬-+-어, 가두-+-어, 거두-+-어

(51ㄱ)은 중세 국어의 정연한 모음조화를 보여 준다. ㆍ가 음운으로 존재하던 시기였으므로 ㆍ, ㅏ, ㅗ가 설축의 자연부류로 묶이어,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조화를 보였다. (51ㄴ)은 'ㆍ>ㅡ', 'ㅗ>ㅜ'에 의해 어간 내부의 모음조화가 깨진 시기이다. 2음절 어간의 경우 어간말 음절 모음이 ㅡ, ㅜ이어도 제1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아X'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郭忠求 1980:96). 표면형 /다ᄃᆞᆷX, 가도X/에 음변화가 일어나 /다듬X, 가두X/가 된다고 해서 이에 결합하는 아-계 어미까지 바로 '-아X'에서 '-어X'로 바뀌지는 않는다(다ᄃᆞ마>다드마, 가도아>가두아). 음변화로 인하여 양성모음 ㅗ가 음성모음 ㅜ로 바뀌었지만 음변화 자체가 '음성모음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51ㄴ)의 상태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데(崔明玉 1992ㄴ:61~3), 이전에 양성모음 뒤에서 '-아X'가 선택되던 기저형 선택 조건은 이제 달라지게 된다. '양성모음—음성모음'으로 이루어진 어간이 새로이 생겼고, 여기에도 '-아X'가 결합함을 밝히기 위해 선택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

81) '담그-(漬), 따르-(從/注), 모으-(集)'와 같이 어간말 모음을 제외하고는 양성모음으로 구성된 ㅡ 말음 어간들에도 '-아X'가 결합된다. '낟:-/나으-(癒/勝), 다르-/다르-(異)' 등 변칙 어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51ㄱ)에 비해 기저형 선택 조건이 조잡해졌는데, 음변화가 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음변화로 인하여 혼란스러워진 문법은 흔히 유추에 의해 정연해진다고 한다. 이 경우 유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51ㄴ)과 같이 복잡해진 기저형 선택 조건을 다시 (51ㄱ)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51ㄷ)으로의 변화가 그와 비슷한 것이다. 물론 (51ㄱ)과 (51ㄷ)의 기저형 선택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자는 ㆍ, ㅏ, ㅗ가 '舌縮'의 자연부류로 묶여 있는 반면, ㆍ가 소실되고 전후 대립의 모음체계가 정립된 상황에서 후자의 양성모음이란 자연부류가 아니라 단순히 ㅏ와 ㅗ를 묶어 놓은 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음절 어간의 두 음절 모음을 모두 살펴야 했던 (51ㄴ)에 비해서는 어간말 음절만 고려하면 되는 (51ㄷ)이 보다 단순화된 상태라고 할 수는 있다.

(51ㄷ)에서 '-아X'가 선택되는 조건을 엄밀히 '어간말 음절 모음이 ㅏ 또는 ㅗ일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의 서울말은 여기에서 한층 단순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51′) -아X : ㅗ 뒤
　　　-어X : 그 밖
　　　　　예) 받아(受) ⇒ 받어, 달라(異) ⇒ 달러　cf. 녹아(溶), 골라(選)

이처럼 어간의 모음이 ㅏ일 때 '-어X'가 결합하는 현상은 19세기 후기에도 중부 방언에 약간은 존재하였다(崔明玉 1992ㄴ:72).[82] ㅏ와 ㅗ의 집합은 분절음의 단순한 나열일 뿐 자연부류를 이루지는 못하는바, (51′)은 기저형 선택 조건에서 그러한 분절음 하나를 덜어내어 어휘부의

82) ㅏ 말음 어간이 문제가 된다. (51′)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선택된 어미는 '-어X'이고 어미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부담을 줄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기저형 선택 조건의 변화는 모두 어미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어간의 기저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필재(2001)은 서울말에서 ㅂ 변칙과 ㅅ 변칙, ㅎ 말음 어간이 다음과 같은 공존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52) ㄱ. "補" 깁:는다~기운다 cf. 깁:꼬, 깁:는, 기운, 기워
"劃" 근:는다~근:다 cf. 긋:꼬, 근:는, 근:, 그어
ㄴ. "積" 싼:는다~싼:다, 쌉:씀니다~쌈:니다
cf. 싸:코, 싼:는, 싸은~싼:, 싸아~싸:

(52ㄱ)의 어간은 각각 '깁:-/기우-'와 '긋:-/그:-' 정도의 복수 기저형으로 서술될 수 있다. 만일 /기운다, 근:다/ 이외에 /기우고, 기우는, 그:고, 그:는/ 등의 활용형이 쓰이고 있다면 기저형이 '기우-', '그:-'로 완전히 평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서울말의 경우 /깁:는다, 근:는다/가 /기운다, 근:다/와 공존하고 있을 뿐이다. (52ㄴ)은 ㅎ 말음 어간의 경우인데, 3.3.2.1에서 논의될 바와 같이 단일 기저형인 '쌓-'에서 재분석을 통해 '쌓:-(자음어미 앞)/싸:-(그 밖)'으로 변한 이후 '싸:-'가 일부 자음어미와 결합하여 /싼:다, 쌈:니다/가 종종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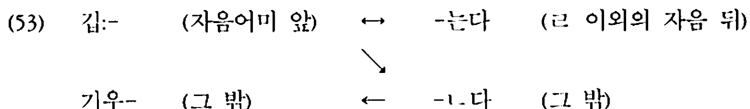
/기운다/류는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새로 나타난 어형이 이전의 어형 /깁:는다/와 함께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형태들 간의 분포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깁:-/기우-'를 예로 하여 보자.

(52′) /깁:/	(장애음어미 앞)		/깁:/	(장애음어미 앞)
/김:/	(비음어미 앞)	⇒	/김:/	('-ㄴ다/-는다'를 제외한 비음어미 앞)
/기우/	(으-계 어미 앞)		/기우/	(으-계 어미, '-ㄴ다/-는다' 등 앞)

/기w/ (아-계 어미 앞)　　/기w/ (아-계 어미 앞)

/깁:/의 실현 환경 중 일부에서 /기우/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형태의 분포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현상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평준화에 이르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미이다. (52)에 결합되어 있는 '-는다(ㄹ 이외의 자음 뒤)/-ㄴ다(그 밖)'는 '-씀니다/-ㅁ니다' 등과 더불어 자음으로 시작하면서도 복수 기저형을 지니는 어미이다. 여타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 두 어미만이 지니고 있는 공통 특성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변화 이전 '깁:-/기우-'에 이들 어미가 결합되는 선택 과정을 金星奎(1988)의 도식을 빌려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깁:-'은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기 때문에 '-는다'와 '-ㄴ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기우-'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 '-는다'는 ㄹ 이외의 자음 뒤의 기저형이기 때문에 '깁:-'을 선택하는 반면 '-ㄴ다'는 그 밖의 경우이므로 '기우-'를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쌍방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은 '깁:-'과 '-는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하여 /깁:는다/만이 도출된다.

한편 '-ㄴ다'가 이미 '기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기우-'가 '-ㄴ다'를 선택할 수만 있으면 /기운다/가 도출될 것이다. 이미 '기우-'가 선택되는 조건이던 으-계 어미 및 아-계 어미와 새로이 결합하는 '-ㄴ다'가

지니는 공통점은 복수 기저형을 지닌 어미라는 점이다.

(53′) 깁:- (그 밖) ← -는다 (ㄹ 이외의 자음 뒤)
↗
기우- (복수 기저형 어미 앞) ↔ -ㄴ다 (그 밖)

(53)과 (53′)을 비교해 보면 어간의 기저형 선택 조건에 서술된 환경이 '자음어미 앞'에서 '복수 기저형 어미 앞'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83]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으며, 어휘부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 변화 역시 어휘부의 최적화를 위하여 선택 조건이 단순해진 것이라 보는데, 그 이유는 자음어미보다 복수 기저형 어미의 부류가 더 상위의 것이라는 점이다.

어미를 음운론적 관점에서 분류할 때에 그 두음의 성격만으로는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만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나눈다면, '-고' 등의 자음어미와 '-어/-아' 등의 아-계 어미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으면/과 /면/ 등으로 실현되는 으-계 어미는 어느 쪽으로도 분류될 수가 없다.[84] 따라서 두음의 성격 즉 음운론적인 면과 함께 교체의 양상 즉 형태론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흔히 자음어미, 으-계 어미, 아-계 어미로 분류하고는 한다. 대체적인 활용 양상이 이들 세 부류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한편 어미를 형태론적으로 분류한다면 그 교체의 양상에 따라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단일 기저형 어미와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복수 기

---

83) '복수 기저형 어미 앞'은 물론이거니와 '자음어미 앞'도 순수히 음운론적인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84) 기저형을 '-으X'라고 한다면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ㅡ 탈락 규칙을 전제한 것이다.

저형 어미로 나뉠 것이다. 이 분류는 단지 형태론뿐만이 아니라 어휘부 구조와도 관련될 수 있다.

기준	① 음운론적	② 음운론적·형태론적	③ 형태론적·어휘론적
분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어미	단일 기저형 어미
	?	으-계 어미	복수 기저형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계 어미	

문법적인 단위인 어미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준②에 따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기준③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은 기준의 상하위 관계에 걸맞지 않는다. 단일 기저형 어미와 복수 기저형 어미의 구분이 서술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상위의 기준③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하위의 기준②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미는 우선 단일 기저형 어미와 복수 기저형 어미로 나뉘고 후자가 다시 셋으로 나뉘게 된다.

이로써 '자음어미'와 '복수 기저형 어미'의 위계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마치 음운의 대부류(자음, 모음, 활음 등)와 그 하위 부류의 관계와도 같이 '자음어미'보다는 '복수 기저형 어미'가 일반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53)에서 (53′)로의 변화 역시 어휘부를 너욱 가볍게 만드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3. 용언 어간 구조 조건

평준화, 기저형 선택 조건의 변화, 복수 기저형 사이의 감염은 모두 한 단어 내적인 통일성이나 경제성을 지향한 변화인 반면, '세모나-⇒세모낳-' 등 단어 사이의 감염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즉 어휘부에서 단

어와 단어가 이루고 있는 부류의 통일성을 지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 다루게 될 변화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서, 용언(세부적으로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의 기저형들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음상적 성향이 있고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을 줄임으로써 부류를 정연하게 하려는 노력에 의한 변화이다.[85]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란 형태소 구조 조건의 하위 부류로서 용언 어간의 기저형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음운 구조상의 특성을 가리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ㄹㄷ 연쇄가 어떠한 형태소의 내부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형태소 구조 조건이라면, 체언과는 달리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없다든지, ㅓ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희소하다든지 하는 것은 형태소 구조 조건의 하위 부류로서의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태소 구조 조건이 문법 서술에서 이와 같은 뜻으로 응용되어 오지는 않았다. 용언 어간 구조 조건에 의한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그 상위의 개념인 형태소 구조 조건이 생성문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Halle(1959, 1962)를 비롯한 초기 생성음운론의 도출은 형태소 구조 규칙(morpheme structure rule)과 음운론적 규칙(phonological rule)이라는 두 개념적 도구에 의해 서술되었다. 형태소 구조 규칙은 형태소 내부의 분절음 또는 그들의 연쇄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을 어휘부 내에서는 빈칸으로 두고 도출 시 그 빈칸을 채우는 기능을 하였고, 음운론적 규칙은 이렇게 해서 도출된 체계음운표시 또는 형태음운표시를 음성표시로 사상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두 규칙은 이전 문법의 음소배열론(phonotactics)을 대신하게 되었다(Postal 1968:214).

---

85) 반의어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는 감염과는 달리 용언 어간 구조 조건에 의한 변화에는 의미적인 유사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형태소 구조 규칙의 개념은 이후 Stanley(1967)에서 보다 정밀하게 정립되었다. 그는 Halle(1959)가 분절음 연쇄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을 분절음 구조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전의 형태소 구조 규칙이 잉여성 규칙이었음에도 그 사실이 강조되지 않은 채 사상의 기능을 하는 전체 음운규칙의 일부로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Stanley 1967:396, 400),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상 기능을 가진 것에 한정함으로써 형태소 구조 규칙 대신 형태소 구조 조건(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후 Shibatani(1973)은 형태소 구조 조건과 음운규칙 사이의 구분 및 중복 서술 문제에 대해서, 음성층위의 잉여성을 서술했다고 할 표면 음성 제약(surface phonetic constraint)을 제안하고 형태소 구조 조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M/SPC로, 이 중 교체규칙과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A/M/SPC로 구분하였다. 그가 순수한 형태소 구조 조건으로 든 예는 영어에서 "모음은 [-nasal]이다." 정도였는데, 이는 'camp, lent' 등의 모음이 음성층위에서 비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표면 음성 제약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었다. 형태소 구조 조건이 음성층위로부터 벗어나게 된 셈이다.

표면 음성 제약의 출현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문법 내에서의 지위가 한층 위축된 형태소 구조 조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체계음운층위와 음성층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던 자연생성음운론에 의해서 거의 도태되기에 이른다. 그들이 중요시한 표면 제약에 밀려 추상적 층위의 잉여성을 서술한 형태소 구조 조건은 공시 문법 내의 역할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위축은 형태소 구조 조건이 형태소에 관련된 것임에도 그 점이 강조되지 못한 채 음운부에서 다루어진 문법 기술 태도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음운론에서 형태소가 문법적인 단위, 어휘부의 저장 단위로서 인식되기보다는 단지 음운부에 입력되는 음연쇄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음운층위의 제약

과 상충되어 문법에서 밀려난 것이다. 음운층위를 지배하는 제약이 형태소 및 이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휘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86] 따라서 음운제약이나 규칙은 형태소의 음운 구조와 무관하며, 형태소가 음운부에 입력된 이후에 비로소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태소 음운구조의 성격 또는 경향이 바로 형태소 구조 조건이라 할 것이다.[87] 예컨대 15세기 국어에 ㄹ과 설음・치음의 평음 연쇄가 형태소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든가(졸고 1997:31~32), 현대 국어에 ㄷㅃ의 연쇄가 형태소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배주채 1989:19~21)은 비록 형태소 구조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정 방언에 국한되어 서술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품사에 국한되어 서술되기도 해 온 이러한 방식의 진술은 부정적 조건명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건 진술의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경제성이나 진술된 부류의 자연성 등에 따라 방식이 선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소 구조 조건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둘 수는 없다. 다만 형태소 내부에 다채로운 음운 구조가 존재하고, 음운제약과 무관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음운 구조는 소수라는 점에서 부정적 형식을 띨 가능성이 많을 뿐이다.

또한 형태소 구조 조건은 형태소 내부에 특정한 음운 구조가 존재한다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분법적 서술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

---

86)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형태소 구조 조건은 음운제약이나 음운규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태소 내부에 폐쇄음-비음의 연쇄가 없다는 이유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형태소 내부에 ㄹㄷ 연쇄가 없다고 해서 /살더라(살-+-더라)/가 발음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87) 형태소 구조 조건에는 문법적인 개념인 형태소가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음운층위와는 별도의 형태음운층위, 형태음운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서술될 수 있다. 형태소 구조 조건을 '형태음운 배열 제약(morphphoneme sequential constraint)'이라고 하기 위해 별도의 단위인 형태음운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

다. 음운제약의 경우에도 절대로 불가능한 연쇄가 있는 한편 선호되는 또는 피하려는 연쇄가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정도성을 지닌 제약에 의해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형태소 구조 조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르'로 끝나는 형태소는 용언의 몇몇 르 정칙 어간들만이 있을 뿐 매우 드문데, 이러한 사실도 형태소 구조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형태소 구조 조건은 품사에 따른 하위 분류도 가능해 보인다. 체언의 어간 말음이 ㄷ인 경우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배주채(1989:20)에서는 특정한 형태소 부류에만 유효한 형태소 구조 조건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어간 말음만을 볼 때, 이 외에도 체언에만 해당되는 형태소 구조 조건은 ㅡ나 ㅎ, ㅆ, ㄾ, ㄿ 등으로 끝나는 어간이 없다는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88] 또한 ㅂ 변칙이나 ㅅ 변칙 등도 체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용언의 경우도 체언에는 허용되는 ㅇ, ㄳ 말음 어간이 없다든지 정칙의 르 말음 어간이 매우 적다든지 하는 등의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용언 어간에만 해당되는 형태소 구조 조건을 바로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은 다시 동사에만 해당되는 것과 형용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ㅂ 변칙 어간은 소수의 1음절 어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용사라든가, ㅗ나 ㅜ로 끝나는 어간은 모두 동사라든가 하는 서술도 가능한 것이다.[89]

그렇다면 형태소 구조 조건은 문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떠한 음운 구조의 존재 여부 또는 선호도가 문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88) ㅡ로 끝나는 고유어 체언에 예외적으로 대명사 '그(彼)'가 있다.

89) 품사에 따른 하위 분류 이외에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등에 따른 형태소 구조 조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어 형태소 및 한자어에는 ㄹ과 [-grave]의 평음 연쇄가 없지만 외래어인 '필드(field)' 등에는 존재한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국어의 형태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굳이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형태소 구조 조건은 공시론적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진호(2002:46)에서는 기저형을 설정하는 공시론적 기술에서 형태소 구조 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르 변칙 'ᄒᆞ르-'의 복수 기저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음 앞의 'ᄒᆞ르-'와 함께 모음 앞의 기저형을 'ᄒᆞᇐ-'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동일 자음이 연속된 자음군 어간은 없다는 형태소 구조 조건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표면에 실현될 때에는 언제나 ㅡ 탈락을 겪음으로써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ᄒᆞᆯ르-'를 모음 앞의 기저형으로 설정한 것이다.

형태소 구조 조건의 역동적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어변화에서이다. 許雄(1965:517)에서는 '바ᄅᆞ>바로'에 대해서 같은 부류의 파생부사 'ᄀᆞ초, ᄌᆞ조, 너무, 비르소, 골오' 등과의 결속이 약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맜-(任)⇒맡-'에 대한 이진호(1997:60~61)에서의 설명도 형태소 구조 조건을 변화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90]

언어차용에도 형태소 구조 조건은 관여한다. 차용어가 해당 언어의 형태소 구조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했던 주장(Hyman 1970)은 비록 Shibatani(1973)에서 표면 음성 제약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경우의 형태소 구조 조건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국어의 두 차용어 '힌트(hint)'와 '인터넷(internet)'은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 '힌트'는 음절말에서 두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음운제약에 의해 모음이 첨가된 것으로서 형태소 구조 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할

90) 어간 말음 ㅼ이 ㄸ으로 변하였으되 기존의 ㄸ 말음 어간이 없다는 이유로 ㅌ 말음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헌 자료의 '갓플, 갓블(阿膠 갓#플)', '숨ᄭᅵ-, 숨키-(呑)'나 '식브-(欲)'에서 '싶-'으로의 변화, 전남 담양과 광양(이기갑 외 편 1998)의 '가ᄑᆞ-(勞 <ᄀᆞᆽᄇᆞ-)' 등을 보면 음운사적 이유가 없다고만은 하지 못할 듯하다. 한편 전남 고흥(배주채 1998)에서는 '맡-(任)'이 '마ᄯᅳ-'로 실현되어 '마트-(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것이다. 오히려 고유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ㅡ 말음의 체언이 새로이 생겨난 셈이다. 반면 '인터넷'은 '힌트'와는 달리 말음인 t가 종성으로 발음될 수 있고, /인터넨만, 인터네든, 인터네들/과 같은 곡용형도 어떠한 음운제약을 거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ㅅ 말음으로 차용된 것으로서 체언 어간말 ㄷ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태소 구조 조건에 의해 변화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용언 어간에만 해당되는 형태소 구조 조건 즉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 구체적으로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 단독으로 어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다른 주된 요인과 더불어 변화를 이끌거나,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저지하는 등의 소극적인 작용이 대부분이다.

ㅓ 말음 어간

ㅏ 말음 어간은 수도 많으며 선행음에도 특별한 제약을 보이지 않고 고루 나타나지만, ㅓ 말음 어간은 '서-(立), 켜-(點火/鋸/伸), 펴-(伸), 건너-(渡)'가 전부인 듯하다. '서-'는 '셔-'에서 변하였고, '건너-'는 기원적으로 합성어였음을 보면 ㅓ 말음 어간은 모두 ㅕ 말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 건너-'는 '스-, 건느-'로, '켜-, 펴-'는 '키-, 피-'로 변하였기 때문에 현재 서울말에 ㅓ 말음의 어간은 없어졌다.

'서-'와 '건너-'의 변화는 후술할 바와 같이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ㅓ 말음 어간의 수가 워낙 적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도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 약간은 관여하지 않았나 한다. 재분석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아-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이 모두 같은 어간으로 분석될 때에 잘 일어나는 데에 반해, '서-'와 '건너-'에서 재분석에 의해 형성된 '스-, 건느-'는 아-계 어미 결합형만을 재분석했음에도 많은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다.[91] 재분석이 주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ㅓ 말음 어간이 너무 적다는 사실도 다른 형식의 어간으로의 변화에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켜-'와 '펴-'의 변화는 재분석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다. 이들의 아-계 어미 결합형 /켜, 펴/는 단모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키-+-어, 피-+-어'로 분석될 수가 없다. 가상의 활용 '키-+-어, 피-+-어'의 결과는 활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에 의해 장음의 /켜:, 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오분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ㅓ로 끝나는 어간이 매우 적다는 사실 또는 XjV-의 구조를 지닌 용언 어간이 없다는 사실이 활용형을 잘못 분석하게까지 압력을 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은 가능하다.[92]

ㅗ, ㅜ 말음 어간

ㅗ 말음 어간은 현재 1음절 어간만이 있으며, 과거 2음절 이상의 ㅗ 말음 어간은 비어두 'ㅗ>ㅜ' 변화에 의해 어간말 모음이 모두 ㅜ로 바뀌었다. ㅗ와 ㅜ로 끝나는 어간은 모두 동사인데, 단 하나의 예외적인 존재도 없이 품사의 편중을 보이는 경우는 이 밖에 없는 줄로 안다.

중세 어형 '계우-(不勝)'에서 현대의 '겹:-/겨우-'로의 변화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우-'는 다음과 같이 타동사와 형용사를 넘나들며 쓰이다가 이후 형용사로만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54) ㄱ. 那乾訶羅國이 毒龍羅刹올 계워 方攘앳 術이 솟절업더니 <月印千江之曲 上66ㄴ>

91) ㅓ와 ㅡ가 구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재분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92) 『자료집』에 따르면, 경남 중부를 중심으로 한 영남 중서부 지역에서는 ㅜ 말음 어간이 ㅓ 말음으로 변한 예들을 찾을 수 있다(예. 꾸-(夢/借)⇒꺼-, 두-(桊)⇒떠-, 쑤-(粥)⇒써- 등). 이들은 아-계 어미 결합형 예컨대 /꺼(←꿔←꾸-+-어)/를 '꺼-+-어'로 재분석한 결과라 생각된다. ㅡ와 ㅓ가 구분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굳이 ㅓ 말음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ㄴ. 두 兄弟 뫼 하건마른 藥이 하늘 계우니 아바님 지ᄒᆞ신 일훔 엇더ᄒᆞ시니 <龍飛御天歌 9:43ㄱ>

'계우-'에서 '겹:-/겨우-'로의 변화를 음변화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자음어미 결합형 /계우X/에 ㅂ이 삽입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음변화는 국어에 없는 줄로 안다. 단일 기저형이 복수 기저형으로 변하였으므로 평준화나 감염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계우고, 계우면, 계워/를 어떻게 분석하든 ㅂ 말음의 기저형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재분석에 의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가장 개연성이 있는 설명은, ㅂ 변칙 어간과 유사한 활용을 보이기에 그에 유추되어 ㅂ 변칙어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계우-'의 으-계 어미 · 아-계 어미 결합형 /계우면, 계워/가 ㅂ 변칙 어간, 예컨대 '덥:-(暑)'의 활용형 /더우면, 더워/와 유사하다는 점에 이끌리어 자음어미 결합형도 /겝: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첫째는 유추가 형식적 유사성에 이끌리어 형식적 유사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계우-'가 '덥:-' 등의 ㅂ 변칙 어간들과 지니는 공통점은 일부 활용형들이 비슷하다는 점뿐이다. 앞서 좁게 정의 내린 유추의 개념에도 맞지 않으며, 그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계우-'가 그 형식 그대로 남아 있지 못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형식적 유사성으로 인해 정칙 어간이 변칙 어간으로 변한 예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55) ㄱ. "從" //따르-// /따르고, 따르면, 따라/
⇒ //*딸:-/따르-// /*딸:꼬, 따르면, 따라/
cf. "步" //걷:-/거르-// /걷:꼬, 거르면, 거러/
ㄴ. "除" //치:-// /치:고, 치:면, 처:/

⇒ //ˣ칟:-/치:-// /ˣ칟:고, 치:면, 처:/

cf. "作" //짇:-/지:-// /짇:꼬, 지:면, 저:/

(55ㄱ)의 르 정칙 어간은 ㄷ 변칙 어간과 일부 활용형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ㄷ 변칙 어간으로 변하지 않았고, (55ㄴ)은 ㅣ: 말음 어간은 ㅅ 변칙 어간으로 변하지 않았다. 물론 이를 두고 각 단어가 저마다의 역사를 갖기 때문이라고 논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칙 어간이 변칙 어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형태론적으로나 어휘론적으로나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부 형식적인 유사성만으로 이루어지면서도 흡사한 다른 경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셋째,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있는 '싸우-(爭), 배우-(學)' 등이 함께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 역시 으-계 어미·아-계 어미 결합형이 /X우Y, X워Y/로 실현되어 ㅂ 변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ˣ쌉:-/싸우-, ˣ뱁:-/배우-'로 변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도 물론 '계우-'만이 겪은 독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음운론적 조건임에도 특별한 변화를 겪는 이유가 '계우-'만이 지니는 특성에 있음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편의 설명이 더 나으리라 생각된다.

굳이 유추의 개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55)의 예로 보아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정칙 어간이 변칙 어간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또한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있는 '싸우-' 등이 변하지 않음은 초점이 음운론적인 면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계우-'가 ㅜ로 끝나는 유일한 형용사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즉 '계우-' 하나를 제외한 모든 ㅜ 말음 어간이 동사라는 사실이 압력이 되어 어떠한 식으로든 어간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싸우-, 배우-' 등은 동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압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93]

'계우-'가 선택할 수 있던 어간 구조 중에서 가장 옛 형태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이 ㅂ 변칙이다. 활용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으-계 어미·아-계 어미 결합형이 ㅂ 변칙 어간의 활용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변칙 어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르-, 치:-' 등의 동사는 이에 발맞추어 변칙 어간으로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계우-'에서 ㅂ 변칙 '겹:-'으로의 변화는 ㅜ로 끝나는 형용사가 없다는 어휘부의 압력을 받아 가장 비슷한 패러다임을 보이는 ㅂ 변칙으로 변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ㅗ, ㅜ 말음 어간이 동사뿐이라는 사실은 평준화를 저지하기도 한다. ㅂ 변칙 중 소수의 동사인 '돕:-/도우-, 눕:-/누우-, 깁:-/기우-' 등은 여러 지역에서 '도우-, 누우-, 기우-' 등으로 평준화된 예를 찾을 수 있지만, 형용사인 '곱:-/고우-, 덥:-/더우-, 밉-/미우-' 등은 감염에 의해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 '고웁-, 더웁-, 미웁-' 등으로만 나타날 뿐 '고우-, 더우-, 미우-'로의 평준화는 겪지 않았다. 이들에 평준화가 일어났다면 ㅜ 말음 어간 중 예외적인 형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ㅡ 말음 어간

ㅡ 말음 어간은 ㅡ의 선행 자음에 제약이 심하여, 대부분이 '끄-(消), 뜨-(浮), 쓰-(苦/冠/書), 크-(大), 고프-(飢)' 등과 같이 ㅡ 앞에 경음·격음이 온다. '당그-(漬), 싱그-(植)'는 기원적으로 비자동적인 교체를 하던 어간들이며 현재에는 초성 또는 선행음절의 종성이었던 ㅁ의 영향으로 '당구-, 싱구-' 등으로도 쓰이고 있다. '뫼호-(集)'에서 변한 표준어의 '모으-'는 '모:-'로 쓰이고 있고, 중세 어형 '고으-(煎)'는 현재 '고:-'로

93) 경북 영덕(崔明玉 1980)의 ㅂ 변칙 어간 '비:잡-(狹)'은 정칙의 '비좁-'으로부터 변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동사가 ㅂ 변칙으로 변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鄭承喆 1988)에서는 '싸우-, 거두-'가 ㅂ 변칙의 '쌉-~싸웁-, 거둡-'으로 실현되기도 하며, 서남 방언에서는 '고:-'가 ㅂ 변칙의 '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ㅂ 변칙 어간이 모두 형용사는 아닌 것이다.

쓰이고 있다. 르 정칙의 '따르-(從/注)', '치르-(驗)'는 극소수이며, 'X르-/Xㄹ르-'의 기저형을 지닌 르 변칙 어간은 무수히 많다.

르 정칙 어간이 매우 적다는 사실은 서남 방언에서 ㄷ 변칙의 '긷:-(汲)'이 르 변칙의 '지르-/질르-' 나아가 '질르-'로 재구조화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옥화(2001:98)에서는 전북 부안에서 공존하는 어형인 '짊-'에 ㅡ가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싫-' 등의 여타 ㄹㅎ 말음 어간 또는 '길ㅎ(道)' 등의 ㅎ 종성 체언에 그러한 첨가를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르 정칙에서 나아가 변칙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음변화라고는 하기 어렵다.

우선 평준화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말에서 '다닫-/다다르-(達)'가 '다다르-'로, '겯:-/겨르-(染)'가 '겨르-'로 평준화되고, 경기지역어(李秉根 1970:51)에서 '깨닫-/깨다르-(覺)'가 '깨다르-'로, '일컫-/일커르-(稱)'가 '일커르-'로 평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남 방언의 '긷:-/기르-'도 '기르-'로 평준화되었을 수 있다.

문제는 '다다르-, 겨르-'는 르 정칙으로 남아 있고, '기르-'는 르 변칙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르 정칙 어간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변칙으로 변하였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다다르-, 겨르-'는 르 정칙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만 르 정칙이 적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의 어간만이 그에 의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자 한다.[94)]

한편 자음 어간 중에서 ㅡ 말음으로의 변화가 대체로 경음·격음 말음인 '섞-(混), 덮-(覆), 핥-(舐)' 등에 한정된다는 점은 ㅡ 말음의 선행음이 거의 대부분 경음·격음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배주채(1998:87)에서는 재분석에 의한 것이긴

94) 마치 정도성의 음운제약이 수의적인 음운규칙으로 반영되는 것과도 같이 정도성의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은 몇몇 어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하되 어간을 분명히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지만, 재분석이라는 과정의 성격상 별도의 목적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평음 말음의 어간, 예컨대 '잡-(執)'의 활용형도 충분히 '자바→자브-+-아, 자브니→자브-+-니'로 재분석될 수가 있지만, 이후 평준화 결과 형성될 어간이 기존의 ㅡ 말음 어간들과는 달리 ㅡ에 선행음으로 평폐쇄음을 지닌다는 점에서 저지당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95]

또한 경북 영덕에서 경음·격음 말음 어간 중 형용사만이 ㅡ 말음으로 변하고 '덮-, 갚-' 등의 동사는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崔明玉 1980:95)도 ㅡ 말음 2음절 어간이 대부분 '나쁘-, 헤프-, 서글프-, 애달프-, 가쁘-, 고프-, 예쁘-'와 같이 형용사들이라는 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96]

3.3. 재분석

3.3.1. 새로운 어간 인식

재분석(metanalysis[97] 또는 reanalysis)은 Jespersen(1922:173)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된 바 있다.[98]

---

95) 중부 방언의 유아어에서는 간혹 이러한 어간이 발견되지만, 언어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형태소 구조 조건이 인식될 정도로 어휘가 충분히 풍부해진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96) 사실 이들의 어간말 모음은 해당 지역어에서 거의 원순모음화를 겪었다.

97) metanalysis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분석'이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후 많은 논의에서 reanalysis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므로 '재분석'이라 하기로 한다. 한편 논자에 따라서 재해석(reinterpretation)이나 재절단(recutting)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98) 기술언어학에서는 경계의 이동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생성문법에서는 이와 아울러 규칙의 적용 등 도출 과정의 재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 이제는 과거 '재분석'이라 이름 붙여 본 현상을 살피도록 한다. 재분석이란 단어들 혹은 단어군들에 대하여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분석과는 달리 분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이들의 발화 연쇄를 들을 때 아이들은, 한 단어가 어디서 끝나고 다음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단어의 어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미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내야만 한다.[99]

새로운 세대가 발화를 분석할 때에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분석하는, 즉 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를 달리 해석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때의 분석이나 경계라는 개념이 음운론적이라기보다는 형태론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형태론적(morphological)'이란 수식이 덧붙기도 한다. 먼저 국외의 논저들에서 논의된 몇몇 관련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6) ㄱ. awhi : awhit+ia　　　　awhi : awhi+tia
　　　hopu : hopuk+ia ⇒　 hopu : hopu+kia
　　　aru　: arum+ia　　　　aru　: aru+mia
　ㄴ. douk-es+i ⇒ douk-e+si
　ㄷ. denote : denote+ation ⇒ denotate : denotate+ion
　ㄹ. hamburger ⇒ ham#burger / cheeseburger, fishburger, Burger King …

(56ㄱ)은 재분석의 예로서 자주 인용되는 마오리어 피동 접미사의 변화이다(Hale 1973:414). 어말 자음 t, k, m 등의 탈락이 생산적인 규칙임

99) We now come to the phenomenon for which I have ventured to coin the term 'metanalysis', by which I mean that words or word-groups are by a new generation 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analysis of a former age. Each child has to find out for himself, in hearing the connected speech of other people, where one word ends and the next one bigins, or what belongs to the kernel and what to the ending of a word, etc.

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의 분석을 따르지 않고,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것으로 재분석하였고, 그 결과 단일 형태의 접사 '-ia'가 '-tia, -kia, -mia' 등으로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 물론 그 이후 접사가 '-tia'로 평준화되는 과정을 다시 겪기는 하였지만, 재분석 자체는 문법을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56ㄴ)은 Jeffers(1977:19)에 제시된 라틴어의 예로서, 재분석에 의하여 '-si(>re)'라는 새로운 접사가 형성되었다. (56ㄷ)은 기존의 접사 '-ation'을 '-ion'으로 분석하여 어간이 'denote'에서 'denotate'로 바뀐 것으로 흔히 역형성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56ㄹ)은 민간어원의 예로 종종 제시되는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던 합성어 경계가 새로 생기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재분석, 역형성, 민간어원은 모두 기존의 단어에 새로이 형태소 경계를 부여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위치로 경계를 옮기거나, 보다 친숙한 단어로 재구성하는 등 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문법을 형성할 때에 언어 자료를 나름대로 재해석한 결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국어의 기저형 변화를 일으키는 재분석은 표면형으로부터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기저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도출형으로부터 거꾸로 기본형을 분석해 내는 역형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Lehmann(1962:185)의 부적절한 절단이나 Jeffers and Lehiste(1979:64)의 재문법화(regrammatization)는 분석된 결과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법형태임에 반해 역형성이나 재분석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존 목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석만을 새롭게 할 따름이다. 또한 여러 논의에서 재분석과 유사하다고 논의(Sturtevant 1947:119, Hockett 1958:288, Lehmann 1962:187 등)되어 온 민간어원이 지니고 있는, 좀 더 친숙한 구성으로의 변화 방향성을 국어의 재분석은 가지고 있지 않다.[100]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현상을 논하여 왔다. 許雄

100) Hockett(1958:287)에서는 재분석의 개념에 친숙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1965:519)에서는 '잘못 분석'이라는 용어로서 다음의 현상들을 설명하였다.

(57) ㄱ. ᄑᆞᆯ(蠅) ⇒ 파리, 낛(釣) ⇒ 낙시, 굼벙(蠐螬) ⇒ 굼벙이

ㄴ. ᄡᅡᅘᅧ-(拔) ⇒ ᄡᅢ-, 내ᅘᅧ-(出) ⇒ 내키-

(57ㄱ)과 같이 명사에 ㅣ가 덧붙는 현상에 대해서 '다리(橋)'의 주격형 /다리/나 지정사 결합형 /다리라/ 등에 유추하여, 'ᄑᆞᆯ+-이'에서 형성된 /ᄑᆞ리/를 'ᄑᆞ리+-이'로, 'ᄑᆞᆯ+-이라'에서 형성된 /ᄑᆞ리라/를 'ᄑᆞ리+-이라'로 분석한 결과가 굳어진 것이라 하고 있다. (57ㄴ)에 대해서는 'ᄡᅡᅘᅧ-+-어'에서 도출된 /ᄡᅡᅘᅧ/를 'ᄡᅡᅘᅵ-+-어'로, '내ᅘᅧ-+-어'에서 도출된 /내ᅘᅧ/를 '내ᅘᅵ-+-어'로 분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잘못'이라 부른 것은 규범문법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유추를 '잘못된 유추'라고 부르던 것과 평행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음은 (57)의 새로운 분석도 공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ᄑᆞ리/는 얼마든지 'ᄑᆞᆯ+-이'로도 분석될 수 있고 'ᄑᆞ리+-이'로도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姜祀錫(1985:52, 66)에서는 '형태소 분석(새로운 어간 인식) 및 재곡용'이라는 용어로서, '여듧(八)⇒여덜, 값(價)⇒갑'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갑또, 갑/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어간을 /갑/으로 잘못 인식하고 여기에 조사 '-이'를 결합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許雄(1965)와 마찬가지로 '잘못'이라는 술어가 쓰였지만, '형태 분석'이 아닌 '형태소 분석'이라고 한 점이나 '재곡용'이 후속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郭忠求(1994)에서는 '오분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르 변칙 어간 '다르-'의 아-계 어미 결합형 /달라/가 - -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어 '달르-'로 변하였다든가, ㄷ 변칙 어간 '다닫-'의 활용형 /다다르니, 다

다라/가 '다다르-+-니, 다다르-+-아'로 분석되어 '다다르-'가 형성되었다든가, '서-'의 아-계 어미 결합형 /서/가 '스-+-어'로 분석되어 '스-'로 변하였다는 등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배주채(1998:87)에서는 '섞-'에서 '서끄-'로의 변화에 대해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의 재분석과 '으'탈락규칙의 뒷받침을 받아" 확대형이 생겼다고 하고 있다. 잘못 분석 혹은 오분석이 아니라, 재분석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를 으-계 어미 결합형에만 국한한 것으로 보아 Jespersen (1922)에서와 같이 경계 위치의 변화에 한하여만 재분석이라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101]

유추와 재분석

재분석은 유추의 하위 현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고(Bloomfield 1933, Lehmann 1962, 許雄 1965, Jeffers 1977, 郭忠求 1994, McMahon 1994 등), 유추와 유사하기는 하되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Hockett 1958, Jeffers and Lehiste 1979 등). 우리는 이들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별개의 두 요인으로 나누었으니 후자의 편에 서 있는 셈이다.

재분석을 유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변화를 겪기 전의 표면형과 이미 존재하는 다른 어간의 그것이 유사하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건너-'의 아-계 어미 결합형 /건너/가 '쓰-'의 아-계 어미 결합형 /써/와 유사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건너-'의 여타 활용형들도 '쓰-'의 활용형 /쓰고, 쓰면/ 등과 비슷하게 /건느고, 건느면/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성문법의 기저형과 규칙 개념을 끌어와 설명을 할 수

101) 이는 재분석을 형태 분석이라고 여긴 것과 관련이 있다. /서끄면/을 /서끄-면/으로 형태 분석하면 이전의 형태 분석 /섞-으면/과 다른 것이 되지만, /서꺼/는 ㅡ 탈락이 적용된 것이든 아무 규칙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든 /섞-어/로밖에 형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재분석은 형태의 분석이 아니라 형태소의 분석이다.

도 있다. '건너-'의 활용형 /건너/와 '쓰-'의 활용형 /써/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써/가 도출된 기저의 결합인 '쓰-+-어' 및 ㅡ 탈락이 마치 /건너/의 도출에도 이용된 것처럼 '건너⋯⋯(ㅡ탈락)⋯→건느-+-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건너/로부터 새로이 인식된 '건느-'가 다른 환경에서까지 쓰이게 되는 과정을 다시 설명하여야 한다.

우선 표면형만을 고려한 전통적인 유추의 과정을 살펴보자.

쓰고	쓰면	써

‖

		건너	⇒	건느고	건느면	건너

<그림1>

/건너/가 /써/와 유사하다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ㅓ로 끝나고 그 앞에는 자음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며, 형태론적으로는 둘 모두 용언 어간에 아-계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자음과 ㅓ가 연결되어 있고 종성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아-계 어미 결합형이 아니라면 이를 좇아 유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건너-'와 '쓰-'의 형태음운론적 유사성은 엄밀히 말해 아-계 어미 결합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아-계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어간말 음절의 모음이 ㅓ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건너-'의 활용형은 /언꼬, 언즈면, 언저/ 등 자음 어간의 활용에 유추되어 /건꼬, 건느면, 건너/로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건너-'의 변화를 유추로 설명코자 한다면 다음과 같게 된다. /써/가 소속된 패러다임의 여타 활용형들은 /써/에서 /ㅓ/를 제외한 부분에 /ㅡ/가 덧보태어져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건너/의 경우에도 /ㅓ/를 제외한 /건ㄴ/에 /ㅡ/를 더하여 /건느고, 건느면/과

같은 활용형을 발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같은 유사성에 기반한 다음의 <그림2>와 같은 유추의 여지도 열어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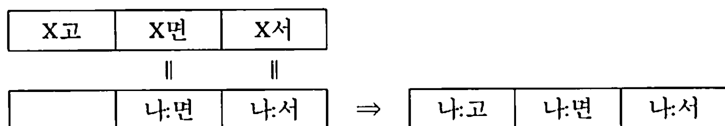
만지고	만지면	만저				
		‖				
		건너	⇒	건니고	건니면	건너

<그림2>

'건너-'의 활용형들이 '쓰-'의 활용형들과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유추의 근거는 '만지-(撫)'의 활용형들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어간의 모음이 ㅡ가 아닌 ㅣ라는 점만이 다르며, 이로 인하여 /건니고, 건니면/과 같이 발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교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만지고, 만지면, 만저/의 어간은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반면, 이에 유추되는 /건니고, 건니면, 건너/의 어간은 비자동적 교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2>와 같은 유추를 막기 위해서는 유추의 대상이 되는 교체와 유추의 결과로 발화되는 교체의 성격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을 유추로 서술한다면, 유추의 대상이 되는 어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낳-(産)'에서 '나:-'로의 변화는 장모음의 ㅏ: 말음 어간이 어휘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게 된다.[102]

102) 자음어미 앞에서도 '나:-'로 실현되는 것은 강원 삼척의 자료(金鳳國 2002)이지만, 서울말의 경우도 후술할 바와 같이 '낳-'이 재분석을 통해 '낳-/나:-'가 될 수 있다.



<그림3>

/가:고, 가:면, 가:서/와 같이 활용하는 ㅏ 말음의 장음 어간은 없기 때문에 '낳-'의 활용형 /나코, 나:면, 나:서/의 직접적인 유추 대상이 될 만한 활용은 없다. 그러나 /가고, 가면, 가서/와 같이 활용하는 단음 어간이나 /깨:고, 깨:면, 깨:서/와 같이 활용하는 장음 어간은 많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그림3>과 같은 패턴 /X고, X면, X서/을 추출하고 이것을 유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건너-'의 변화를 유추로 설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앞서 3.2.1.1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생성문법에서는 개별적인 표면형이나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이 도출되는 과정이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유사성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여도 유사성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간에 규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도출 과정이 유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규칙만으로도 서술될 수 있는 현상을 표면형까지 묶어서 유추로 서술할 필요는 없다.

전통문법의 방법이든 생성문법의 방법이든 지금껏 검토한 현상을 간결하고도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추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성문법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우리는 문법적·의미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음운적으로도 유사해지는 현상이라고 유추를 좁게 한정하였다. 그리고 재분석은 이렇게 좁게 정의된 유추에 들지 못하는 현상 일부를 효과적으로 서술하게 해 준다. 재분석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전 세대의 발화와 규칙뿐이며, 유사성을 찾을 필요는 없다.[103)]

유추의 개념을 좁게 한정하였듯이 재분석 또한 개념을 엄밀하게 정

리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로 달리 설명되어야 할 현상들이 모두 재분석으로 서술되기도 하고, 재분석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들이 제각각 다르게 설명되기도 한 것이다. 재분석이 이제껏 간헐적으로 원용되었을 뿐 기저형 변화 나아가 도출 패러다임 변화의 기제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어쩌면 생성문법 내에서의 성격 규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음에서는 졸고(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분석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다.

변화 전후의 공시 문법은 동일하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사실이 주어지고, '사람은 죽는다', '식물은 죽는다' 등의 대전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명추론(가추, 귀추 abduction)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소전제를 추론할 수도 있지만 같은 원리로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라는 소전제도 추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과거에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다가 현재에는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추론 결과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도,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는 사실과 '사람은 죽는다', '식물은 죽는다'의 대전제는 변화 전후에 있어서 동일한 불변의 것이다. 이는 나아가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라고 인식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의 결론이 여전히 추론 가능하고, 그 중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론을 추론해 냈을 뿐이다. 재분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103]

103) 결과(result)와 대전제(law)를 바탕으로 하여 소전제(case)를 추론해 내는 불명추론에서 재분석의 추론 근거를 찾고자 했던 노력도 유추와 재분석을 구분짓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다(졸고 2002).

104) 도출 과정은 →로, 재분석 과정은 →로 표시한다.

(58) 서-+-어 —(ㅓ탈락)→ /서/ ① ····(ㅓ탈락)···› 서-+-어
② ····(ㅡ탈락)···› 스-+-어

재분석에 의한 기저형의 변화는 이전 세대의 발화를 듣고 자신의 문법을 구축하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일어난다. 청자는 화자가 발화한 음연쇄를 들으면 문맥을 통해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는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는 정보만을 가질 수 있을 뿐, 그 음연쇄가 어떠한 기저형의 결합과 도출 과정을 통해 발화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58)에서 화자가 ㅓ 탈락을 통해 발화한 활용형이 반드시 ①처럼 화자의 분석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공시 문법 내에서는 ②로도 얼마든지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발화한 활용형을 둘러싸고 있는 공시 문법의 상태, 예컨대 음운체계, 규칙, 문법체계 등이 해당 활용형에 대해 화자가 의도한 바를 포함한 둘 이상의 분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을 때, 청자는 공시태 내에서 별 무리 없이 그 둘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자가 발화하고자 하였던 어간과는 다른 기저형으로의 분석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재분석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공시 문법 속에서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와는 달리 분석하는 경우, 이전 세대와 동일한 문법이기에 새로운 분석을 해야만 할 필연성이 없는 경우의 변화에 한정된다.

반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공시 문법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전 세대와 동일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자는 필연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ㅸ 말음 어간의 변화를 예로 들어 보자. 성조와 음장 및 어미의 변화는 생략한다.

(59)	표면형	기저형	규칙	공시 문법
ㄱ.	굽고, 구ᄫᅳ면, 구ᄫᅥ	//구ᇦ-//	ㅸ→ㅂ	/ㅸ/ 존재
ㄴ.	굽고, 구우면, 구워	//구ᇦ-//	ㅸ→ㅂ, ㅸ→w	/ㅸ/ 존재
ㄷ.	굽고, 구우면, 구워	//굽-/구우-//	활음화	/ㅸ/ 부재
ㄷ′.	굽고, 구우면, 구워	//굽-/궇-//	ㅎ탈락, 활음삽입	/ㅸ/ 부재

崔明玉(1985:165~167)에 서술된 바와 같이 기저형의 변화는 'ㅸ>w'가 완료되어 음운체계에 ㅸ이 존재하지 않는 (59ㄷ)의 단계에서 일어났다. (59ㄴ)과 (59ㄷ)의 표면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저형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재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자의 공시 문법과 후자의 공시 문법은 음운체계의 면, 즉 /ㅸ/의 존재 여부에서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하여 후자의 기저형 분석은 필연적으로 전자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표면형 /굽고, 구우면, 구워/는 (59ㄴ) 이외에도 (59ㄷ)이나 (59ㄷ′)으로도 분석될 수가 있는바,[105] 이러한 둘 이상의 분석 가능성을 두고 (59ㄴ)에서 (59ㄷ, ㄷ′)으로의 변화를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재분석이 여러 분석 가능성 중의 하나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둘 이상의 분석 가운데 하나가 변화 이전의 것이 아니라면 변화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59ㄴ)과 (59ㄷ)의 공시 문법이 다르고 (59ㄴ)과 (59ㄷ′)의 공시 문법이 다른 것이다.[106]

이상과 같이 비교가 되는 공시 문법이 음운체계에 관한 경우 음변화에 의한 기저형 변화와 재분석에 의한 기저형 변화의 구분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음운제약이나 규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서는 판단이

105) (59ㄷ, ㄷ′)은 자음어미 결합형 /굽고/를 모두 '굽-+-고'로 분석하였지만, /구우면, 구워/의 분석은 서로 다르다.

106) 다만 (59ㄷ)과 (59ㄷ′)은 공시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재분석에 의한 것일 수가 있다.

쉽게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107)]

'배우-(學)'에서 '배:-'로의 변화를 예로 들어 보자. 이 변화는 '끼우-(揷)⇒끼:-' 등의 변화와 함께 일정한 모음 뒤에서 ㅜ가 탈락하고 보상적으로 장음이 남게 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지만(金完鎭 1972, 李秉根 1975), 같은 음운론적 조건의 '매우(副詞)'나 '기울-(傾)' 등에서는 ㅜ가 탈락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명쾌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졸고(1999:226)에서는 이들에 대해 아-계 어미 결합형 /배워, 끼워/에서 j나 i 뒤의 w가 [+high]의 중복으로 인하여 탈락하였다고 보았다. 즉 /배워, 치워/에서 w가 탈락한 /배어, 치어/를 다음 세대에서 '배:-+-어, 끼:-+-어'로 분석함으로써 기저형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이전 세대가 /배워/와 함께 규칙을 통해 /배어/를 모두 발화하고 청자는 /배어/가 /배워/에서 공시적으로 w가 탈락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어'에서 도출된 것이라 분석하였다면, 이는 재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배어/가 /배워/로부터 공시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활용형이라면,[108)] 이 두 활용형은 이미 서로 다른 기저형 '배:-'와 '배우-'로부터 각각 도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수의적으로 적용된 통시적 변화인 w 탈락으로 인하여 이미 기저형이 '배:-'와 '배우-'의 쌍형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w 탈락이 공시적 규칙이 아니라면 '배우-'에서 '배:-(~배우-)'로의 변화는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할

107) 규칙의 공시적 존재 여부란 엄밀히 말해 규칙의 일반성과 자연성 여부를 의미한다. 단순히 규칙의 입력이 어휘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주변 지역에서는 생산적인 규칙이 해당 지역에서는 입력이 될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적용될 어간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규칙의 존재 여부와 재분석의 관계에 대하여는 임석규(2004:16~19)를 참조할 수 있다.

108) /배워/에서의 활음 탈락은 언제나 활음화에 후행한다. 이진호(2002:122)에서는 이처럼 다른 규칙에 후행하여서만 적용되는 규칙의 생산성을 의심하고 있다.

수 없을 것이다. 재분석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과 그 시점의 공시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릴 수가 없다.[109)]

재분석이 공시 문법 내에서 가능하다

(59ㄷ)의 단계에서 /굽고, 구우면, 구워/의 활용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59ㄴ)과 같이 할 수 없던 것은 해당 공시 문법의 음운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음 ㅸ을 분석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시 문법에는 이 외에도 규칙 및 모음조화, 기저형 선택 조건 등과 같이 규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 규칙성(regularity)도 있다.

(60) ㄱ. 섞-+-어 —(규칙Ø)→ /서꺼/ ① ····(규칙Ø)···› 섞-+-어
② ····(ㅡ-탈락)···› 서끄-+-어
ㄱ′. 섞-+-으면 —(규칙Ø)→ /서끄면/ ① ····(규칙Ø)···› 섞-+-으면
② ····(규칙Ø)···› 서끄-+-면
ㄴ. 쏘-+-아 —(활음화)→ /쏴:/ ① ····(활음화)···› 쏘-+-아
② ····(활음화)···› 쑤-+-아

변화 이전과 이후의 공시 문법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분석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60ㄱ)의 분석②는 우선 ㅡ 탈락이라는 규칙이 공시 문법에 존재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며 같은 규칙이 변화 이전의 공시 문법에도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서끄-'에서 /서꺼/가 도출되기 위해 '-어'가 결합되는 것이 모음조화에 부합하는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복수 기저형을 지니는 어미의 선택 조건을 만

109) 崔明玉(1988:55)에서는 'ᄒᆞ-'의 아-게 어미 결합형에 j가 삽입되고 그 형태를 'ᄒᆡ-+-아'로 '재해석'한 결과 기저형이 변하였다고 하고 있다. 변화 이전의 기저형이 'ᄒᆞ-'였으며 이 어간에만 적용되던 j 삽입이 공시적인 규칙이었음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재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족시키는가의 여부를 뜻한다. (60ㄱ′)의 분석②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서 '-면'이 모음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60ㄴ)은 모음조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재구조화가 일어난 지역에서 ㅗ 말음 어간뿐만 아니라 ㅜ 말음 1음절 어간에도 아-계 어미의 '-아X'가 결합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다. 변화가 일어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수-(粥)+-아→사:'와 같은 모음조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崔明玉 1992ㄱ 참조), '쏘-+-아'에서 도출된 /쏴:/가 얼마든지 '쑤-+-아'로 재분석될 수가 있다. 이러한 공시 문법의 배경이 없이는 분석②를 통한 재구조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郭忠求(1994:581)에서 오분석이라 서술된 '펴-⇒피-', '켜-⇒키-'는 용어 그대로 활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를 무시한 잘못된 분석이 된다. 이들의 변화는 'ㅕ>ㅔ'의 축약에 이은 'ㅔ>ㅣ'의 모음상승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데, 이는 중부 방언에서 'ㅔ>ㅣ'의 모음상승은 장모음에서만 적용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변화는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데, 이는 예를 들어 '피-(發)+-어'가 /펴/가 아닌 장음의 /펴:/로 실현되는 공시 문법 내에서 '펴-+-어'에서 도출되어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펴/가 '피-+-어'로 재분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분석과는 달리 공시 문법에 어긋난 분석을 오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110)]

---

110) 3.2.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용언 어간 중에 'XjV-'의 음운 구조를 지닌 것 혹은 ㅓ 말음의 어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면 군이 잘못된 분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임석규(2004:8)에서는 김포 일대에서 ㅣ 말음 어간의 활음화에서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여 재분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재분석되는 단위는 형태소이다

청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재분석되는 단위는 단순한 음의 연쇄가 아니라 일정한 문법적 · 의미적 기능을 지닌 단위이다. 문제는 분석된 각각의 단위가 형태소인가 이형태인가에 있다. 다음의 ㄷ 변칙 어간 '싣:-(載)'의 활용형이 재분석된 예이다.

(61) ㄱ. (싣:-/)시르-+-어 —(ㅡ탈락)→ 시러 ·····(ㅎ탈락)···› 싫-+-어
(싣:-/)시르-+-면 —(규칙Ø)→ 시르면 ·····(ㅎ탈락)···› 싫-+-으면
ㄴ. 싣:-/시르- ⇒ 싣:-/싫-

(61ㄱ)에서 어간으로 분석된 단위인 '싫'은 형태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형태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형태소라 함은 분석된 '싫'이 기저형임을 뜻하며, 이형태라 함은 표면형임을 뜻한다. 만일 후자를 좇아 아-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재분석된 '싫'을 하나의 이형태로, 자음어미 앞의 기존의 '싣:'을 또 다른 이형태로 인식한다면, 이 두 이형태는 상호 공시적 도출이 불가능한 까닭에 (61ㄴ)과 같이 복수 기저형 '싣:-/싫-'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재분석된 '싫'은 이형태일 수가 없다. '먹-'의 활용형 /멍는/에 실현된 어간의 이형태가 /먹/이 아닌 /멍/이고 '안:-'의 활용형 /안:꼬/에 실현된 어미의 이형태가 /고/가 아닌 /꼬/인 것과 같이, 이형태란 형태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형식으로서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음운과정이 일어난 이후의 형식을 말하는데 '싫'은 결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형식인 것이다. 결국 분석된 '싫'은 ㅎ 탈락이라는 음운과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즉 기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0)에서도 /서꺼/에서 재분석된 '서끄'의 경우 표면에 실현되지 않은 ㅡ가 분석되었으니 '서끄'를 이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예는 적용된 규칙의 면에서도 재분석이 형태 분석이 아닌 형태소 분석임을 말

해 준다. '서ㄲ'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ㅡ 탈락은 '어간말'이라는 형태론적인 조건이 요구되는 형태음운규칙인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이 역적용되어[111] 분석된 '서ㄲ'의 ㅡ는 표면 층위의 모음 ㅡ가 아니라 '어간말'에 위치한 기저형의 ㅡ인 셈이다.

이처럼 재분석 과정에서는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음운규칙은 입력과 출력이 모두 순수히 음운론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음연쇄임에 반하여, 형태음운규칙의 입력은 형태론적 정보가 포함된 형태소 결합이 된다. 다음의 A, B는 음연쇄이며 α, β는 형태소 또는 형태론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음운표시로서, α+β는 기저 표시, B는 표면 표시를 가리킨다.

(62) 도출 과정 : //α+β// —(형태음운규칙)→ /A/ —(음운규칙)→ /B/
재분석 과정 : /B/ ·····(음운규칙)···→ /A/ ·····(형태음운규칙)···→ //α+β//

도출이든 재분석이든 어떠한 규칙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종류의 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지만,[112] 그 적용의 순서와 입력 및 출력은 (62)와 같다. 따라서 역적용되는 음운규칙의 입력과 출력은 모두 음연쇄이며, 역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의 입력은 음연쇄, 출력은 형태소 결합이 된다.

---

111) 재분석 과정에서의 규칙 적용임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 '역적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112) 재분석에서는 보통 하나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만, 둘 이상의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경북 영주(林錫圭 1999)의 '꼬:-(索)⇒깧-'은 '꼬:-+-아'에서 /꼬아/와 /꽈:/를 거쳐 도출된 /까:/가 다음의 과정을 겪어 재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까:/·····(동일모음탈락)···→/까아/·····(ㅎ탈락)···→/까하/···→깧-+-아

	음연쇄	····(음운규칙)···→	음연쇄	····(형태음운규칙)···→	형태소 결합
(60′)	서꺼	····(규칙Ø)···→	서꺼	····(ㅡ탈락)···→	서끄-+-어
(61′)	시러	····(ㅎ탈락)···→	실허	····(규칙Ø)···→	싫-+-어

이와 같이 재분석 도중에는 음운규칙의 역적용에 의해 음연쇄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분석되는 단위는 형태소(기저형)이다.

유추가 후속될 때 인식된다

한 용언의 활용형들이 모두 같은 꼴로 재분석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60)에서 '섞-'의 활용형 중에서 아-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은 모두 '서끄-'라는 어간으로 재분석이 가능하지만, 자음어미 결합형 /석꼬, 성는/ 등은 결코 '서끄-+-고, 서끄-+-는'으로 재분석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는 자음어미 앞의 '석-'과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앞의 '서끄-'라는 복수 기저형을 초래하게 된다.[113] 그리고 이와 같은 복수 기저형에서 도출된 표면형은 재구조화 이전의 것과 같이 /석꼬, 성는, 서꺼, 서끄면/이어서 어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다(Hockett 1958:288).

불명추론적인 변화는 그 뒤에 연역적 개신(deductive innovation)이 뒤따르고서야 비로소 관찰될 수 있는바, 연역적 개신이란 일종의 유추로서 문법 내의 계열적 관계에 기반한 확장을 뜻한다(Andersen 1974:23).[114] 이와 마찬가지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는 아-계 어미 · 으-계 어미

113) 재분석에 의하여 문법이 복잡해지는 셈인데, (56ㄱ)의 마오리어 예에서 접미사의 형태가 늘어나고 (56ㄴ)의 라틴어 예에서 새로운 접미사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한편 자음어미 결합형 /석꼬, 성는/ 등은 변화 이전과 같이 기저형이 '섞-'인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자음어미 앞에서는 ㄲ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석-'으로 분석될 만한다.

114) 그는 중세 영어의 집합 단수 명사인 *cheris"cherry"가 복수인 cheri+s로 분석되는 자체를 불명추론적 개신, 그렇게 분석된 cheri가 cheris를 대신하여 단수로 쓰이고 cheris는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 현상을 연역적 개신이라고 하고 있다.

앞의 기저형이 자음어미와 결합하여 /서끄고, 서끄는/과 같이 실현될 때에 비로소 인식될 수가 있다. '석-/서끄-'라는 복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 '서끄-'로 바꾸는 2차적 변화의 요인은 유추의 일종인 평준화이다.[115]

ㄷ 변칙에서 '싣:-/싫-'로 변화된 (61)은 다시 '싫:-/싫-'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평준화가 아닌 감염에 의한 변화를 겪은 것이다. 재분석된 어간은 단모음을 지닌 '싫-'인 반면 자음어미 결합형은 장모음을 지닌 /실:코, 실:른/이다.[116]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 '싣:-'이 음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싫-'을 닮아 '싫:-'로 변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염 역시 유추의 일종이다.[117]

재분석에 의한 1차 변화 이후 곧바로 유추에 의한 2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변화의 결과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 2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표면형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두 변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하위 절차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변화의 동기를 서로 다르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화 및 그 요인을 별개의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즉 재분석은 불명추론에 기반을 두고 가능한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 복

115) 姜昶錫(1985)의 '재곡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16) 이는 예외가 존재하는 자음 어간의 단모음화를 규칙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의 설명 방법이다. 만일 자음 어간의 단모음화를 규칙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ㄷ 변칙 어간의 활용형 /시르면, 시러/는 '싫:-+-으면, 싫:-+-어'와 같이 재분석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의 복수 기저형은 '싣:-/싫:-'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감염이 아닌 평준화에 의해 '싫:-'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17) 한 세대는 음장을 구별하여 /실:꼬, 시르면, 시러/로 발음하고 다음 세대는 음장을 구별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변화를 겪어 /실코, 시르면, 시러/로 발음한다면 서술은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자음어미 결합형 /신:꼬/를 장음 어간의 '싣:-+-고'로 분석하지 못하고 단음 어간의 '싣-+-고'로 분석하는 것은 음운체계의 변화(음장의 소실)에 따른 것이므로 재분석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시르면, 시러/는 재분석에 의하여 '싫-+-으면'과 '싫-+-어'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유추를 겪기 전의 기저형 '싣-/싫-'은 한편으로는 음변화, 다른 한편으로는 재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평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수 기저형이 남게 되어 오히려 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반면, 유추는 어휘부의 기억 부담을 줄임으로써 문법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3.2. 변화의 실제

3.3.2.1. 규칙의 비적용

화자가 활용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규칙들이 적용되었으나 재분석 과정에서는 아무런 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울말의 ㄷ 변칙 어간 '붇:-(膨)' 등이 ㄹ 말음의 '불:-'로 변하는 과정이 그러하다.[118)]

(63) "膨" 붇:꼬, 부르면, 부러 //붇:-/부르-//

⇒ 불:고, 불:면, 부러 //불:-/불-//

(붇:-/)부르-+-어 —(-–탈락)→ 부러 ····(규칙Ø)···› 불-+-어

ㄷ 변칙 어간에서 ㄹ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몇 가지 점에서 설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우선 (63)과 같이 '붇:-'의 아-계 어미 결합형 /부러/를 위와 같이 단모음 어간의 '불-+-어'로 분석할 것인가, 자음 어간의 단모음화가 역적용된 것으로 보아 장모음 어간의 '불:-+-어'로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친다.

단모음화가 공시적인 규칙으로 상정될 수만 있다면 후자와 같이 분석하는 편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 아-계 어미 결합형을 '불:-+-어'로

118) 서울 이외에 충북 옥천,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고흥, 여수, 신안, 완도(肖成貫 1983, 蘇江春 1983, 이기갑 외 편 1998, 배주채 1998) 등에서도 보고되었다. 한편 중세 국어의 ㄷ 변칙 어간 '아쳗-(厭)'과 ㄹ 말음 어간 '아쳘-'의 공존이 흥미롭다.

분석하여 기저형이 '붇:-/부르-/불:-'로 변한 뒤 '불:-'이 먼저 으-계 어미 앞으로, 그 다음에 자음어미 앞으로 확대되어 쓰이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평준화의 순차를 두는 것은 같은 ㄷ 변칙 어간 '긷:-(汲)'과 '젇:-(鹽漬)'의 경우 서울말에서 '길:-, 절:-'이 자음어미 앞에서는 쓰이지 않고 으-계 어미 앞에서만 쓰이는 불완전한 활용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필재(2001:103~104)에 제시된 예를 빌려 기저형의 변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는 편의상 '긷:-'만을 보인다.

(64)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기르-(그 밖)//
⇒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기르-(으-계어미 앞)/길:-(그 밖)//
⇒ 긷:꼬, 길: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길:-(그 밖)//

(64)는 평준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불완전한 활용을 보이는 상태이며[119] (63)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 분석된 장모음 어간이 자음어미 앞에까지 쓰이게 됨으로써 완전한 활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단모음화를 규칙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설명이 다소 복잡해진다.

(64′)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기르-(그 밖)//
⇒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기르-(으-계어미 앞)/길-(그 밖)//
⇒ 긷:꼬, 길: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길:-(으-계어미 앞)/길-(그 밖)//

으-계 어미 결합형 /길: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기저형이 장모음을 지닌 '길:-'이어야 하는데, 아-계 어미 결합형 /기러/를 분석한 결과가

---

119) 『서울 I』에는 '긷:-'에 대해 /길(:)지 긷:다 길(:)면/의 활용형도 보고되어 있다.

단모음의 '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64)와 같이 평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으-계 어미 앞의 기저형 '기르-'가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으로부터는 장모음을, 아-계 어미 결합형으로부터는 말음 ㄹ을 닮아와서 '길:-'로 변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 셈이다. 그것은 감염일 수도 있고 혼효일 수도 있는데, 기저형이 셋인 경우의 변화 양상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설명이 다소 작위적이라 느껴질 수 있다.

변화 서술의 편의를 좇는다면 단모음화를 규칙으로 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의 예외를 될 수 있는 한 인정하지 않는 공시적 기술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단모음화는 규칙으로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음 어간의 단모음화에는 '없:-, 썰:-' 등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20] 어떤 규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규칙은 예외가 없는 다른 규칙에 비해 그만큼 규칙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규칙에 예외를 두게 되면, 예컨대 '입-, 좁-' 등을 예외로 두고 'ㅂ→w'를 규칙으로 상정하여 ㅂ 변칙 활용을 서술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모든 변칙 활용의 기술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규칙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규칙으로 기술될 것은 아니지만, 규칙은 반드시 규칙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를테면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약간의 예외는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규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여 (63)을 (64′)과 같이 서술하였지만, 규칙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서술이

---

120) 유필재(2001)에는 이 외에도 '끌:-(引), 벌:-(稼), 좋:-(好), 많:-(多), 떫:-(澁), 엷:-(薄), 굵:-(太), 밝:-(明), 웃:-(笑), 뺏:-(奪), 얻:-(得), 작:-(小), 적:-(少)'이 더 제시되어 있으며, 배주채(1996:89)에는 여기에 '길:-(長), 쉽:-(易), 졸:-(眠)'이 더 제시되어 있다.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자음 어간들이기 때문에 모음 어간에서는 단모음화를 상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소 달라질 뿐 설명의 본류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63)의 설명에 한 가지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은 으-계 어미 결합형의 재분석 가능성이다. 유필재(2001:104)에서 ㄷ 변칙의 활용형 /기르면/을 '길-+-으면'으로 분석한 것이 그것이다. 3.2.2에서 다루어진 으-계 어미의 기저형 선택 조건의 변화가 이와 관련된다.

(65) ㄱ. 기저형 선택 조건 1

-으X : [+cons, -voc] 뒤

-X : [+voc] 뒤

ㄴ. 기저형 선택 조건 2

-으X : [+cons] 뒤

-X : [-voc] 뒤

청자가 조건1만을 알고 있었다면 /기르면/은 '길-+-으면'으로 분석될 수가 없다. 재분석은 형태 분석이 아닌 형태소 분석이기 때문이다. 즉 분석된 기저형 '길-'이 기저형 '-으면'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건1에 따르면 '-으면'은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만 선택되기 때문에 '길-+-으면'이라는 기저의 분석은 불가능한 것이다. 청자가 /기르면/을 '길-+-으면'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은 곧 조건2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조건1에 의한 표면형과 조건2에 의한 표면형이 서울말에 공존하고 있으므로 두 조건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조건2에 기반하여 으-계 어미도 재분석하였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64″)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기르-(그 밖)//

⇒ 긷:꼬, 기르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길-(그 밖)//

⇒ 긷:꼬, 길:면, 기러 //긷:-(자음어미 앞)/길:-(으-계어미 앞)/길-(그 밖)//

(64″)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길:면/을 도출하기 위한 기저형 '길:-'로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두 기저형을 지니던 어간이 어떠한 이유로 세 기저형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121]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이 동일한 어간으로 재분석됨에도 불구하고 ㄷ 변칙에서 ㄹ 말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매우 희귀한 변화라는 점이다. 동일한 어간으로 재분석되는 활용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변화는 일어나기 쉽고 어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빈번하게 일어나며, 적으면 적을수록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고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ㄷ 변칙 어간에서 ㄹ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서 으-계 어미 결합형은 재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들은 서울말에서 아-계 어미 결합형의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ㅡ 탈락을 재분석 과정에서 무시함으로써 일어난 변화의 예이다. 다음에서는 활용형의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ㅎ 탈락을 고려하지 않고 재분석한 예를 살펴 보도록 한다. 도출 과정에서 탈락한 음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6) 쌓-(積) ⇒ 쌓:-

중세 국어의 ㅎ 말음 용언 어간들은 고정적 상성의 '둏-(好)'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성의 어간들이었는데, 현재에는 '놓-(放)'만이 단모음을 유지하고, '닿-(觸), 낳-(産), 쌓-(積), 넣-(入)' 등은 모두 어간모음이 장

121) 이런 문제 역시 단모음화를 상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을 모두 장모음 어간으로 분석하여 '긷:-/길:-'이 되고 나면, 으-계 어미 선택 조건1에 의해 /길:면/을, 조건2에 의해 /기르면/을 도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음으로 바뀌었다. 변화 이전과 이후의 활용형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66′) 싸코, 싸:면, 싸: ⇒ 싸:코, 싸:면, 싸:

물론 현대의 모든 장모음 어간이 중세에 상성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예. '감-(平)'과 '감:-', '끼-(去)'와 '깨:-' 등). 그러나 ㅎ 말음에 어간 모음이 ㅏ 또는 ㅓ인 것들이 유독 평성 대 장음의 대응을 보인다는 점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郭忠求(1994:558)에서는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ㅎ이 탈락하고 발생한 장음이 다른 환경에까지 쓰이게 된 것이라 하고 있다. 유필재(2001:95)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아-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의 어간 /싸:/로 패러다임을 규칙화하려고 한 결과 자음어미 앞에서도 장음이 실현되었으며, 나아가 /싸:/가 세력을 더욱 넓혀 /싼:다, 쌉:니다/로 실현되기까지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들 논의와 기본적인 방향은 같으나, 기저형의 차원에서 재분석을 이용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66′)의 변화 전 표면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가 있다.

활용형	분석1	분석2	분석3
싸코	쌓-+-고	쌓-+-고	쌓-+-고
싸:면	쌓-+-으면	싸:-+-면	쌓:-+-으면
싸:	쌓-+-아	싸:-+-아	쌓:-+-아

분석1은 기저형이 '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2는 '쌓-/싸:-', 분석3은 '쌓-/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1에서 '쌓-+-으면'에서 /싸:면/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ㅎ 탈락 및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한 ㅡ 탈락(예. 놓-+-으면→노:면)이 적용될 것이며, '쌓-+-아'에서 /싸:/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ㅎ 탈락 및 보상적 장모음화를 수반하는

동일모음탈락이 적용될 것이다.

분석2의 '싸:-+-아'는 단모음화와 동일모음탈락을 통하든 바로 어미 모음의 탈락을 통하든 /싸:/의 도출이 가능하다. 모음 어간의 단모음화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싸:-+-아'는 단모음화된 /싸아/가 도출될 수 있다.

분석3의 '쌓:-+-으면'은 자음 어간의 단모음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ㅎ이 탈락한 /싸:으면/을 거쳐 ㅡ가 탈락한 /싸:면/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3의 '쌓:-+-아' 역시 /싸:아/를 거쳐 동일모음탈락을 통해 /싸:/의 도출이 가능하다.

결국 기저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석2와 분석3이 모두 공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다시 자음어미 결합형인 /싸:코/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2는 감염이, 분석3은 평준화가 연이어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66″) ㄱ.	분석2 + 감염	쌓- ⇒ 쌓-/싸:- ⇒ 쌓:-/싸:-
ㄴ.	분석3 + 평준화	쌓- ⇒ 쌓-/쌓:- ⇒ 쌓:-

(66″ㄱ)은 여전히 복수 기저형을 유지하고 있고 (66″ㄴ)은 단일 기저형으로 되돌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의 설명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반면 전자는 서울말의 /싼:다, 쌉:니다/나 강원 삼척(金鳳國 2002) 등지의 단일 기저형 '싸:-(積), 나:-(産), 따:-(編)' 등을 직접 설명할 수가 있다.[122] 또한 /싼:다, 쌉:니다/는 (66″ㄱ)을 바탕으로 하여, 3.2.2에서 이미 다루어진 ㅂ 변칙 어간, ㅅ 변칙 어간과 마찬가지로 기저형 선택 조건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23]

---

122) 배주채(1998:97)에서는 전남 고흥에서 '쌓:-' 이외의 ㅎ 말음 어간들이 단모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은 단모음의 '낳-'을, 60대 이하는 '나:-'를 쓰고 있다고 한다.

(67) 쌓:- (자음어미 앞) ⇒ 쌓:- (그 밖)
　　싸:- (그 밖)　　　　　싸:- (복수 기저형 어미 앞)

정리컨대, (66)은 화자의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ㅎ 탈락과 ㅡ 탈락 · 동일모음탈락 중에서 후자만을 역적용하여 재분석한 뒤 자음어미 앞의 기저형이 이에 감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63)과 더불어 음운탈락을 재분석 과정에서 무시한 경우이다.[124]

3.3.2.2. 여타 규칙의 적용

화자의 도출 과정에서는 아무런 규칙도 적용되지 않은 활용형에 대해 청자는 기존의 어떠한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재분석하기도 한다. 대체로 어간 말음이 탈락한 것으로 재분석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경음이나 격음 말음의 어간을 중심으로 한 자음 어간에 ㅡ가 덧붙는 이른바 ㅡ 확대 현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세 어형 '부릍-(跡)'에서 현대 어형 '부르트-'로의 변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68) ㄱ. "混" 섞-+-어 —(규칙Ø)→ 서꺼 ····(ㅡ탈락)···→ 서끄-+-어
　　ㄴ. "吐" 뱉:-+-어 —(규칙Ø)→ 배:터 ····(ㅡ탈락)···→ 배:트-+-어

---

123) 한편 '놓-'은 단모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기로 한다. 다만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쌓-' 등이 보이는 동일모음탈락에 의한 장음과 '놓-'이 보이는 활음화에 의한 장음이 같은 성격의 것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비어두에서 전자는 [aa] 연쇄로 들릴 만큼 길게 발음되지만 후자의 [wa:]는 [wa]로 단모음화되어 짧게만 들린다.

124) 전북 남원, 전남 고홍(蘇江春 1983, 배주채 1998)에서 보고된 '끓-(沸)⇒끌-, 곯:-(減少)⇒굴:-', 충북 충주, 충남 아산, 전북 부안, 전남 고홍, 제주(金忠會 1979, 郭忠求 1982, 김옥화 2001, 배주채 1998, 鄭承喆 1995)에서 보고된 '끊-(切)⇒끈-, 귀찮-(煩)⇒구찬-' 등도 모두 도출 시 으-계 어미 ·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적용된 ㅎ 탈락을 재분석 과정에서 역적용하지 않은 예들이라 할 수 있다.

ㄷ. "扱" 훑-+-어 ―(규칙Ø)→ 훑터 ····(ㅡ탈락)···› 훑트-+-어

(68)은 어간 말음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간말에 ㅡ가 있었고 그것이 탈락하였다고 분석한 결과이다.[125] 이러한 현상은 위의 예와 같이 대체로 경음이나 격음 말음의 어간에 일어나지만 ㅅ 말음이나 자음군 어간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69) ㄱ. "洗" 씻-+-어 ―(규칙Ø)→ 씨서 ····(ㅡ탈락)···› 씨스-+-어
"拾" 줏-+-어 ―(규칙Ø)→ 주서 ····(ㅡ탈락)···› 주스-+-어
ㄴ. "薄" 엷:-+-어 ―(규칙Ø)→ 열:버 ····(ㅡ탈락)···› 열:브-+-어

(69ㄱ)과 같이 ㅅ 말음 어간에 ㅡ가 덧붙는 현상은 서울말 이외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ㅡ 확대 현상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특징을 보이는바, 예컨대 경북 동해안에서는 '깊-, 높-' 등의 형용사만 변화를 입었다고 한다(崔明玉 1980:95). (69ㄴ)은 어간말 자음군의 두번째 자음이 평음인 보기 드문 예이다. 유아어에서는 간혹 평음 말음의 어간에서 '먹-⇒머그-'와 같은 예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 역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며, 말음이 평폐쇄음인 자음군 어간이 ㅡ 확대 현상을 겪은 경우 역시 (69ㄴ)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126]

李秉根(1975/1979:84)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나의 '樣態'를 가

125) 으-계 어미 결합형의 경우는 '섞-+-으면'에서 '서끄-+-면'으로 형태소 경계의 위치만 바뀌었다.

126) 제주 방언에서는 '먹-', '신-' 등의 자음어미 결합형이 /머그지, 시느지/ 등으로 나타나는데, 鄭承喆(1988:25)에서는 어미를 '-으지'로 해석하였다. 한편 중앙어를 다룬 李秉根(1975/1979:84)에서는 어간 말음이 공명자음일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전북 부안(김옥화 2001)과 전남 일부(이기갑 외 편 1998)에서 '삶-(煮)⇒살무-'가, 전남 고흥(배주채 1998)에서 '곪-(膿)⇒골무-'가 발견되기는 한다.

지고 있는 자음어미가 두 개의 '양태'를 보이는 으-계 어미에 유추되어 패러다임에서의 확대를 이루어 ㅡ 탈락 규칙의 적용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으-계 어미가 보이던 교체가 유추적 확대를 통해 자음어미에 영향을 주어 예컨대 /으고~고, 으지~지/ 등과 같이 교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27]

Kiparsky(1968a/1982:41)에서는 유추적 확대가 평준화와는 반대로 언어적 대조(linguistic contrast)를 보다 충분히 실현하게끔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독일어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이 'Wort(單語)'로 실현되다가 '후설모음 : 전설모음+er'이라는 교체가 확대되어 'Wort : Wörter'의 대응을 보이게 됨으로써 단수 : 복수의 문법적 대립의 실현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은 유추적 확대의 개념에 따르자면 /으X~X/의 교체가 확대된 자음어미의 이형태 /으고/와 /고/가 이전의 /꼬/와 /고/에 비해 서로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들 두 쌍의 이형태들에게서 그러한 차이를 찾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국어가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일 뿐이며, 이를 두고 이 현상을 유추적 확대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유추적 확대는 생성문법의 방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 어미의 /고~꼬/ 교체의 원인이 되는 경음화와 /으고~고/ 교체의 원인이 되는 ㅡ 탈락일 것인데, 이 두 규칙 중 어떤 것은 적용이 축소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확대될 만한 문법 내적 차이를 밝히기가 어렵다. 또한 기저형의 측면을 보면 단일 기저형을 지니던 '-고'가 어떠한 이유에서 복수 기저형을 지닌 으-계 어미를 좇아 변

127) ㅡ 탈락 규칙의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결과적 현상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비록 생성음운론에서는 이미 상정한 규칙을 최대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칙으로 기술되지 않던 것을 규칙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일 뿐, 자음어미와 같이 규칙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까지 굳이 규칙을 확대하여 적용시킬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편 어간 말음이 구개음인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덧붙는 모음이 ㅡ가 아닌 ㅣ이다. 중세 국어의 'ᄆᆞᆾ-(終), 및-(及), 뉘읓-(悔), ᄉᆞᄆᆞᆾ-(通), 그릋-(違)' 등에서 '마치-, 미치-, 뉘우치-, 사무치-, 그르치-' 등으로의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128] 현재 서울말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쫓-(追)'도 '쪼치-'로 재구조화되고 있다(유필재 2001:79).[129]

이에 대하여 배주채(1996:167)에서는 이들 어간의 으-계 어미 결합형에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어 /미치면/ 등으로 실현되고 이 형태가 평준화된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전설모음화는 어간 말음인 ㅊ과 어미 두음인 ㅡ 사이에서 일어난 것인데, 많은 ㅊ 말음 어간들이 모두 변화를 겪을 만큼 형태소 경계에서의 전설모음화가 전국적으로 강력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69ㄱ)의 '씨스-, 주스-'를 보아도 이 변화가 전설모음화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설모음화는 ㅈㅉㅊ 뒤에서보다 ㅅㅆ 뒤에서 더 먼저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劉昌惇 1964:151, 白斗鉉 1992:257), '씻-, 줏-'의 으-계 어미 결합형도 역시 /씨시면, 주시면/ 등으로 발음되었을 것이고 이 활용형으로부터 '씨시-, 주시-'로 변하였을 것이다.

---

128) 이들 중 '뉘읓(RL)-, ᄉᆞᄆᆞᆾ(LL)-, 그릋(LL)-'은 무성장애음 말음에 비-LH형 어간이라는 점에서 2음절 어간들 중 특이한 것들이기는 하지만(김성규 1998:30~31), 1음절 어간들과 평행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과 함께 서술될 만하다.

129) '긏-(絶)'과 '그치-'는 중세에 공존하였다. 한편 같은 구개음인 ㅈ 말음의 단자음 어간들은 이런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원 동남부의 '꽂-(插)⇒꼬지-, 맞-(的中)⇒마지-, 맺-(結)⇒매지-, 젖-(潤)⇒저지-' 정도가 보고되었을 뿐이다(金鳳國 2002). ㄵ 말음의 '앉-(座), 얹-(置)'의 변화도 매우 드문 편이다. 전북 부안(김옥화 2001)의 '들안지-(入坐), 언지-(載)', 전남 몇 지역(이기갑 외 편 1998) 및 경남 창원(金永泰 1983)의 '언지-, 언즈-, 언지-' 등이 보고되었다. 李秉根(1970:50~51)에서는 경기 일부 지역어에 전설모음화가 있음과 함께 '앉-'에 대해 /안지면, 안지지마/ 등이 발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의 전설모음화를 고려하지 않고 ㅊ 말음 어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계 어미 결합형 /그처/를 '그치-+-어'로 재분석하여 평준화하였다는 것이 그 한 가지인데, 이 때의 재분석은 어간말 음절이 구개음과 ㅣ의 연쇄인 경우 활음화와 이에 이은 활음탈락 혹은 ㅣ 탈락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아-계 어미 결합형 /그처/를 '그츠-+-어'로 재분석하고, 으-계 어미 결합형 /그츠면/을 '그츠-+-면'으로 재분석한 뒤 자음어미 앞에도 평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기존의 '츠-(除)' 등의 어간과 함께 어간말 모음이 형태소 내부에서의 전설모음화를 겪게 된다.

첫 번째 설명 방법은 아-계 어미 결합형만이 재분석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ㅊ 말음 어간이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분석에 의한 변화가 활발한 경우를 보면 대개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이 모두 재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ㅓ 말음 어간이 ㅡ 말음으로 바뀌는 과정에도 재분석된 활용형은 아-계 어미 결합형뿐이었지만, ㅓ 말음 어간은 본래 수가 적어 ㅣ 말음으로 변화한 '켜-, 펴-'를 제외하면 '서-, 건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ㅊ 말음 어간은 희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석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설명 방법은 구개음과 ㅡ 연쇄가 어간말 음절을 이루는 다소 생소한 어간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 껄끄럽다. '씨스-, 주스-'의 경우에는 비록 어간말 음절 초성이 경음이기는 하나 '쓰-'와 같이 어간말에 마찰음과 ㅡ의 연쇄가 이미 있었다. 반면 재분석된 '그츠-'와 '씨스-'가 겪는 전설모음화의 차이는 '츠-'와 '쓰-'가 겪은 변화와 일치를 보여 전자는 ㅣ 말음이 된 반면 후자는 ㅡ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어간의 ㅡ 확대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이 현상이 특정한 말음의 어간에만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평폐쇄음

말음 어간에는 왜 ㅡ가 덧붙지 않았으며, ㅈ 말음 어간에는 왜 ㅣ가 덧붙지 않았는지 현재로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 약간의 설명은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서울말에만 보고된 '씨스-, 주스-'나 두 번째 자음이 평음인 유일한 예 '열:브-'를 예외적인 것이라 한다면, ㅡ나 ㅣ가 덧붙은 어간들의 말음은 모두 경음과 격음이 된다. 그리고 ㅡ 말음 어간은 대부분 '뜨-, 끄-, 크-, 나쁘-, 고프-' 등과 같이 경음과 격음을 ㅡ의 선행음으로 두고 있다. 즉 '먹-'의 활용형 /머그면, 머거/도 '머그-'로 재분석되어 '먹-/머그-'의 상태에 있을 수는 있지만, 평준화된 '머그-'는 기존의 용언 어간 구조에서 예외적인 형태가 된다는 점이 변화를 저지하였다는 것이다.

어간의 ㅡ 확대 현상과 관련하여 매우 특이한 어형이 있다. '날-(飛)'에 대한 '나르-, 날르-'가 그것이다. '날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르 변칙의 '나르-'에서 평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ㄹ 말음 어간이 르 변칙으로 변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문헌에 나오는 ㄹ 말음 어간이 현재 르 정칙 혹은 르 변칙으로 실현되고 있는 예이다.[130)]

(70) ㄱ. 울월(RL)-(仰) : 울월오져<法華7:93ㄴ>, 울월씨라<月釋序16ㄴ>, 울워러<法華2:177ㄴ>

⇒ 우러르- : 우러르고, 우러르면, 우러러

ㄴ. 그울(LL)-(轉) : 그울오<金剛上16ㄴ>, 그울씨오<月釋1:19ㄴ>, 그우러<月釋1:26ㄱ>

130) 이 밖에도 '그을-(炱)'에 대한 남부 방언의 '끄시르-/끄실르-', '졸-(眠)'에 대한 서남 방언의 '자우르-/자울르-', '기울-(傾), 거들-(助)'에 대한 고홍의 '찌우르-/찌울르-, 거다르-/거달르-' 등의 예가 있다(이상규 편 2000, 이기갑 외 편 1998, 배주채 1998, 김옥화 2001).

⇒ 구르-/굴르- : 구르고, 구르면, 굴러

저즐(LL)-(作) : 저즐고<禪家龜鑑28ㄴ>, 저즐어<譯語下53ㄴ>

⇒ 저지르-/저질르- : 저지르고, 저지르면, 저질러

아올(LH)-(幷) : 아올씨라<月釋序18ㄱ>, 아오라<飜小9:77ㄱ>, 아오로<法華3:108ㄱ>

⇒ 아우르-/아울르- : 아우르고, 아우르면, 아울러

수많은 ㄹ 말음 어간 중에서 이들 몇몇만이 겪은 변화를 음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날고/에 ㅡ가 삽입되어 /나르고/가 되었다든가, /나니/에 르가 삽입되어 /나르니/가 되었다든가, /나라/가 'ㄹ>ㄹㄹ'을 겪어 /날라/가 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음변화의 확산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음운론적 조건의 단어들이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의 경우는 변화를 경험한 단어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張允熙(2002ㄴ:74)에서는 (70)에 대해서 문증되지 않는 '*울얼우-, *구을우-, *저즐우-'가 있었고 그들의 아-계 어미 결합형이 재분석되어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골오-(選), 가볼오-(蹴)'에서 르 변칙 어간 '고르-, 까부르-'로의 변화와 평행적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였으나, 설명을 위해 문증되지 않는 가상의 어형을 두었다는 점은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음변화에 의한 설명이 여의치 않고, 유추로 설명할 만한 문법적·의미적 유사성도 없기 때문에 실마리는 역시 재분석에 있지 않은가 한다.[131] 중세 국어 당시의 (70ㄱ)의 활용형들은 다음과 같다.

131) 이 어간들은 '아올-'을 제외하면 ㄹ 말음 어간으로서 특이한 성조를 지니고 있다 (김성규 1998:24~26).

(70′) ㄱ. 울월오, 울월어든, 울워니, 울월면
ㄴ. 울워르샤, 울워리, 울워룸

이들 중에서 르 말음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은 (70′ㄴ)이다. 즉 '울워르-+-샤, 울워르-+-어, 울워르-+-움'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르 정칙 어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르 말음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132] 그러나 재분석은 규칙 목록에 있는 규칙만 역적용할 수 있다면 일어나며, 분석된 결과 기저형이 용언 어간의 일반적 성향을 따르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133] 이렇게 재분석된 어간 '울워르-'가 자음어미 앞에도 쓰이게 된 것이 르 정칙의 (70ㄱ)이다.

한편 (70ㄴ)은 르 변칙 어간으로의 변화인데, ㄹ 말음에서 르 변칙으로 직접 변했다기보다는 (70ㄱ)과 같은 르 정칙의 단계를 거쳐서 변칙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르 정칙에서 르 변칙으로의 변화는 중세 국어에 르/ᄅᆞ 정칙이라 확언할 만한 어간이 없었고, 현재에도 르 정칙 어간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3.2.3에서 논의된 서남 방언의 '길:-/기르-⇒기르-⇒기르-/길르-'에서 르 정칙의 '기르-'가 르 변칙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즉 르 정칙이 희소하다는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의 압력을 받아 다수의 어간이 존재하는 르 변칙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

132) 이러한 이유로 고영근(1997:132)에서는 중세 국어의 르 변칙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였다. 아-게 어미와의 결합에서 ㄹㅇ으로 실현되는 것과 ㄹㄹ로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논하지 않았다.

133) 재분석 자체는 늘 새로운 형태의 기저형을 만들어 낸다. '서-'가 재분석된 '서-/스-'나 '셔-'이 재분석된 '셕-/셔ㄲ-' 등은 기존의 어간 구조와는 분명 다른 것이며, 이는 곧 용언 어간 구조 조건과는 상충됨을 의미한다. 재분석과 유추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변화 요인이며, 전자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문법을 후자가 간소하게 만든다고 한 것이다.

재분석의 결과가 어휘부 내에서 희소한 르 정칙 어간일 수 있음은 재분석 자체와는 무관하다. 앞선 '먹-'의 경우, 얼마든지 '머그-'로 재분석은 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평준화되었을 때의 어간이 여타 ㅡ 말음 어간들 속에서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저지되었던 것처럼 '날-/나르-'까지의 재분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왜 예외적인 르 정칙 '나르-'로 평준화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머그-'의 경우를 볼 때 딱히 설명할 방안이 없다. 다만 그 예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머그-'는 소멸되고 '나르-'는 변칙 어간으로 바뀌지 않았나 추정만 해 볼 따름이다.

다음은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ㅓ 탈락을 버리고 ㅡ 탈락을 역적용한 예이다.[134]

(71) "立" 서-+-어 —(ㅓ 탈락)→ 서 ····(ㅡ탈락)···→ 스-+-어

"渡" 건:너-+-어 —(ㅓ 탈락)→ 건:너 ····(ㅡ탈락)···→ 건:느-+-어

이처럼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ㅓ 탈락을 재분석 과정에서 적용시키지 않는 일은 드문데, 이는 도출 과정에서 ㅓ 탈락이 적용될 ㅓ 말음 어간이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부 방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도출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은 ㅓ/ㅏ 탈락을 이용하여 재분석하는 경우가 다른 방언에서 종종 발견된다.

(72) ㄱ. 꼬(H)-(索) ⇒ 까(H:)-, 바꾸(LH)-(換) ⇒ 바까(LH:)-, 두(L)-(碁) ⇒ 떠(L)-

꼬-+-아 —(활음화, 활음탈락)→ 까 ····(ㅏ 탈락)···→ 까-+-아

ㄴ. 마시(HL)-(飮) ⇒ 마세(HL)-

마시-+-어 —(활음화, 모음축약)→ 마세(HL) ····(ㅓ 탈락)···→ 마세-+-어

134) 남부 방언에 보이는 '(혀-⇒)써-⇒쓰-'도 이와 같다.

ㄴ'. 씻기(LH)-(使洗) ⇒ 씻게(LH·L)-

씻기-+-어 —(활음화, 모음축약)→ 씻게(LH·L) ····(ㅓ탈락)···→ 씻게-+-어

ㄷ. 보내(LH)-(送) ⇒ 보내(LH·L)-

보내-+-어 —(모음순행동화)→ 보내(LH·L) ····(ㅓ 탈락)···→ 보내-+-어

(72ㄱ)은 주로 경남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135] '까-, 꽈-, 꼬아-, 꼬와-'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들은 활음화, 활음탈락, 활음삽입 등이 적용된 아-게 어미 결합형을 ㅏ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활음화에 따른 장음은 변화된 어간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음장이 변별적이지 않은 지역이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72ㄴ)은 林錫圭(1999:27)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ㅣ로 끝나는 어간과 아-게 어미의 결합에서 활음화, 축약이 적용된 활용형 /마세(HL)/를 ㅓ 탈락이 역적용된 '마세-+-어'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변화가 주로 보이는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崔明玉(1995:169)에 서술된바, ㅣ로 끝나는 2음절 이상 어간의 아-게 어미 결합형이 /Xㅔ Y/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즉 자음어미·으-계 어미 앞에서는 /마시/로, 아-계 어미 앞에서는 /마세/로 실현되기 때문에 활음화와 축약이 어떠한 형태로든 공시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이는 곧 /마세/를 '마시-+-어'로도 분석할 수도 있고 '마세-+-어'로도 분석할 수도 있음을 뜻하며, '마세-'로의 변화를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 할 근거가 된다.

(72ㄴ')은 기저 성조를 인정할 경우 어간말 모음과 함께 성조도 변하였다고 할 예로서, 재분석에 적용된 규칙이 모음순행동화가 아니라 ㅓ 탈락임을 잘 보여준다. '씻기-+-어'에서 도출된 /씻게(LH·L)/에 만일 모

135) 『서울 I』에는 '고:-(煎)'에 대해 /과(:)지/가, 『서울 II』에는 '꼬:-(索)'에 대해 /꽈:구, 꽈:지, 꽌:디/가 보고되어 있다.

음순행동화가 역적용되었다면 '씻게(LH)-+-어'로 분석되었을 것이지만, 어간의 성조에 변동을 주지 않는 ㅓ 탈락이 역적용됨으로써 '씻게(LH·L)-+-어'로 재분석된 것이다.

(72ㄷ)은 성조에만 변화를 겪은 것으로서 '보내(LH)-+-어'에 모음순행동화가 적용된 /보내(LH·L)/를 ㅓ 탈락이 적용된 '보내(LH·L)-+-어'로 재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에 의해 형성된 하강조를 어간말의 성조로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출 과정에서 탈락한 바가 없는 모음 ㅡ, ㅓ가 재분석 과정에서 어간 또는 어미의 일부로서 탈락한 것으로 분석된 예들을 살폈다. 이제는 도출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은 자음이 탈락한 것으로 재분석된 경우를 살펴 보자. 어미의 자음은 활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으며, 주로 으-계 어미 ·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재분석되는 어간말 자음은 후음이기 때문에, 재분석된 어간은 모두 후음 말음 어간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졸고(2001)에 좀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에서는 서울말의 몇 예만을 들어 보도록 한다.

(73) ㄱ. '빠:-(脫) ⇒ 빻:-

cf. ᄇᆞᅀᆞ고, ᄇᆞᅀᆞ면, ᄇᆞᇫ아 > '빠:고, '빠:면, '빠: ⇒ 빠:코, 빠:면, 빠:

빠:-+-아 —(ㅏ 탈락)→ 빠: ····(동일모음탈락, ㅎ 탈락)···→ 빻:-+-아

빠:-+-면 —(규칙∅)→ 빠:면 ····(-탈락, ㅎ 탈락)···→ 빻:-+-으면

ㄴ. 따르-(從) ⇒ 땋-

따르-+-아 —(ㅡ탈락)→ 따라 ····(ㅎ 탈락)···→ 땋-+-아

따르-+-면 —(규칙∅)→ 따르면 ····(ㅎ 탈락)···→ 땋-+-으면

ㄷ. 누-(尿) ⇒ 눟-

누-+-어 —(활음화)→ 눠: ····(활음화, ㅎ 탈락)···→ 눟-+-어

ㄹ. 싣:-/시르-(厭) ⇒ 싫:-/싫- ~ 싱:-/싱-

시르-+-어 —(ㅡ탈락)→ 시러 ····(후음탈락)···→ 싫-+-어 / 싱-+-어

시르-+-면 —(규칙Ø)→ 시르면 ····(후음탈락)···› 싫-+-으면 / 싫-+-으면

ㅁ. 눋:-/누르-(焦) ⇒ 눓:-/눓-

누르-+-어 —(ㅡ탈락)→ 누러 ····(ㆆ탈락)···› 눓-+-어

누르-+-면 —(규칙Ø)→ 누르면 ····(ㆆ탈락)···› 눓-+-으면

ㅂ. 꿇-(跪) ⇒ 꿇-, 읻:-(淘) ⇒ 잃:-/잃-

꿇-+-어 —(규칙Ø)→ 꾸러 ····(ㅎ탈락)···› 꿇-+-어

읻-+-어 —(규칙Ø)→ 이러 ····(ㅎ탈락)···› 잃-+-어

(73ㄱ)은 ㅿ과 ㅇ이 탈락하는 음변화를 겪은 그대로라면 기저형이 '빠:-' 정도가 될 터인데, 현재 ㅎ 말음으로 반영되어 있다.[136] 방언에 따라 ㆆ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 어간 말음은 재구형 *pʌzʌɣ의 ɣ과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郭忠求 1995:805), (66″ㄱ)과는 반대로 /봉아/에서 변화된 아-계 어미 결합형 /빠:/에 ㅎ 탈락, 방언에 따라서는 ㆆ 탈락을 적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37] 또한 (73ㄴ)은 '따르-+-아'에서 ㅡ가 탈락한 /따라/를 ㅎ이 탈락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며, (73ㄷ)은 '누-+-어'에서 도출된 /누어/ 또는 /눠:/를 ㅎ이 탈락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73ㄱ, ㄴ)은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이 동일한 어간으로 재분석될 수 있음에 반해 (73ㄷ)은 아-계 어미 결합형만이 ㅎ 말음으로 재분석될 수 있다.

(73ㄹ)의 ㅀ 말음으로의 변화 역시 ㅎ 탈락을 이용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공존하는 ㅀ 말음 및 (73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138] 단

136) 이 어간은 전국적으로 '뽀숙-, 빠수-, 빠:-' 등의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난다. 그 분포는 郭忠求(1995:799)의 지도를 참조할 수 있다.

137) '그ㅿ-(引)'의 반사형 '꾷-', '꾷-'도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138) ㄹ 뒤의 경음과 격음이 자유롭게 변이를 보일 뿐 기저형을 ㅀ 말음으로 따로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이를 공시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려니와 ㅀ 말음으로만 나타나는 지역은 어떻게 설명될

지 ㆆ의 추상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 문법 내에 존재하지 않던 ㆆ 탈락을 역적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점도 재분석에 의한 설명의 큰 난점이다.[139]

(73ㅂ)은 ㄹ 말음이 ㅀ 말음으로 변한 몇 안 되는 예인데, 아-계 어미 결합형을 ㅎ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140] 다만 재분석 시기에 ㄹ 말음 어간에 으-계 어미의 '-으X'가 결합할 수 있었다면 /꾸르면, 이르면/이 발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활용형도 함께 '꿇-+-으면, 잃-+-으면'으로 분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3.3.2.3. 동일 규칙의 적용

도출 과정과 재분석 과정에 같은 규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어간이 달리 분석되기도 한다. 매우 드문 경우로서 서울말에서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74) ㄱ. 꼬-(索) ⇒ 꾸-, 쏘-(射) ⇒ 쑤-, 보-(見) ⇒ 부-, 놓-(放) ⇒ 눟-

꼬-+-아 —(활음화)→ 꽈: ····(활음화)···→ 꾸-+-아

ㄴ. 거두(LH)- ⇒ 거두(LH·L)-

거두-+-아 —(활음화)→ 거돠(LH·L) ····(활음화)···→ 거두-+-아

(74ㄱ)의 '꾸-, 쑤-'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다소 보이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 한편 유필재(2001:112)에서는 (73ㅁ)을 'ㄹ 불규칙'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불규칙 어간들은 복수의 이형태(본서의 기저형에 가까움) 및 실현 환경을 제시한 반면, 이 어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39) 기존의 ㆆ 탈락을 후음 탈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140) '슳-(産卵)'이 전남 많은 지역(이기갑 외 편 1998)에서 '싫-', 경북 영주(林錫圭 1999)에서 '씷-'로 나타나고, '줄:-(減)'이 전북 부안(김옥화 2001)에서 '줋:-'로 나타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며, '부-, 놓-'은 경북 영덕군의 혜안(崔明玉 1980)에서 보고된 어형이다. 어간의 모음이 유지되는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에 음변화가 적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ㅗ>ㅜ'일 것이다. 崔明玉(1982:38)에서는 이 음변화가 일반적으로 비어두에서 일어났지만 이들 어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음변화 'ㅗ>ㅜ'는 지역적인 제한도 크게 받지 않으며 주로 비어두의 단모음이라는 음운론적 환경만 주어진다면 문법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74ㄱ)과 같이 특정 지역의 용언 어간에만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아-계 어미 결합형에 음변화가 일어나 /꽈:/에서 /꿔:/로 먼저 변화한 것이라면 그것은 'ㅏ>ㅓ'일 것이나 그러한 음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의 실마리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모음조화 양상에 있다. 崔明玉(1992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아X'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곳으로서 ㅜ 말음의 1음절 어간에도 '-아X'가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꾸-'의 아-계 어미 결합형이 /꽈:/로 나타나기 때문에 '꼬-+-아'에서 도출된 /꽈:/도 얼마든지 '꾸-+-아'로 분석될 수가 있는 것이다. 도출과 재분석 과정에서 똑같이 활음화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모음조화로 인하여 어간을 달리 분석한 결과이다. '놓-⇒눟-'도 마찬가지로서 '놓-+-아'에 후음탈락과 활음화가 적용된 /놔:/를 '눟-+-아'에 후음탈락과 활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재분석하여 어간을 변화시켰다.

(74ㄴ) 역시 도출과 재분석 과정에서 활음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중세 어형 '거두(平去)-'의 성조는 동남 방언에서 그대로 LH로 반영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위와 같이 LH·L로 바뀐 곳도 꽤 많다. H가 음변화에 의해 H·L로 바뀌는 다른 예를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H·L이 일반적으로 형태소 내부에는 없고 활음화나 모음순행동화 등을 겪은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두(LH)-+-아'에서 활음화를 겪은 /거돠(LH·L)/의 H·L을 어간의 성조로 파악하여 '거두(LH·L)-+-아'로 재분석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듯하다. 어간의 기저 성조는 변하였지만, 역적용된 규칙은 도출 과정에서와 같은 활음화이다.

제4장 변화의 유형

앞서 우리는 용언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과 표면형 그리고 그들을 연결지어 주는 관계들의 총합인 도출 패러다임을 확인하여 그 변화를 개관하고,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들 변화가 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도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변화의 대상에 따라 기저형의 변화, 표면형의 변화, 도출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변화의 요인에 따라 음변화에 의한 변화, 어휘부 최적화에 의한 변화, 재분석에 의한 변화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분류만으로 활용에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 변화 전반을 조망할 수만 있다면 굳이 유형화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류로는 변화가 직접 일어난 기저형과 표면형에만 주목하기 쉽다. 즉 변하지 않은 부분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절말 'ㅅ>ㄷ'에 의해 폐쇄음화가 첨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서술에 그치고 말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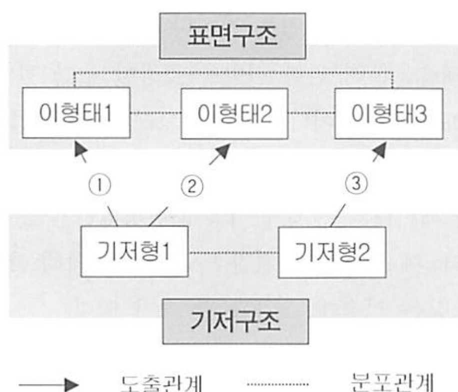
(1) //벗-//—(규칙∅)→/벗/ → //벗-//—(폐쇄음화)→/벋/

이러한 변화 서술은 '벗-(脫)'의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음변화라는 요인에 의해서 표면형이 변하고, 새로운 공시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저형은 그대로인 채 변화된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한 규칙인 폐쇄음화가 첨가되었음은 (1)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간 '벗-'의 패러다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변화인 /벗~벋/ 교체의 생성, 나아가서 ㅅ 말음 어간의 교체의 생성, 더 나아가서는 ㅅㅆㅈㅊ 말음 어간의 교체의 생성은 정작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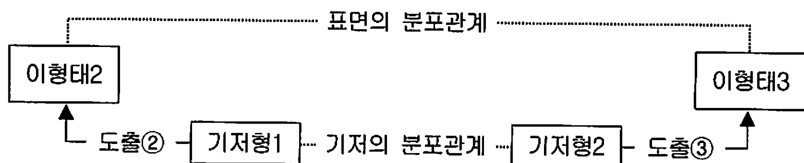
패러다임의 전반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교체라는 전제 아래 본장에서는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유형을 가르는 작업의 초점을 교체 양상의 변화에 두고자 한다. 교체가 없던 형태소가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든가, 있던 교체가 사라졌다든가, 이형태는 바뀌되 교체의 성격은 유지되었다든가, 거꾸로 이형태는 그대로이되 교체의 성격은 달라졌다든가 등에 따라 유형을 나누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생성문법에서는 이형태와 이형태 사이의 관계가 기저형과의 도출 관계 및 기저형들 사이의 분포 관계를 매개로 하여 서술된다.



기술언어학에서 각각의 실현 환경, 즉 표면의 분포 관계로 나타내어

지닌 두 이형태 사이의 대응은 기저형을 매개로 하여 표면의 이형태와 기저형이 맺고 있는 도출 관계 그리고 그 기저형이 또 다른 이형태와 맺고 있는 도출 관계로 나타내어진다. 예컨대 이형태2와 이형태3의 상호 관계는 기술언어학에서와 생성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달리 서술될 것이다.



이형태의 교체는 여러 가지 방향의 변화를 입을 수가 있다. 예컨대 이형태2와 이형태3의 교체의 경우, 이형태2나 이형태3이 다른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형태2나 이형태3의 형식은 그대로인 채, 두 이형태를 연결해 주고 있는 도출 관계가 바뀌거나 기저형이 바뀌거나 기저의 분포 관계만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든 변화들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체를 '둘 이상의 형식으로의 실현'이라는 점에만 국한하여 '이형태↔이형태'가 아니라,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이형태←기저형→이형태'와 같이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1)]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형태 자체만이 아니라 교체의 성격이나 내용에도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교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

1)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하나의 이형태가 기저형과 둘 이상의 도출 관계를 맺고 있을 수가 있다. 장애음 어미 '-고'는 /꼬/로도 실현되는데, 이 /꼬/는 장애음 뒤에서 적용되는 음운규칙으로서의 경음화Ⅰ(예. 잡-+-고→잡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용인 어간말 비음 뒤에서 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으로서의 경음화Ⅱ(예. 안-+-고→안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형태 간의 관계는 /고/←(규칙Ø)—//고//—(경음화Ⅰ 또는 경음화Ⅱ)→/꼬/와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비자동적 교체,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분류되어 왔는데(Hockett 1958), 이들을 그대로 가져와 쓰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언어학의 용어와 분류로써 생성문법의 기저 구조와 도출의 개념 및 도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교체 양상을 적절히 드러내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체의 성격을 음운론적인 것과 어휘론적인 것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하나의 기저형에서 서로 다른 도출을 통해 생성된 이형태들 사이의 교체를 가리키며, 후자는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 즉 기저의 분포 관계를 매개로 한 교체를 가리킨다.[2]

이 구분은 자동적·비자동적 교체의 구분과 비교할 때,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매우 다르다. 어휘론적인 교체는 모두 비자동적이기는 하지만 음운론적인 교체 중에도 그것이 형태음운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쓰-+-고 → 쓰고 vs 쓰-+-어 → 써 　　/쓰~ㅆ/

(2)의 교체 /쓰~ㅆ/은 /그어/(긋:-(劃)+-어) 등으로 보아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음운배열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비자동적인 교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ㅡ 탈락이 규칙으로 상정되는 한 /쓰~ㅆ/에는 기저의 분포 관계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음운론적인 교체라고 하는 것이다.

규칙적·불규칙적 교체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불규칙적 교

2) 이 구분은 宋喆儀(1995)에서 음운규칙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의 구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음운론적 교체와 어휘론적 교체라는 용어는 Kiparsky(1994)의 형태음운론적 교체(morphophonological alternation)와 형태어휘론적 교체(morpholexical alternation)에서 빌린 것인데, 교체 자체가 형태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형태'라는 용어는 뺐다. 이하에서는 두 이형태 또는 이형태군 A, B에 대하여 전자를 A~B로, 후자를 A≈B로 표시하겠다.

체가 어휘론적 교체로 서술되기는 하지만, '규칙적', '불규칙적'이라는 용어가 일반성이나 수적 우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해지기 어렵다. 또한 음운론적·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의 구분은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규칙으로서의 상정 가능성만이 문제가 되며, 그 규칙이 요구하는 조건의 성격은 도출 패러다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1. 교체의 생성

4.1.1. 음운론적 교체의 생성

변화는 새로운 이형태를 생성함으로써 교체를 전혀 보이지 않던 어간에 교체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미 교체를 보이던 어간에 새로운 교체를 추가하기도 한다.[3]

(3) A⇒A～B型

ㄱ. "脫" 벗고, 벗는, 버서	/벗/
⇒ 벋꼬, 번는, 버서	/벋～번～벗/
ㄴ. "老" 늙고, 늙더라, 늙는, 늘그면, 늘거	/늙/
⇒ 늘꼬, 늑떠라, 능는, 늘그면, 늘거	/늘～늑～능～늙/

3) 여기서의 교체는 기본적으로 두 이형태 사이의 대응 관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A, B, C/와 같이 세 이형태가 실현되는 경우, 교체는 /A～B/, /B～C/, /A～C/의 세 대응 관계를 가리키게 되며, 이를 편의상 /A～B～C/와 같이 나타낸다. 여기에 이형태 /D/가 추가된다면 이형태는 하나가 늘어나지만, 교체는 /A～D/, /B～D/, /C～D/의 셋이 늘어나게 된다.

(3ㄱ)은 통시적인 음변화인 음절말 'ㅅ>ㄷ'과 비음화의 결과 공시적으로 두 규칙이 첨가된 것으로서 이전에는 /벗/으로만 실현되던 어간이 /벋~번~벗/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첨가된 규칙에 의해 도출된 /벋/과 /번/이 추가된 것으로서, 첨가된 규칙의 수와 늘어난 이형태의 수가 같다. (3ㄴ)의 '늙-'은 자음군단순화와 비음화에 의해 교체가 생겨났다.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와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가 모두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 개의 규칙이 첨가되어 세 이형태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

(3)에서 첨가된 규칙은 모두 필수적인 것들로서, 그로 인하여 생겨난 이형태들의 실현 환경은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다.

(3′) ㄱ. 벗 (모든 환경) ⇒ 벗 (모음 앞)
번 (비음 앞)
벋 (그 밖)
ㄴ. 늙 (모든 환경) ⇒ 늙 (모음 앞)
늘 (ㄲ 앞)
능 (비음 앞)
늑 (그 밖)

반면 수의적인 규칙이 첨가되는 경우 첨가된 규칙의 수만큼 음운론적 교체형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3)과 같지만 이형태들의 실현 환경은 (3′)과 같이 상보적이지는 않다.

4)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만이 첨가되면 비음화는 도출 과정에 추가될 수가 없고 /늘떠라, 늘른/ 등이 실현됨으로써 /늘~늙/의 교체만을 보이게 된다.

(4) ㄱ. "脫" 벋꼬, 벋찌, 번는, 버서 /벋~번~벗/

⇒ 벋꼬~벅꼬, 벋찌, 번는, 버서 /벋~벅~번~벗/

ㄴ. "炙" 굽:꼬, 굼:는, 구우면, 구워 /굽:~굼:≈구우~구w/

⇒ 굽:꼬, 굼:는, 구우면, 구워~구어 /굽:~굼:≈구우~구w~구/

(4ㄱ)은 수의적인 위치동화, (4ㄴ)은 원순성 중복에 의한 수의적인 w 탈락이 첨가됨으로써 각각 새로운 이형태 /벅/과 /구/가 생겨났다. 이들 이형태들의 실현 환경은 (3′)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4′) ㄱ. 벗	(모음 앞)	ㄴ. 굽:	(장애음 어미 앞)
번	(비음 앞)	굼:	(비음 어미 앞)
벋	(장애음 앞)	구우	(으-계 어미 앞)
벅	(ㄲ 앞)	구w	(아-계 어미 앞)
		구	(아-계 어미 앞)

(4′ㄱ)의 /벅/이 실현되는 ㄲ 앞이라는 환경은 /벋/이 실현되는 장애음 앞이라는 환경에 포함되며, (4′ㄴ)의 /구w/와 /구/는 아-계 어미 앞으로 실현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수의적 규칙에 의한 수의적 교체가 이와 같은 이형태 실현 환경의 중복을 가져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다만 (4′ㄱ)과 (4′ㄴ)에서 보이는 환경의 포함과 일치의 차이는 음변화 적용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4ㄱ)의 경우는 음변화가 이형태 /벋/에 적용되되 모든 /벋/이 아닌 연구개음 앞에서 실현되는 일부 /벋/에만 적용된 반면, (4ㄴ)의 음변화는 이형태 /구w/가 실현되는 모든 환경에서 모두 적용된 것이다. 전자는 음변화의 동인이 변화가 적용되는 이형태 /벋/의 외부(후행 자음)에 있고, 후자는 이형태 /구w/의 내부(ㅜ와 w)에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4ㄴ)은 이형태 /구w/가 실현되는 모든 환경에서 수의적인 변화가 일

어난 것인데, 같은 조건에서 필수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규칙이 첨가되지라도 이형태는 늘어나지 않고 이전의 이형태가 다른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의 ㅎ 탈락이 그러하다.

(5) "放" 노코, 녿ᄂᆞᆫ~논ᄂᆞᆫ, 노ᄒᆞ면, 노하　　　/노~녿~논~놓/

⇒ 노코, 논는, 노으면~노:면, 노아~놔:　　　/노~논~노:~ㄴw/

15세기 ㅎ 말음 어간의 ㅎ은 장애음과 결합하여 축약을 보이고, 비음 앞에서 ㄷ 또는 ㄴ으로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모음 앞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음변화로서 공명음 사이의 ㅎ이 탈락하고 활음화, 모음탈락이 일어나 현재에는 규칙 ㅎ 탈락, 활음화, 모음탈락이 첨가되어 있다. 이처럼 변화 이전의 규칙인 축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두 규칙이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적인 이형태를 모두 포함한 어간의 교체는 /노~녿~논~놓/에서 /노~논~노:~ㄴw/로 변하여 이형태의 수는 그대로이다.[5]

(5)의 일련의 변화 과정을 보인 다음의 도식에서 활음화와 모음탈락이 첨가된 시기4 · 5는 앞서 논의한 바대로 수의적인 활음화에 의해 이형태 /ㄴw/, 수의적인 모음탈락에 의해 이형태 /노:/가 늘어난 것이다.

5) /노코/가 하나의 형태(morph)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노코/나 /노으면/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형태를 분석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간혹 /노코/의 어간 이형태를 /놓/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면에 실현되지 않은 ㅎ을 형태의 일부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장애음 앞		비음 앞		모음 앞
시기1	노	~	놓~논	~	놓
			비음화의 필수화		
시기2	노	~	논	~	놓
					ㅎ 탈락 (필수)
시기3	노	~	논	~	노
					활음화 (수의)
시기4	노	~	논	~	노~ㄴw
					모음탈락 (수의)
시기5	노	~	논	~	노~노:~ㄴw

우선 시기2는 비음 앞의 이형태가 /놓~논/에서 /논/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의적이던 규칙이 필수적인 규칙으로 바뀌었다고 추정하고자 한다. 수의적이던 규칙이 필수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음변화가 마무리되어 규칙을 지배하는 제약이 정도성의 제약에서 가·불가의 제약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시기3의 ㅎ 탈락은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규칙 첨가와 상황이 다르다. 첫째, 앞선 (3)이나 (4)의 경우와는 달리 규칙(ㅎ 탈락)이 첨가되었음에도, 교체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형태의 형식만이 /놓/에서 /노/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는 이형태 /놓/이 실현되는 모든 환경에서 필수적인 규칙이 적용된 결과인데, 음변화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형태가 실현되는 모든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앞선 (4ㄴ)과 같지만, 그 변화 자체 또는 그로 인해 첨가된 규칙이 수의적이냐 필수적이냐에 따라 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형식만이 대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규칙이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놓~논~노/에서 /논~노/로 변하여 오히려 이형태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놓/에서 ㅎ이

탈락하여 생성된 결과가 이미 존재하던 장애음 앞의 이형태 /노/와 같은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형태의 감소는 규칙 첨가와 궁극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우연한 일치일 뿐이다. 축약과 탈락이 모두 원래의 분절음이 어떠한 식으로든 남는 것이 아니라, 두 분절음이 하나의 분절음으로 바뀐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이 두 음운 규칙이 하나의 어간에 모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교체는 대체로 음변화에 의해 규칙이 첨가되었을 때에 생겨난다. 그러나 모든 음변화가 규칙을 첨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규칙이 첨가된다고 하여 모두 음운론적 교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규칙이 첨가되어 음운론적 교체가 생성되는 것은 규칙의 적용을 받은 이형태와 그렇지 않은 이형태가 공존할 때뿐이다. 이 공존은, (3)에서와 같이 필수적인 규칙이 적용되되 다른 환경에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형태가 실현될 때, 그리고 (4)에서와 같이 수의적인 규칙이 적용되어 같은 환경에서 두 이형태가 실현될 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음운론적인 교체가 새로 생겨났다.

(6) ㄱ. "炙" 굽:고, 구ᄫᅳ면, 구ᄫᅥ	/굽:~구ᇦ/
⇒ 굽:꼬, 구우면, 구워	/굽:≈구우~구w/
ㄴ. "報" 갑꼬, 감는, 가프면, 가파	/갑~감~갚/
⇒ 갑꼬, 감는, 가프면, 가파	/갑~감≈갚~가프/

(6ㄱ)에서 교체의 중심적인 변화는 /구ᇦ/과 그 밖의 이형태가 보이는 음운론적인 교체가 음변화에 의해 어휘론적 교체로 변한 것으로서 4.2.3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6ㄴ)에서 교체의 중심적인 변화는 /갑, 감/과 그 밖의 이형태가 보이는 음운론적인 교체가 재분석에 의해 어휘론적 교체로 변한 것으로 4.2.2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구ᇦ:-⇒굽:-/구우-',

후자는 '갚-⇒갑-/가프-'의 기저형 변화를 겪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6ㄱ)에서 /구우~구w/, (6ㄴ)에서 /갚~가프/라는 음운론적 교체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들 교체의 생성은 각각 음변화와 재분석에 의한 기저형 변화가 가져온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규칙이 도출 과정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6]

(6ㄱ)의 경우 음변화를 겪은 /굽/은 으-계 어미 앞에서도 실현되고 아-계 어미 앞에서도 실현되었는데, 여기에 적용된 'ㅸ>w'가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그대로 표면형에 반영되었지만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후행하는 ㅡ와 축약되어 ㅜ로 바뀌는 과정을 다시 겪었다. 변화 이전 같은 어간 이형태 /굽/을 포함하고 있는 활용형 /구ᄫᅳ면/과 /구ᄫᅥ/는 둘 모두 동일한 기저형 //굽:-//에서 동일한 도출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음변화를 겪은 활용형 /구우면/과 /구워/는 동일한 기저형 //구우-//에서 도출되기는 하지만 전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반면 후자는 활음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재구성되었다. /굽/이 실현되던 환경이 둘로 갈리어 /구우~구w/로 실현되는 것이다.

(6ㄴ)도 변화의 요인은 다르지만 새로운 음운론적 교체가 생기게 된 과정은 (6ㄱ)과 같다. 변화 이전의 이형태 /갚/은 기저형 //갚-//이 으-계 어미,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서 공히 규칙의 적용 없이 실현된 /가프면, 가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활용형은 서로 다른 도출 과정을 겪은 것으로 재분석되었다. 각각 '가프면⋯›가프-+-면', '가파⋯⋯(ㅡ탈락)⋯›가프-+-아'로 재분석된 것이다.

결국 (6)에서 음운론적 교체가 덧생긴 것은, 음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규칙이 첨가된 결과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기저형 변화

6) (6ㄱ)은 A⇒A~B가 아닌 A⇒B~C라는 점에서, (6ㄴ)은 표면형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앞선 예들과 다르다.

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1.2. 어휘론적 교체의 생성

새로이 추가되는 교체에는 음운론적인 것 이외에 어휘론적인 것도 있다. 어휘론적인 교체가 생겨난다고 함은 기저형의 수가 늘어남을 의미한다.[7]

(7) A⇒A≈B型

ㄱ. "化"	tojko, tojmjən, toja	/toj/
	⇒ töko, tömjən, twɛ:	/tö≈twɛ:/
ㄴ. "餓"	kijko, kijmjən, kijə	/kij/
	⇒ kiko, kimjən, ke:	/ki≈ke:/
ㄷ. "躍"	t´ujko, t´ujmjən, t´ujə	/t´uj/
	⇒ t´üko, t´ümjən, t´we:	/t´ü≈t´we:/

(7ㄱ)은 서울말에서 온전하게 쓰이고 있는 반면, (7ㄴ, ㄷ)의 /게:, 뛔:/는 간혹 발견될 뿐이다(유필재 2001:128~131). 이들은 모두 자음 앞의 하향이중모음과 모음 앞의 하향이중모음이 서로 다른 변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이들의 /돼:, 게:, 뛔:/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통시론적이든 공시론적이든 ㅕ/ㅑ에서 ㅔ/ㅐ로의 변화 또는 변동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진호(2002)의 논의를 좇아 새로이 생성된 교체를 어휘론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

7)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A~B의 교체를 하던 단일 기저형이 복수 기저형으로 바뀌면서 A≈C의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7)은 단순히 새로운 이형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형태의 교체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앞선 음운론적 교체의 생성과 외형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실은 서로 다른 두 변화가 적용되었을 뿐이다. 즉 V_jC와 VjV에 별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ㄱ)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8) ㄱ. tojko, tojmjən, toja	/toj/	
⇒ töko, tömjən, toja	/tö≈toj/	ojC의 변화
⇒ töko, tömjən, twɛ:	/tö≈twɛ:/	oja의 변화
ㄴ. tojko, tojmjən, toja	/toj/	
⇒ töko, tömjən, töa	/tö/	oj의 변화
⇒ töko, tömjən, twɛ:	/tö≈twɛ:/	öa의 변화

(8ㄱ)에 따르면 첫째 변화는 A⇒B≈A이고, 둘째 변화는 B≈A⇒B≈C가 된다. (8ㄴ)에 따르면 첫째 변화는 A⇒B이고, 둘째 변화는 B⇒B≈C가 된다. 즉 전자의 첫 번째 변화와 후자의 두 번째 변화에서 어휘론적 교체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매우 특수한 변화로서, 용언 어간 구조 조건에 의해 기존의 교체에 어휘론적 교체가 덧생겨난 다음의 변화 정도가 해당될 뿐이다.

(9) "不勝" 겨우고, 겨우면, 겨워	/겨우~겨w/
⇒ 겹:고, 겸:니, 겨우면, 겨워	/겹:~겸:≈겨우~겨w/

기존의 이형태에 어휘론적 교체형이 덧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저형의 수가 늘어나는 대부분은 이형태의 수는 그대로 유지된 채 기존의 음운론적 교체가 어휘론적 교체로 바뀌는 것들이다.

4.2. 교체 형식과 성격의 변화

4.2.1. 형식의 변화

변화는 어떠한 식으로든 교체에 영향을 끼친다. 전혀 교체를 하지 않던 어간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현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10) ㄱ. "練" 다ᄃᆞᆷ고, 다ᄃᆞᄆᆞ면, 다ᄃᆞ마 /다ᄃᆞᆷ/
⇒ 다듬고, 다드므면, 다드머 /다듬/
ㄴ. "匍" ᄀᆡ고, ᄀᆡ면, ᄀᆡ어 /ᄀᆡ/
⇒ 기고, 기면, 기어 /기/

(10ㄱ)과 같이 어간 내부에 음변화가 적용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10ㄴ)과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에 적용되었을 때에도 이처럼 단일한 형태가 이전과 형식만을 달리하여 실현될 수가 있다.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는 형식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교체의 증감이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 이전의 어간이 교체를 보이고 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A~B로 교체하던 어간이 A~C 교체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운론적인 교체이던 A~B가 A≈B와 같이 형식은 그대로인 채 어휘론적인 교체로 바뀔 수도 있다.

(11) A~B⇒A~C型
ㄱ. "除" ᄎᆞ고, ᄎᆞ면, 처 /ᄎᆞ~ㅊ/
⇒ 치고, 치면, 처 /치~ㅊ/

ㄴ. "飢" 고ᄑᆞ고, 고ᄑᆞ면, 고파 /고ᄑᆞ~곺/

⇒ 고프고, 고프면, 고파 /고프~곺/

ㄴ'. "蹴" ᄎᆞ고, ᄎᆞ면, 차 /ᄎᆞ~ㅊ/

⇒ 차고, 차면, 차 ①/차~ㅊ/ ②/차/

(11ㄱ)은 전설모음화, (11ㄴ)은 'ㆍ>ㅡ'의 영향으로 자음 앞의 이형태가 변화를 겪은 예로서, 변화 이후에도 음운론적 교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음변화가 일부 이형태에만 적용되었지만 변화된 이형태와 변화되지 않은 이형태가 규칙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적용되는 규칙은 달라지는데, (11ㄱ)은 변화 전 '츠-+-어'에 ㅡ 탈락이 적용되던 것이 변화 후에는 '치-+-어'에 활음화에 이은 활음탈락 혹은 ㅣ 탈락이 적용되고 있으며, (11ㄴ)은 변화 전 ㆍ탈락에서 변화 후 ㅡ 탈락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졌다.

(11ㄴ')은 어두의 음변화 'ㆍ>ㅏ'의 결과 기저형이 'ᄎᆞ-'에서 '차-'로 바뀐 예이다. 변화 이전의 아-계 어미 결합형 /차/의 어간 이형태를 /ㅊ/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변화 이후의 활용형 /차/는 모음 ㅏ가 어미의 것인지 어간의 것인지에 따라 /ㅊ-ㅏ/로 분석될 수도 있고 /차-ø/로 분석될 수도 있다. 전자의 분석이라면 ①과 같이 /차~ㅊ/로 여전히 교체가 남아 있되 형식만이 바뀌었다고 할 것이지만, 후자의 분석이라면 어간은 교체하지 않고 /차/로만 실현되어 음변화 결과 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은 ㆍ의 변화로 인한 (11ㄴ)과 평행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으며, ②는 앞서 (5)에서 ㅎ 탈락에 의한 이형태가 기존의 이형태와 같아짐에 따라 이형태가 줄어든 현상과 평행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음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기저형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이 단일 기저형이 그대로 유지되되 그 형식만이 달라진 것이다. 어휘부의 최적화에 의한 변화는 주로 복수 기저형을 지닌 어간에서

일어나며, 재분석에 의한 변화는 그 결과가 언제나 복수 기저형에 의한 어휘론적 교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12) A≈B⇒A≈C型

ㄱ. "速" ᄲᅡᄅᆞ고, ᄲᅡᄅᆞ면, ᄲᅡᆯ라 /ᄲᅡᄅᆞ≈ᄲᅡᆯㄹ/

⇒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ㄹ/

"異" 다ᄅᆞ고, 다ᄅᆞ면, 달 /다ᄅᆞ≈달ㅇ/

⇒ 다르고, 다르면, 달라 /다르≈달ㄹ/

ㄴ. "近" 가깝고, 가깜니, 가까우면, 가까워

/가깝~가깜≈가까우~가까w/

⇒ 가까웁고, 가까움니, 가까우면, 가까워

/가까웁~가까움≈가까우~가까w/

(12ㄱ)은 각각 음변화 'ㆍ>ㅡ'와 'ㆍ>ㅡ, ㄹㅇ>ㄹㄹ'이 적용되어 'ᄲᅡᄅᆞ-/ᄲᅡᆯᄅᆞ-, 다ᄅᆞ-/달ᄋᆞ-'에서 '빠르-/빨르-, 다르-/달르-'로 기저형이 변화된 것이며, (12ㄴ)은 감염에 의해 '가깝-/가까우-'에서 '가까웁-/가까우-'로 기저형이 변화된 것이다. 변화 전후의 기저형들이 모두 복수 기저형으로서 어휘론적 교체를 유지하면서 이형태의 형식만이 변하였다.

4.2.2. 성격의 변화

지금까지의 변화들은 음운론적 교체 또는 어휘론적 교체라는 교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식만이 달라진 것들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형식은 그대로이지만 교체의 성격만이 달라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재분석에 의한 변화가 주로 여기에 속한다.

(13) A~B⇒A≈B型

ㄱ. "立"	서고, 서면, 서	/서~ㅅ/	//서-//
	⇒ 서고, 서면, 서	/서≈ㅅ/	//서-/스-//
"渡"	건너고, 건너면, 건너	/건너~건ㄴ/	//건너-//
	⇒ 건너고, 건너면, 건너	/건너≈건ㄴ/	//건너-/건느-//
ㄴ. "從"	따르고, 따르면, 따라	/따르~딸/	//따르-//
	⇒ 따르고, 따르면, 따라	/따르≈딸/	//따르-/딿-//
ㄷ. "報"	갚꼬, 감는, 가프면, 가파	/갑~감~갚/	//갚-//
	⇒ 갚꼬, 감는, 가프면, 가파	/갑~감≈갚~가프/	//갚-/가프-//

(13)은 변화의 결과가 표면형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재분석에 의한 기저형 변화이다. 용언 어간의 교체란 활용형들의 대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활용형을 어간 형태와 어미 형태로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의 어간 이형태들의 대응을 뜻한다. 그리고 생성문법에서의 교체란 이형태뿐만이 아니라 기저형까지 고려한 상호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변화가 없다고 하여도 어간 교체의 변화는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ㄱ)은 아-계 어미 결합형이 ㅡ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되기는 하였지만, ㅡ 말음 어간이든 변화 전의 ㅓ 말음 어간이든 표면에는 모음탈락에 의해 /ㅅ/과 /건ㄴ/으로 실현됨으로써 이형태가 유지되고 있다.[8] 한편 자음어미 결합형은 ㅡ 말음으로 재분석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자음어미 앞에서는 이전의 기저형인 '서-'와 '건너-'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서/와 /ㅅ/, /건너/와 /건ㄴ/은 형식은 그대로이지만, 변화 이전 단일 기저형 '서-, 건너-'에서 규칙에 의해 도출되던 음운론적 교체에

8) 변화 이전의 활용형 /서, 건너/ 등을 어미의 ㅓ가 탈락한 것으로 본다면, 이 어간은 교체하지 않던 /서/, /건너/에서 /서≈ㅅ/, /건너≈건ㄴ/로 어휘론적 교체가 생성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서, '서-/스-, 건너-/건느-'의 복수 기저형에 의한 어휘론적 교체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13ㄱ') 서 ←(규칙Ø)— //서-// —(ㅓ탈락)→ ㅅ
⇒ 서 ←(규칙Ø)— //서-//←……→//스-// —(ㅡ탈락)→ ㅅ
건너 ←(규칙Ø)— //건너-// —(ㅓ탈락)→ 건ㄴ
⇒ 건너 ←(규칙Ø)— //건너-//←……→//건느-// —(ㅡ탈락)→ 건ㄴ

(13ㄴ)은 /따르/가 실현되는 활용형 중 으-계 어미 결합형과 /딸/이 실현되는 아-계 어미 결합형의 기저형이 '땷-'로 재분석된 것이다. 재분석된 기저형 '땷-'은 모음 앞에서 언제나 ㅎ을 탈락시켜 /딸/로만 실현되어 변화 이전의 '따르-'에서 ㅡ가 탈락한 /딸/과 같은 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3ㄷ)은 /갚/이 실현되는 활용형 /가프면, 가파/가 각각 '가프-+-면'과 '가프-+-아'로 재분석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갑, 감/과 음운론적 교체를 보이던 /갚/이 어휘론적 교체를 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형식의 활용형 /가프면/이 변화 이전에는 /갚-으면/으로 형태 분석된 데에 반해 변화 이후에는 /가프-면/으로 분석되었다.

(13ㄱ)은 이형태가 실현되는 환경도 변화 전후에 있어서 동일하다. 즉 /서/와 /건너/는 자음 앞에서, /ㅅ/과 /건ㄴ/은 모음 앞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형태론적인 조건을 보아도 전자는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후자는 아-계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는 점에도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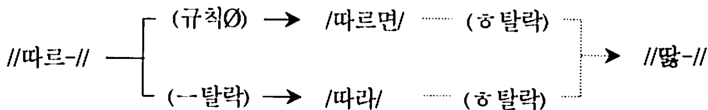
반면 (13ㄴ, ㄷ)의 이형태들은 실현되는 환경에 변화가 있다.

(13ㄴ') ① /따르/ (자음 앞) /딸/ (모음 앞)
② /따르/ (자음어미 · 으-계 어미 앞)⇒/따르/ (자음어미 앞)
/딸/ (아-계 어미 앞) /딸/ (으-계 어미 · 아-계 어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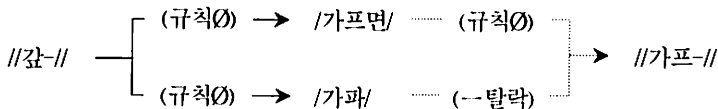
(13ㄷ′) /갑/ (장애음 앞)	⇒	/갑/	(장애음 앞)
/감/ (비음 앞)		/감/	(비음 앞)
/갚/ (모음 앞)		/갚/	(아-계 어미 앞)
		/가프/	(으-계 어미 앞)

(13ㄴ′)은 음운론적 환경만을 보면 ①과 같이 자음 앞의 /따르/, 모음 앞의 /딸/로서 재분석 전후에 변화가 없지만,[9] 형태론적인 환경은 ②와 같이 달라졌다. (13ㄷ′)은 변화 이전 음운론적 환경으로 기술될 수 있던 이형태 실현 환경이 변화 이후에는 음운론적인 것만으로는 기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음 앞의 /갚/이 둘로 나뉘어 아-계 어미 앞의 /갚/과 으-계 어미 앞의 /가프/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형태 실현 환경의 변화는 도출 과정과 재분석 과정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 기인한다.

(13ㄴ″)



(13ㄷ″)



9) 재분석 이전의 형태분석은 /따르-고, 따르-면, 딸-아/인 반면 이후의 형태분석은 /따르-고, 딸-으면, 딸-아/로 으-계 어미 결합형의 분석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자음 앞의 /따르/, 모음 앞의 /딸/임에는 변함이 없다.

(13ㄴ″)의 도출 과정에서는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이 서로 다른 과정(규칙Ø와 ㅡ 탈락)을 통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형태 /따르~딸/의 교체를 보였지만, 재분석 과정에서는 이들이 같은 과정(ㅎ 탈락)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형태 /딸/로 실현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13ㄷ″)에서는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이 서로 다른 과정을 겪는 것으로 재분석되었기 때문에 두 이형태 /가프/와 /갚/으로 실현되고 있다. 둘 이상의 활용형이 재분석될 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교체의 성격이 어휘론적인 것에서 음운론적인 것으로 바뀐 경우라 할 것이다.

(14) A≈B⇒A~B型

ㄱ. "悲" 슬푸고, 슬푸면, 슬퍼 /슬푸≈슲/ //슬푸-/슲-//

⇒ 슬푸고, 슬푸면, 슬퍼 /슬푸~슲/ //슬프-//

ㄴ. 덮-(覆)+-으면→더푸면, 짚(藁)+-을→지풀

(14ㄱ)의 변화 전 패러다임은 원순모음화가 형태소 내부에만 적용되고 형태소 경계에까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변화를 겪은 패러다임은 모든 환경에서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어 (14ㄴ)과 같이 활용에서든 곡용에서든 적용되는 음운규칙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10] 이형태의 형식은 /슬푸/와 /슲/으로 동일하지만 변화 이전에는 복수 기저형이던 어간이 단일 기저형으로 바뀜으로써 교체의 성격이 변하였다.

표면에 양순음과 ㅡ의 연쇄가 실현될 수 없다는 음운제약이 존재할

10) 실제로 곡용에서 모든 양순음 뒤의 원순모음화가 잘 적용되는 방언은 많지 않다.

때에 어간의 기저형은 굳이 이전의 '슬푸-/슳-'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법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슬프-'의 단일 기저형을 설정하고 음운규칙인 원순모음화를 형태소 내부에서도 적용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리는 예컨대 '풀-(解)'의 기저형을 //플-//로 설정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풀-'의 어간 모음 ㅜ는 교체를 보이지 않음에 반해 '슬프-'의 ㅡ는 아-계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하여 결과적으로 /ㅜ~ø/의 교체를 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체의 성격은 그대로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휘론적 교체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다음이 그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15) $A \approx_i B \Rightarrow A \approx_i B$型

ㄱ. "補" 깁:꼬, 김:는, 김:는다, 기우면, 기워 /깁:~김:≈기우~기w/

⇒ 깁:꼬, 김:는, 기운다, 기우면, 기워 /깁:~김:≈기우~기w/

ㄴ. "劃" 긋:꼬, 근:는, 근:는다, 그:면, 그어 /긋:~근:≈그:~그/

⇒ 긋:꼬, 근:는, 근:다, 그:면, 그어 /긋:~근:≈그:~그/

(15)는 앞서 3.2.2에서 살핀 변화로서, 그 교체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형태의 형식이나 교체의 성격에는 도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으-계 어미 앞에서 실현되던 /기우/와 /그:/가 일부 자음어미 앞에까지 쓰이게 되었는데, (15ㄱ)을 예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기저형 선택 조건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5′) 깁:- (자음어미 앞) ⇒ 깁:- (그 밖)

기우- (그 밖) 기우- (복수 기저형 앞)

기저형 선택 조건은 도출 패러다임 내에서 기저 층위의 분포 관계를

말한다. 두 이형태 사이의 관계란 단순히 표면적인 분포 관계만이 아니라 도출 관계 및 기저의 분포 관계를 매개로 할 때 온전히 서술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표면적인 변화가 없는 /깁:~깁:≈기우~기w/라 하더라도 도출 패러다임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깁:/과 /기우/만을 보면 다음과 같이 (15″ㄱ)에서 (15″ㄴ)으로 교체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15″) /깁:/ ←···→ /기우/
ㄱ. /깁:/←(비음화)—//깁:-//←·(기저의 분포관계1)·→//기우-//—(규칙Ø)→/기우/
ㄴ. /깁:/←(비음화)—//깁:-//←·(기저의 분포관계2)·→//기우-//—(규칙Ø)→/기우/

4.2.3. 복합적 변화

다음은 이형태의 형식과 교체의 성격이 모두 변한 예이다. 여기에는 음운론적 교체가 어휘론적 교체로 바뀌면서 이형태들도 바뀐 변화와 어휘론적 교체가 음운론적 교체로 바뀌면서 이형태들도 바뀐 변화의 두 가지가 있다.

(16) A~B⇒A≈C型

ㄱ. "擔"	메:고, 메:면, 메어	/메:~메/	//메:-//
	⇒ 미:고 미:면 메어	/미:≈메/	//미:-/메-//
ㄴ. "悲"	슬프고, 슬프면, 슬퍼	/슬프~슲/	//슬프-//
	⇒ 슬푸고, 슬푸면, 슬퍼	/슬푸≈슲/	//슬푸-/슲-//
ㄷ. "炙"	굽:고, 구브면, 구버	/굽:~굽/	//굽:-//
	⇒ 굽:꼬, 구우면, 구워	/굽:≈구우~구w/	//굽:-/구우-//

"作" 짓:고, 지ᅀᅳ면, 지ᅀᅥ /짓:~지ᇫ/ //지ᇫ:-//
⇒ 짇:꼬, 지으면, 지어 /짇:≈지으~지/ //짇:-/지으-//

(16)은 일부 이형태에 음변화가 일어난 결과 이전과는 달리 복수 기저형을 취하게 된 변화이다. (16ㄱ)은 자음 앞에서 장모음을 유지하던 이형태가 음변화 'ㅔ:>ㅣ:'를 겪은 반면, 단모음화가 적용되어 단모음의 ㅔ로 실현되던 모음 앞 이형태는 음변화를 겪지 않았다. 변화 이전의 이형태 /메:/와 /메/와는 달리 변화 이후의 /미:/와 /메/는 규칙으로 서술될 수 없는 어휘론적 교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6ㄴ)은 모음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으로써 자음 앞의 이형태만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변화 이전의 두 이형태 /슬프/와 /슲/은 ㅡ 탈락으로 서술될 수 있는 음운론적 교체를 보이지만, 원순모음화가 곡용에까지 확대되지 않아 양순음과 ㅡ의 연쇄를 막는 음운제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슬푸/와 /슲/은 어휘론적인 교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6ㄷ)은 음운론적인 교체가 부차적으로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16ㄱ, ㄴ)과 흡사하다. ㅸ과 ㅿ이 자음 앞에서 각각 ㅂ과 ㅅ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형태가 겪은 'ㅸ>w', 'ㅿ>ø'를 겪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6)은 음변화를 겪기 이전에 어간 말음이 교체를 하고 있어서 음변화의 적용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 일부 이형태가 바뀌고, 변화된 이형태와 변하지 않은 이형태가 규칙으로는 서술될 수 없는 어휘론적 교체를 보이게 된 유형의 변화이다. 반면 다음의 (16′)은 활용형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분석으로 인하여 어간의 이형태 및 교체의 성격이 변한 경우이다.

(16′) "索" 꼬:고, 꼬:면, 꽈:		/꼬: ~ ㄲw/	//꼬:-//
	⇒ 꼬:고, 꼬:면, 꽈:	/꼬: ≈ 꽈:/	//꼬:-/꽈:-//

아-계 어미 결합형 /꽈:/가 '꽈:-+-아'로 재분석됨으로써 기저형은 '꼬:-'에서 '꼬:-/꽈:-'가 되었는데, 기저형 '꽈:-'에 아-계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 /꽈:/는 /꽈:-ø/로 형태 분석된다.[11] 이렇게 분석된 /꼬:/와 /꽈:/의 교체는 어휘론적 교체이다.

다음은 이형태가 일부 바뀌면서 어휘론적 교체가 음운론적 교체로 바뀐 유형이다. 대체로 평준화가 그 원인이다.

(17) A≈B⇒A~C型

ㄱ. "速"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ㄹ/	//빠르-/빨르-//
	⇒ 빨르고, 빨르면, 빨라	/빨르~빨ㄹ/	//빨르-//
ㄴ. "擔" 미:고, 미:면, 메어		/미:≈메/	//미:-/메-//
	⇒ 미:고, 미:면, 미어	/미:~미/	//미:-//

(17ㄱ)은 자음 앞의 이형태가 /빠르/에서 /빨르/로 바뀌었는데, 변화 이전의 이형태 /빠르/와 /빨ㄹ/과는 달리 변화 이후의 /빨르/와 /빨ㄹ/은 ㅡ 탈락으로 서술이 가능한 음운론적 교체 관계에 있다.

(17ㄴ)은 (16ㄱ)에서 모음상승의 결과 어휘론적인 교체를 보이던 이형태 /미:/와 /메/가 기저형이 '미:-/메-'에서 '미:-'로 단일해짐에 따라 /미:/와 /미/로 바뀌어 단모음화로 서술될 수 있는 음운론적 교체를 이루게 되었다.

---

11) 어미 형태를 장음의 /아:/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이후 평준화된 기저형이 '꽈:-'이기 때문이다.

4.3. 교체의 소멸

4.3.1. 음운론적 교체의 소멸

하나의 기저형에서 서로 다른 도출 과정을 통한 이형태 사이의 교체가 사라지는 것은 두 도출 과정이 동일해짐을 의미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우는 규칙 소실이다.

(18) A~B⇒A型

가고, 알오, …	/고~오…/	알-+-고 —(ㄱ약화)→ 알오
⇒ 가고, 알고, …	/고…/	알-+-고 —(규칙Ø)→ 알고

중세 국어 ㄱ과 ㅇ의 교체 현상이 공시적인 규칙으로 기술될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현대 국어로의 변화를 규칙의 소실에 따른 교체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논하였듯이 ㄱ과 ㅇ의 교체는 규칙으로 서술하기가 매우 곤란한 현상이다. 국어에서 규칙 소실에 의한 교체의 소멸이라 확신할 만한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반면 수의적이던 규칙이 필수적인 규칙이 되면서 교체가 소멸될 수는 있다.

(19) "放" 노코, 논는~놓는, 노하 /노~논~놓~놓/

⇒ 노코, 논는, 노하 /노~논~놓/

(19)는 중세 문헌 표기에 대한 해석이 앞서야 할 것이지만, 이 밖에도 어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현대 국어의 위치동화나 활음화 등도 필수적인 규칙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수의적 규칙이 필수적인 규칙으로 바뀌는 것은 정도성의 제약이 강화되어 가·불가의

제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끝으로 다른 변화에 따른 부산물로서 음운론적 교체가 사라지는 예를 살펴 보자.

(20) ㄱ. "放"	노코, 논ᄂᆞᆫ, 노ᄒᆞ면, 노하	/노~논~놓/		
	⇒ 노코, 논ᄂᆞᆫ, 노으면, 노아	/노~논/	cf. ㅎ탈락참가
ㄱ'. "蹴"	ᄎᆞ고, ᄎᆞ면, 차	/ᄎᆞ~ㅊ/	//ᄎᆞ-//
	⇒ 차고, 차면, 차	/차/	//차-//
ㄴ. "焦"	눋:꼬, 눋:ᄂᆞᆫ, 누르면, 누러	/눋:~눈:≈누르~눌/	//눋:-/누르-//
	⇒ 눋:꼬, 눋:ᄂᆞᆫ, 누르면, 누러	/눋:~눈:≈눌/	//눋:-/눓-//
ㄴ'. "從"	따르고, 따르면, 따라	/따르~딸/	//따르-//
	⇒ 따르고, 따르면, 따라	/따르≈딸/	//따르-/땷-//

(20ㄱ)은 4.1.1에서 살핀 바와 같이 ㅎ 탈락이 적용된 어간의 이형태와 축약이 적용된 어간의 이형태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이형태의 수가 줄어든 예이다. 이 밖에도 (20ㄱ')의 변화에서도 현대 국어의 아-계 어미 결합형 /차/를 어미 모음이 탈락한 /차-ø/로 형태 분석한다면, 역시 /ᄎᆞ~ㅊ/에서 /차/로 음운론적 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20ㄴ)은 /누르면/과 /누러/가 각각 '눓-+-으면', '눓-+-어'로 재분석된 상태인데, 변화 이전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도출된 /누르면/(규칙Ø)과 /누러/(ㅡ 탈락)가 모두 후음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재분석되어 '눓-'의 기저형을 지니게 됨으로써 두 어미 앞의 이형태가 /누르, 눌/에서 /눌/로 같아지게 되었다. 이는 앞서 검토한 '따르-'의 변화와 유사한데, 두 경우 자음어미 앞의 이형태인 (20ㄴ)의 /눋:~눈:/과 (20ㄴ')의 /따르/를 무시한다면, 남은 으-계 어미 앞과 아-계 어미 앞의 이형태는 전자의 경우 /누르~눌/에서 /눌/로, 후자의 경우 /따르~딸/에서 /딸/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3.2. 어휘론적 교체의 소멸

어휘론적인 교체가 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평준화에 의한 것이다. 복수 기저형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휘론적인 교체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21) A≈B⇒A型

"達" 다ᄃᆞᆮ고, 다ᄃᆞᆮᄂᆞᆫ, 다ᄃᆞᄅᆞ면, 다ᄃᆞ라

/다ᄃᆞᆮ~다ᄃᆞᆫ≈다ᄃᆞᄅᆞ~다ᄃᆞᆯ/ //다ᄃᆞᆮ-/다ᄃᆞᄅᆞ-//

⇒ 다ᄃᆞᄅᆞ고, 다ᄃᆞᄅᆞᄂᆞᆫ, 다ᄃᆞᄅᆞ면, 다ᄃᆞ라

/다ᄃᆞᄅᆞ~다ᄃᆞᆯ/ //다ᄃᆞᄅᆞ-//

물론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여 모두 어휘론적 교체가 소멸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선 (17)과 같이 교체 자체는 음운론적인 교체로 성격이 바뀌어 남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의 결과 어휘론적 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모든 평준화에 있어서 동일하다.[12]

경우에 따라서는 음변화에 의해 어휘론적 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22) ㄱ. 가ᄂᆞᆫ, 서ᄂᆞᆫ, …… /ᄂᆞᆫ≈는/

⇒ 가는, 서는, …… /는/

ㄴ. 자ᄇᆞ면, 머그면, …… /ᄋᆞ면≈으면/

⇒ 자브면, 머그면, …… /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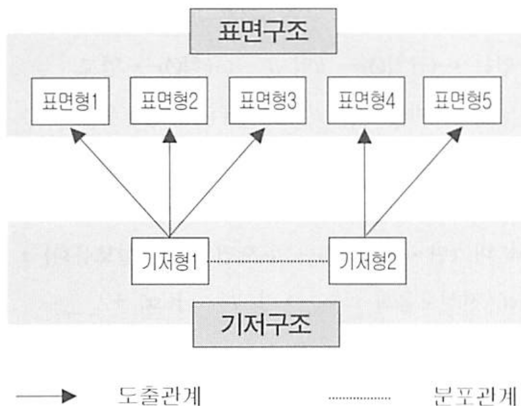
(22)는 중세 국어의 어미에서 보이는 ᆞ와 ㅡ의 교체가 규칙에 의하

12) 기저형이 셋에서 둘로 줄었을 때에는 물론 어휘론적 교체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기저형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ㅎ 변칙의 형용사들이 평준화를 겪어 완전하게 두 기저형만이 남은 예에 한할 것이다.

지 않는 어휘론적인 것이었다가 'ㆍ>ㅡ'의 결과 두 이형태가 같아지면서 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형식이 같아진 기존의 이형태와 어휘론적인 교체 관계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앞선 (20ㄱ, 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5장 결 론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형을 형성하는 형태론적 과정으로서, 기저 층위의 음이 표면 층위에서는 변동을 겪어 달리 실현되는 등의 역동적인 성격과 함께, 여러 이형태들이 서로 대응을 이루며 실현되고 있다는 정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우리는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위하여, 어떠한 어간 또는 어미에 대해 기저형 및 표면형을 요소로 지니고 그 둘 사이의 도출 관계로 이루어진 도출 패러다임을 상정하였다. '기저형—(도출)→표면형'을 기본적인 틀로 하는 도출 패러다임은 복수의 기저형을 지닌 형태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저형들 사이의 분포 관계도 표시된다.



이러한 도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요인은 해당 패러다임의 밖에 있는바, 좀 더 편안한 조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음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언어 사용자의 추론에 의한 변화 등의 문법 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으며,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단위들을 보다 정연하고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문법 내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음변화는 음성표시에 적용되고 양방향동일성 조건에 따라 음운표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변화된 표면형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도출 패러다임이라는 작은 공시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패러다임 내의 다른 요소 및 그들 사이의 관계도 함께 변하게 된다. 한 요소가 개별적인 변화를 겪은 도출 패러다임은 이미 문법에 존재하고 있던 규칙을 이용하고 기저형을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재구성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은 기저형을 두고 규칙 목록에 새로운 규칙을 첨가함으로써 재구성될 수도 있다.

(1) ㄱ. "蹴" ᄎᆞ고 ←(규칙Ø)— //ᄎᆞ-// —(ᆞ탈락)→ 차

⇒ 차고 ←(규칙Ø)— //차-// —(ㅏ탈락)→ 차

cf. "去" 가고 ←(규칙Ø)— //가-// —(ㅏ탈락)→ 가

ㄴ. "炙" 굽:고 ←(폐쇄음화)— //굽:-// —(평성화)→ 구ᄫᅥ

⇒ 굽:꼬 ←(규칙Ø)— //굽:-/구우-// —(활음화)→ 구워

ㄷ. "擔" 업는 ←(규칙Ø)— //업-// —(규칙Ø)→ 업고

⇒ 엄는 ←(비음화)— //업-// —(규칙Ø)→ 업꼬

cf. 비음화 : 폐쇄음 → 비음 / ___ 비음

ㄹ. "條件" 머그면 ←(규칙Ø)— //-으면// —(규칙Ø)→ 버스면

⇒ 머그면 ←(규칙Ø)— //-으면// —(전설모음화)→ 버시면

cf. 전설모음화 : ㅡ → ㅣ / ㅅ]v.st. + ___

ㅁ. ㅅ → ø / ㅂ ___]v.st. $

⇒ ㅅ → ø / ㅂ ___ $

기저형이 변하는 경우, 기저형은 하나만 설정(1ㄱ)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이 설정(1ㄴ)될 수도 있으며, 변화된 어간의 구조는 이미 어휘부에 존재하던 것(1ㄱ)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1ㄴ)일 수도 있다. 또한 기저형 변화의 부산물로서, 규칙이 해당 도출 패러다임으로부터 제외((1ㄴ)의 폐쇄음화)될 수도 있고 다른 규칙이 추가((1ㄴ)의 활음화)될 수도 있다. 도출 관계가 변하는 경우, 음운규칙이 첨가(1ㄷ)되기도 하고 형태음운규칙이 첨가(1ㄹ)되기도 하며, 기존의 규칙이 단순화(1ㅁ)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저형에는 변화가 없다. 규칙이 목록으로부터 상실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국어에서 그 확실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모든 재구성은 음변화를 겪은 표면형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도출 패러다임을 문법의 여타 부문들과 조화롭도록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기저형은 음운부의 입력인 동시에 어휘부에 저장되는 단위의 음운형식이기 때문에, 보다 간소하고 정연한 상태로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어휘부 최적화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단어 내적으로는 하나의 내용에 둘 이상의 형식이 대응되어 있을 때 그 형식의 수를 줄이거나 서로 닮은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한 한 내용과 형식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게 한다든가, 형식이 저장되어 있는 방식을 간소하게 함으로써 어휘부를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단어 외적으로는 같은 의미적 부류에 속해 있는 단어들의 형식을 비슷하게 바꾼다든가, 같은 문법적 부류에 속해 있으면서 형식적인 면에서 예외적인 존재를 최소화하는 등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2) ㄱ. "速" //빠르-/빨르-// /빠르고, 빠르면, 빨라/

⇒ //빨르-// /빨르고, 빨르면, 빨라/

ㄴ. "憎" //밉-/미우-// /밉꼬, 밉니, 미우면, 미워/

⇒ //미웁-/미우-// /미웁꼬, 미웁니, 미우면, 미워/

ㄷ. "三角" 세모나- ⇒ 세모낭- cf. 동그랑-(圓)

ㄹ. -으X([+cons, -voc] 뒤)/-X([+voc] 뒤) /얼:면, 어:니까/

⇒ -으X([+cons] 뒤)/-X([-cons] 뒤) /어르면, 어르니까/

ㅁ. "不勝" 계우- ⇒ 겹:-/겨우-

유추, 기저형 선택 조건의 단순화, 용언 어간 구조 조건에 의한 변화가 이에 해당된다. 유추에는 복수 기저형의 수가 줄어들거나(2ㄱ)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2ㄴ) 혹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의 형식이 비슷해지는 현상(2ㄷ)이 포함된다. 기저형 선택 조건은 음성 자질, 분절음, 일정한 부류의 어간 또는 어미 등과 같은 꼴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데, 필요한 자질이나 분절음의 수를 줄인다거나 보다 큰 부류의 어간 또는 어미로 바꾼다거나 하여 단순화되는 경향(2ㄹ)이 있다.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이란 용언 어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음운적 성향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성향이 기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바, 때로는 동사·형용사의 구분과도 관련되어 기저형을 변화(2ㅁ)시킨다.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세 번째 요인인 재분석이란 주어진 표면형에 대해 둘 이상의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경우, 이전 세대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함에도 그와는 달리 분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불명추론적 변화인 재분석은 필연적으로 복수 기저형으로 귀결되는데, 평준화, 감염 등의 유추적 변화가 뒤따르고서야 비로소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다.

(3) ㄱ. "膨" (붇:-/)부르-+-어 —(ㅡ탈락)→ 부러 ⇒ 부러 ⋯(규칙Ø)⋯→ 불-+-어

ㄴ. "混" 섞-+-어 —(규칙Ø)→ 서꺼 ⇒ 서꺼 ⋯(ㅡ탈락)⋯→ 서끄-+-어

ㄴ'. "立" 서-+-어 —(ㅓ탈락)→ 서 ⇒ 서 ⋯(ㅡ탈락)⋯→ 스-+-어

ㄷ. "索" 꼬-+-아 —(활음화)→ 꽈: ⇒ 꽈: ⋯(활음화)⋯→ 꾸-+-아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재분석(3ㄱ)하기

도 하고, 재분석 과정에서 다른 규칙을 이용(3ㄴ, ㄴ')하기도 하며, 간혹 도출 과정에서와 같은 규칙을 적용시키면서도 기저형을 달리 분석(3ㄷ)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그 요인을 살펴 본 형태음운론적 변화는 교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교체는 음운론적인 것과 어휘론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바, 전자는 하나의 기저형에서 서로 다른 도출을 통해 생성된 이형태들 사이의 교체를 말하며, 후자는 복수 기저형에 의한 교체 즉 기저의 분포 관계를 매개로 한 교체를 가리킨다.

(4) ㄱ. 교체의 생성

a. 음운론적 교체의 생성 : A⇒A～B

"脫" 벗고, 벗는, 버서 /벗/

⇒ 벋꼬, 번는, 버서 /벋～번～벗/

b. 어휘론적 교체의 생성 : A⇒A≈B

"化" tojko, tojmjən, toja /toj/

⇒ töko, tömjən, toja /tö≈toj/

⇒ töko, tömjən, twɛ: /tö≈twɛ:/

ㄴ. 교체 형식과 성격의 변화

a. 형식의 변화

① 음운론적 교체의 경우 : A～B⇒A～C

"除" 츠고, 츠면, 처 /츠～ㅊ/

⇒ 치고, 치면, 처 /치～ㅊ/

② 어휘론적 교체의 경우 : A≈B⇒A≈C

"速" ᄲᅡᄅᆞ고, ᄲᅡᄅᆞ면, ᄲᆞᆯ라 /ᄲᅡᄅᆞ≈ᄲᆞᆯㄹ/

⇒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ㄹ/

b. 성격의 변화

① 음운론적 교체의 변화 : A～B⇒A≈B

"立" 서고, 서면, 서 /서~ㅅ/ //서-//

⇒ 서고, 서면, 서 /서≈ㅅ/ //서-/스-//

② 어휘론적 교체의 변화 : A≈B⇒A~B

"悲" 슬푸고, 슬푸면, 슬퍼 /슬푸≈슳/ /슬푸-/슳-//

⇒ 슬푸고, 슬푸면, 슬퍼 /슬푸~슳/ //슬프-//

cf. A≈iB⇒A≈jB

"補" 깁:꼬, 김:는, 김:는다, 기우면, 기워

/깁:~김:≈기우~기w/

⇒ 깁:꼬, 김:는, 기운다, 기우면, 기워

/깁:~김:≈기우~기w/

c. 복합적 변화

① 음운론적 교체의 변화 : A~B⇒A≈C

"擠" 메:고, 메:면, 메어 /메:~메/ //메:-//

⇒ 미:고 미:면 메어 /미:≈메/ //미:-/메-//

② 어휘론적 교체의 변화 : A≈B⇒A~C

"速" 빠르고, 빠르면, 빨라 /빠르≈빨ㄹ/ //빠르-/빨르-//

⇒ 빨르고, 빨르면, 빨라 /빨르~빨ㄹ/ //빨르-//

ㄷ. 교체의 소멸

a. 음운론적 교체의 소멸 : A~B⇒A

b. 어휘론적 교체의 소멸 : A≈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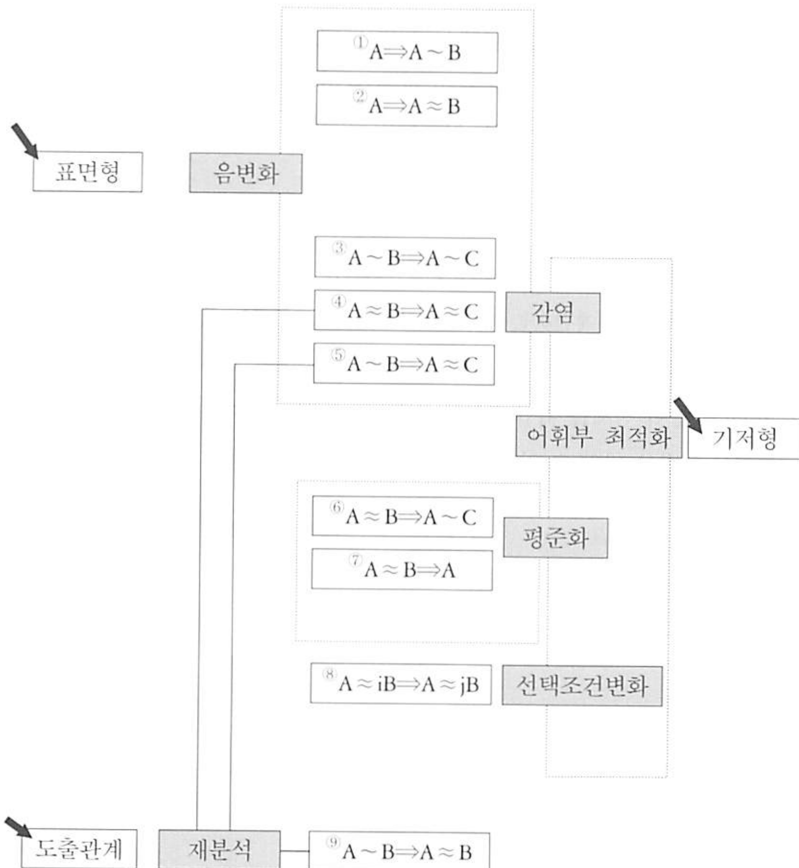
"達" 다닫꼬, 다단는, 다다르면, 다다라

/다닫~다단≈다다르~다달/

⇒ 다다르고, 다다르는, 다다르면, 다다라 /다다르~다달/

다음의 도식은 변화의 요인과 변화의 유형이 보이는 상관성을 간략히 나타내어 본 것이다. 국어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A~B⇒A형과 A≈B⇒A~B형은 도식에서 제외하였다.

음변화에 의한 도출 패러다임의 변화는 표면형의 변화에 말미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새로운 이형태가 등장한다. ①과 같이 규칙이 첨가되어 음운론적 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②와 같이 기저형이 변하여 어휘론적 교체가 늘어나기도 하며, ⑤와 같이 음운론적 교체를 어휘론적 교체로 바꾸기도 한다. 이들 세 유형은 음변화가 문법을 복잡하게 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③과 ④처럼 문법의 복잡성과는 무관하게 형식만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어휘부 최적화에 의한 변화는 기저형에 직접 변화를 초래하며 어떠한 식으로든 문법을 단순화시킨다. 대상이 되는 패러다임은 주로 복수 기저형을 지니고 있는 것들로서, 평준화에 의해 ⑥과 같이 음운론적 교체로 바뀌기도 하고, ⑦과 같이 교체가 아주 없어지기도 한다. ④에서도 두 이형태는 서로 비슷해진다. 물론 (2ㅁ)의 '계우-⇒겹:-/겨우-'는 비록 기저형과 교체 양상(②)은 복잡해졌지만, 어휘부 전체로 보아서는 예외적인 존재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재분석은 도출 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의 결과가 언제나 어휘론적 교체라는 점에서 문법의 단순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변화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교체를 보이던 형태소들이 변화의 대상이 되는바, 이로 인하여 일부 이형태만이 재분석되고 그 결과 복수 기저형을 지니게 된다.

> "체스 한 수는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체스를 두는 사람이 이 효과의 한계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부터 생길 가치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全無할 수도, 매우 심각할 수도, 또는 그 사이일 수도 있다. 어떤 수는 놀이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당장에는 관계가 없는 말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또 방금 언어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았다."(Saussure 1916/1990:108)

참고문헌

姜昶錫(1982), 「現代國語의 形態素 分析과 音韻 現象 : 活用, 曲用에서의 '으~ø'를 中心으로」, 『國語硏究』 50.

______(1985), 「曲用과 活用에서의 形態論과 音韻論 : 音韻現象에 대한 非音韻論的 制約의 克服을 위하여」, 『울산어문논집』(울산대) 2.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______(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 y系 二重母音과 ə>wə 變化를 中心으로」, 『方言』 6.

______(1994), 「系合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國語學硏究』(南川朴甲洙先生 華甲紀念論文集), 太學社.

______(1995), 「語義分化에 따른 單語의 形態分化와 音韻變化 : '빵-'와 '부수-'의 경우」,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 回甲紀念論叢), 太學社.

곽충구(2000),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솔뫼정광선생 화갑기념논문집), 月印.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 15세기 국어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國語學』 29.

金京芬(1990), 「活用에서의 基底形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94.

______(1992), 「中世國語 終聲表記 'ㅅ'에 대하여」, 『冠嶽語文硏究』 17.

김경아(1999), 「형태음운론적 교체와 형태음운부」, 『형태론』 1-2.

______(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太學社.

김규남(1991), 「전북 방언의 ㅂ불규칙 활용과 재구조화」, 『어학』(전북대) 18.

김방한(1988), 「유추적 변화의 조건」, 『한글』 200.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國語硏究』 150.

金鳳國(2002), 「江原道 南部地域 方言의 音韻論」,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_____(2003), 「複數基底形의 類型 (1) : 形成 要因의 觀點에서」, 『震檀學報』 95.

金星奎(1988),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嶽語文硏究』 13.

김성규(1998),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國語學』 32.

金榮振(1975), 「國語方言硏究의 史的考察 : 方言學史를 爲한 試考」, 淸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永泰(1983), 「昌原地域語硏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完鎭(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 論文集』 10.

_____(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 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 11.

_____(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硏究」, 『震檀學報』 35.

_____(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 脣輕音 'ㅸ'의 境遇」, 『震檀學報』 38.

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

金周弼(1988), 「中世國語 音節末 齒音의 音聲的 實現과 表記」, 『國語學』 17.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太學社.

金忠會(1979), 「淸州地域語에 대한 一考察」, 『忠北大 論文集』 17.

김택구(2000),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김 현(1997),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國語硏究』 145.

_____(1999), 「모음간 w 탈락과 w 삽입의 역사적 고찰」, 『애산학보』 23.

_____(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 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한하여」, 『國語學』 37.

_____(2002), 「活用形의 再分析에 의한 再構造化와 不明推論」, 『語學硏究』 38-3.

金 玄(2003), 「音韻規則과 形態音韻規則의 區分에 대하여」, 『국어교육』 112.

_____(2006), 「音韻論的 制約과 音素 變動의 記述」, 『李秉根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閔元植(1982), 「聞慶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박정수(1999), 『경남방언 분화연구』, 한국문화사.

박창원(1986ㄱ), 「음운교체와 재어휘화」, 『語文論集』(경남대) 2.

______(1986ㄴ), 「국어 *d, *l?의 재구 및 그 변화」, 『國語學新研究』(若泉金敏洙教授華甲紀念), 塔出版社.

______(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 고성지역어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國語學』 16.

______(1990), 「음운 규칙의 통시적 변화」, 『國語學論文集』(姜信沆教授回甲紀念), 太學社.

______(1991), 「음운규칙의 변화와 공시성 : 움라우트현상을 중심으로」,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방언연구회 편(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배영환(2004), 「어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開新語文研究』(충북대) 23.

배주채(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國語研究』 91.

______(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周時經學報』 7.

______(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周時經學報』 11.

______(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______(1998), 『고흥방언 음운론』, 太學社.

白斗鉉(1985), 「尙州 化北地域語의 音韻論的 特徵」, 『素堂千時權博士 華甲紀念國語學論叢』, 螢雪出版社.

______(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太學社.

徐輔月(1984), 「安東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 母音現象을 中心으로」, 『安東文化』(안동대) 5.

徐正旭(1984), 「대구방언의 {-웋다} 系 동사에 관하여」, 『啓明語文學』(계명대) 1.

蘇江春(1983), 「南原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소신애(2005), 「어간 재구조화의 진행 과정(2) : 훈춘 지역 세대별 화자들의 활용

어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國語學』 45.

宋喆儀(1991), 「國語 音韻論에 있어서 體言과 用言」,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_____(1995), 「曲用과 活用의 不規則에 대하여」, 『震檀學報』 80.

_____(2000), 「形態論과 音韻論, 『國語學』 35.

송철의(2001), 「국어의 형태론적 특질」, 『배달말』(배달말학회) 28.

申昇容(2004), 「교체의 有無와 규칙의 共時性 · 通時性」, 『語文研究』 124.

申承遠(1982), 「義城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 活用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安秉禧(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劉昌惇(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유필재(1998), 「形態素構造制約과 形態論的 構成 : '포개(㞐)'를 예로」, 『韓國文化』 22.

_____(2000),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 『서울말연구』 1.

_____(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갑(1983), 「유추와 의미」, 『한글』 180.

_____(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塔出版社.

이기갑 · 고광모 · 기세관 · 정제문 · 송하진 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_____(1972ㄱ), 『改訂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_____(1972ㄴ),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李基文 · 金鎭宇 · 李相億(1984), 『國語音韻論』, 學研社.

이덕호(1985), 「청년문법학파의 언어 이론 : 특히, 음운 법칙의 무예외성과 유추 문제를 중심으로」, 『한글』 187.

李秉根(1967), 「中部方言의 語幹形態素 小攷 : 口語上의 規則性을 爲하여」, 『文理大學報』(서울대) 13.

_____(1970), Phonological & morphological studies in a Kyonggi subdialect, 『國語

研究』 20.

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李秉根(1979)에 재수록.

_____(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李秉根(1998), 「마름(菱仁)의 語彙史」,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태학사.

_____(2000), 「'노을(霞)'의 語彙史」, 『冠嶽語文硏究』 25.

이상규 편(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李丞宰(1983), 「混淆形 형성에 대한 문법론적 고찰 : 全北 西部地域의 '틀부-' 語幹을 중심으로」, 『語學硏究』 19-1.

_____(1996), 「'ㄱ' 弱化·脫落의 通時的 考察 : 南權熙本 楞嚴經의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國語學』 28.

李翊燮(1963),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 硏究」, 『國語硏究』 10.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國語硏究』 147.

_____(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李珍昊(2005ㄱ), 「國語의 音韻論的 制約 體系」, 『語文硏究』 126.

이진호(2005ㄴ),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회 제32회 겨울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혁화(2002),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李賢熙(1987), 「중세국어 '둗겁-'의 형태론」, 『震檀學報』 63.

이홍식(2000), 「교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聖心語文論集』(성심여대) 22.

林敬淳(1976), 「甫吉島 方言考」, 『湖南文化硏究』(전북대) 9.

林錫圭(1999), 「榮州 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160.

임석규(2002ㄱ),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曲用 語幹의 再構造化」, 『형태론』 4-2.

______(2002ㄴ),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國語學』 40.

______(2004),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장윤희(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______(2002ㄱ), 「國語 動詞史의 諸問題」, 『한국어 의미학』 10.

張允熙(2002ㄴ), 「현대국어 'ㄹ-末音' 用言의 形態史」, 『語文硏究』 114.

田光鉉(1967), 「十七世紀 國語의 硏究」, 『國語硏究』 19.

全相熙(1986), 「陜川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鄭 喆(1991), 『慶北 中部 地域語 硏究』, 慶北大學校出版部.

鄭承喆(1988),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國語硏究』 84.

______(1995), 『濟州島方言의 通時音韻論』, 太學社.

______(1996),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通時論」,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鄭然粲(1980), 「慶南方言 音韻의 몇가지 問題 : 特히 固城, 統營地方을 중심으로」, 『方言』 4.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國語硏究』 134.

______(1997),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 서남 방언을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조규태(1979), 「경상도 방언 /-uhta/무리에 대하여」, 『배달말』(배달말학회) 4.

曺成貴(1983), 「沃川方言硏究 : 특히 音韻現象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崔明玉(1974), 「慶南 三千浦 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32.

______(1978), 「'ㅸ, ㅿ'와 東南方言」, 『語學硏究』 14-2.

______(1979), 「東海岸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 慶北 盈德郡 寧海面 漁村을 중심으로」, 『方言』 2.

______(1980), 『慶北東海岸 方言硏究』, 嶺南大學校出版部.

______(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出版部.

______(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語學』 14.

______(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li-, lə-, ε(jə)-, h-變則動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24-1.

______(1992ㄱ),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 副詞形語尾 '-아X'의 母音調和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3.

______(1992ㄴ), 「19世紀 後期國語의 研究 : <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3.

______(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______(1995), 「'X ㅣ]Vst 이 Y'의 音韻論」, 『震檀學報』 79.

崔銓承(1980), 「規則再配列에 관한 몇 가지 問題 : 單母音化와 i-Umlaut」, 『一山金俊榮先生 華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______(1981), 「國語의 通時的 音聲變化와 共時的 構造」, 『先淸語文』 11 · 12.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 순경음 'ㅸ'의 경우」, 『冠嶽語文研究』 10.

韓榮均(1988), 「非音節化 規則의 通時的 變化와 그 意味」, 『울산어문논집』(울산대) 4.

______(1991ㄱ),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過程에 대한 揷疑」,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______(1991ㄴ), 「움라우트의 音韻史的 解釋에 대하여 : 研究史的 檢討를 겸한 問題 提起」, 『周時經學報』 8.

許 雄(1965),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허 웅(1991), 『언어학 :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황문환(2001), 「'의심젓다'와 '의심접다' : 유추에 의한 어간 오분석의 일례」, 『형태론』 3-1.

Andersen, H.(1969), A study in diachronic morphophonemics, *Language* 45.

__________(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

__________(1974), Towards a typology of change, in Anderson and Jones eds.

Anderson, J. M. and C. Jones eds.(1974), *Historical Linguistics II*,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Anderson, S.(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Academic Press.

Anttila, 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________(1977), *Analogy*, Mouton.

Baldi, P. and R. N. Werth eds.(1978), *Readings in Historical Phon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Bloomfield, L.(1933), *Language*, Holt.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Clayton, M. L.(1976), The redundance of underlying morpheme-structure conditions, *Language* 52.

DeArmond, R. C.(1974), Phonological restructuring vs rule addition, in Anderson and Jones eds.

Dressler, W. U.(1985), *Morphonology*, Karoma Publishers, Inc.

Ford, A. and R. Singh(1983), On the status of morphophonology, in J. F. Richardson et al. eds., *The Interplay of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Goldsmith, J.(1993), Harmonic phonology, in J. Goldsmith ed., *The Last Phonological Rule*, Univ. of Chicago Press.

Hale, K.(1973), Deep-surface canonical disparities in relation to analysis and change, in Sebeok 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Vol. 11*, Mouton.

Halle, M.(1959), *The Sound Pattern of Russian*, Mouton.

________(1962),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Word* 18.

Harris, J. W.(1973), On the order of certain phonological rules in Spanish, in S. R.

Anderson and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Harris, Z. S.(1942), Morpheme alternants in linguistic analysis, *Language* 18.

Hock, H. H.(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Hockett, C. F.(1947), Problems of morphemic analysis, *Language* 23.

__________(1954),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Word* 10.

__________(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Hooper, J.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Hudson, G.(1974), The representation of non-productive alternation, in Anderson and Jones eds.

__________(1980), Automatic alternations in non-transformational phonology, *Language* 56.

Hyman, L. M.(1970), The role of borrowing in the justification of phonological grammar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

Jakobson, O.(1931), Principles of historical phonology, translated by A. R. Keiler and reprinted in Baldi and Werth eds.

Jeffers, R. J.(1974), On the notion 'explanation' in historical linguistics, in Anderson and Jones eds.

__________(1976), Restructuring, rephonologization and reversion in historical phonology, in J. Fisiak ed., *Recent Developments in Historical Phonology*, Mouton.

__________(1977), Morphological reanalysis and analogy, *Lingua* 41.

Jeffers, R. J. and I. Lehiste(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Jespersen, O.(1922),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King, R. 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 Hall Inc.

__________(1973), Rule insertion, *Language* 49.

Kiparsky, P.(1965), Phonological change, Ph.D. diss., MIT. reproduced by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 1971.

__________(1968a),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 Bach and R.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eprinted in Kiparsky(1982).

Kiparsky, P.(1968b), How abstract is phonology, *IULC*, reprinted in Kiparsky(1982).

__________(1970), Historical linguistics, in J. Lyons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reprinted in Kiparsky(1982).

__________(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W. O. Dingwall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 of Maryland, reprinted in Kiparsky(1982).

__________(1972), Explanation in phonology, in S. Peters ed., *Goals of Linguistic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reprinted in Kiparsky(1982).

__________(1974), Remarks on analogical change, in Anderson and Jones eds.

__________(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Publication.

__________(1994), Allomorphy or morphophonology?. in R. Singh ed., *Trubetzkoy's Orphan*, J. Benjamins.

Lehmann, W. P.(1962), *Historical Linguistics*, Holt.

Lieber, R.(1981),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Linell, P.(1979), *Psychological Reality in Phonology*, Cambridge Univ. Press.

Lounsbury, F. G.(1953), The method of descriptive morphology, *Oneida Verb Morphology*, Yale Univ.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48.

McMahon, A.(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Nida, E. A.(1948), The identification of morphemes, *Language* 24.

Paul, H.(1886),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second edition), translated by H. A. Strong(1891), *Principles of the History of Language*, Longmans, Green, and Co.

Postal, P.(1968), *Aspects of Phonological Theory*, Harper and Row.

Saussure, F. de(1916), *Cours de Lingustique générale*, Payot, 최승언 역(1990), 『일반언어학 강의』, 民音社.

Shibatani, M.(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

Stanley, R.(1967), Redundancy rules in phonology, *Language* 43.

Sturtevant, E. H.(1917), *Linguistic Change*, fourth impression(1968), The Univ. of Chicago Press.

Sturtevant, E. H.(1947),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Science*, Yale Univ. Press.

Trubetzkoy, N. S.(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TCLP Ⅶ, translated by J. Cantineau(1976), *Principes de phonologie*, Editions Klincksieck, 한문희 역(1991), 『음운학 원론』, 民音社.

Twaddell, W. F.(1938), A note on old high German umlaut, *Monatshefte für deutschen Unterricht* 30.

Vennemann, T.(1972), Phonetic analogy and conceptual analogy, in T. Vennemann and T. Wilbur eds., *Schuchardt, the Neogrammarians, and the Transformational Theory of Phonological Change*, Athenäum, Frankfurt.

Vincent, N.(1974), Analogy reconsidered, in Anderson and Jones eds.

용어 찾아보기

>>> 가

가변자질계수 78
개념적 유추 92
교착어 96
교체 조건 42
교체규칙 133
구별 자질 63
규범문법 88, 146
규칙 변형 38
규칙 삽입 41
규칙 상실 82
규칙 소멸 81
규칙 재배열 49
규칙 제외 60
규칙 추가 60, 193
규칙성 가설 74
규칙순 50, 55
규칙적 교체 186
기본 교체형 26
기본적 변화 48
기본형 26, 93, 145
기저 환경 35
기저형 선택 규칙 34

>>> 다

대립 23
도출 관계 33, 184
도출형 93, 145
두자어 90

>>> 라

ㄹ 불규칙 180

>>> 마

모음교체 94
민간어원 90, 145

>>> 바

변별적 자질 24, 67
병치관계 115
복수 기저형 62, 86, 105, 120, 186
부분적 평준화 96
부적절한 절단 90, 145
분포 관계 27, 35, 184
불규칙적 교체 186
불명추론 151
불명추론적인 변화 159
비례 90
비음운화 55, 67
비자동적 교체 113, 149, 186

›› 사
사상 40, 132
생략 90
소장문법학자 88
신어 창조 114
실질적 비례 92

››› 아
양방향동일성 조건 40
어간 이형태의 단일화 106
어휘장 115
어휘적 재구조화 46
언어적 대조 170
역적용 158
역형성 90, 117, 145
연역적 개신 159
오분석 138, 146
우언법 90
원거리 동화 117
원음소 44
유동적 상성 65
유사성 90, 118
유추적 평준화 49
유추적 확대 49, 170
융합형 116
음성표시 38~44
음소배열론 132
음운구조제약 67, 77
음운론적 재구조화 46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 186
음운배열제약 68, 124
음운제약 55, 66, 72
음운표시 38~44
음운화 39, 67
음절구조제약 103
의미적 패러다임 115
이분법적인 관계 25
이분석 143
이형태성 104
일대일 대응 92
잉여성 규칙 133

››› 자
자동적 교체 113, 149, 185
자립적 음운 40
자연부류 127
자연생성음운론 42, 104, 133
잘못 분석 146
잘못된 유추 88, 146
재적용 146, 160
재문법화 145
재어휘화 46
재음운화 46, 67
재절단 90, 143
재해석 90, 143
절단 90
절대 중화 85
조화 규칙 41
조화음운론 41
종단교점 34
중화 44

››› 차
차용어 136
체계음운표시 38~44
체계적 재구조화 49

층위내 규칙 41

>>> 타
투명성 조건 50, 94

>>> 파
파동설 50
패러다임 96, 101
패러다임 긴밀성 104
패러다임 조건 50, 94, 104
패러다임 통일성 104
표면 음성 제약 133
표면 환경 35

>>> 하
하위 패러다임 96
형식 변화 114
형태론적 평준화 98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 186
형태소 구조 규칙 132
형태소 구조 조건 66, 133
형태어휘론적 교체 105, 186
형태음소 44
형태음소적 비례 유추 91
형태음운론적 교체 186
혼효 90, 114, 118
Humbolt의 원리 92

어간 찾아보기

››› ㄱ 말음 어간

녹다 127
먹다 22, 41, 56, 68, 69, 71, 73, 75, 83, 85, 100, 121, 157, 169, 173, 176, 209, 212
작다 163
적다 163

››› ㄴ 말음 어간

신다 169
안다 22, 26, 73, 101, 157, 185

››› ㄷ 말음 어간

걷다 26
믿다 56
받다 127
얻다 69, 71, 73, 163

››› ㄹ 말음 어간

거들다 173
그을다 173
기울다 154, 173
길다 58, 59, 163
끌다 163, 179
날다 116, 173, 174, 176
말다 83, 85
벌다 163
살다 125, 126, 134
슬다 180
썰다 163
알다 22, 86, 122, 123, 207
얼다 101~103, 121, 214
일다 179, 180
절다 21, 162
졸다 163, 173
줄다 180
질다 58, 72
풀다 43, 115, 116, 203

››› ㅁ 말음 어간

감다 58, 59, 166
갑다 58
다듬다 126, 196
심다 141

››› ㅂ 말음 어간

비좁다 141
뽑다 115, 116
업다 69, 212
입다 163
잡다 143, 185, 209

좁다 163

>>> ㅅ 말음 어간

벗다 19, 20, 22, 23, 25~28, 35, 43~45, 70, 75, 183, 184, 187~189, 212, 215
빗다 20
빼앗다 20, 163
솟다 20
씻다 169, 171~173
웃다 20, 63, 163

>>> ㅈ 말음 어간

꽂다 115, 116, 171
맞다 171
맺다 171
젖다 75, 171

>>> ㅊ 말음 어간

쫓다 171

>>> ㅌ 말음 어간

같다 109
맡다 136
뱉다 26, 27, 163, 168
얕다 115

>>> ㅍ 말음 어간

갚다 99, 100, 107, 109, 143, 192, 193, 199~201
깊다 115, 169
높다 169
덮다 142, 143, 202

싶다 136

>>> ㅎ 말음 어간

낳다 22, 149, 150, 165, 167
넣다 165
놓다 20, 21, 122, 165, 168, 180, 181, 190~192, 207, 208
닿다 165
땋다 167
빻다 178, 179
쌓다 127, 165~168
좋다 20, 21, 85, 163, 165

>>> ㄲ 말음 어간

닦다 55
섞다 142, 147, 155, 157~160, 168, 169, 175, 214

>>> ㅆ 말음 어간

있다 106, 115, 116

>>> ㄵ 말음 어간

앉다 55, 171
얹다 26, 171

>>> ㄶ 말음 어간

귀찮다 168
끊다 168
많다 163

>>> ㄺ 말음 어간

굵다 163
늙다 55, 187, 188

읽다 12, 13, 63

>>> ㄻ 말음 어간
굶다 169
삶다 169
젊다 120

>>> ㄼ 말음 어간
넓다 120
떫다 112, 113, 163
밟다 112, 113
엷다 112, 113, 163, 169, 173

>>> ㄾ 말음 어간
핥다 142
훑다 169

>>> ㄿ 말음 어간
읊다 120

>>> ㅀ 말음 어간
곯다 168
꿇다 179, 180
끓다 168
뚫다 110~112
싫다 22, 70, 142
앓다 122, 123
옳다 116
잃다 69

>>> ㅄ 말음 어간
없다 80, 110, 115, 116, 120, 163

>>> ㄷ 변칙 어간
걷다 21, 139
겯다 21, 142
긷다 21, 142, 162~165, 175
깨닫다 21, 142
눋다 21, 179, 208
듣다 21, 29~33, 35, 36, 75
묻다 21, 35
붇다 21, 119, 120, 161, 162, 214
싣다 157, 159, 160, 178
일컫다 142

>>> ㅂ 변칙 어간
가깝다 198
겹다 138~141, 195, 214
곱다 141
굽다 47, 48, 54, 55, 61~64, 75, 153, 155, 189, 192, 193, 204, 212
깁다 128~130, 141, 203, 204, 216
눕다 112, 141
덥다 139, 141
돕다 97, 98, 105, 106, 108, 109, 113, 141
맵다 116
밉다 63, 98, 117, 118, 141, 213
서럽다 112, 113
쉽다 163
싱겁다 116
줍다 169, 171~173

>>> ㅅ 변칙 어간
긋다 128, 186, 203
낫다 126

잇다 106
짓다 61~64, 122, 140, 205

››› ㅎ 변칙 어간
노랗다 106
동그랗다 115, 214

››› ㅏ 말음 어간
가다 20, 22, 59, 69, 101, 121, 122, 150, 207, 209, 212
나다 83, 85, 122
네모나다 116
놀라다 117
세모나다 115, 116, 131, 214
짜다 116
차다 59, 60, 197, 208, 212

››› ㅐ 말음 어간
깨다 150, 166
날래다 69, 117
보내다 177, 178
빼다 146
새다 83, 85, 86
오래다 117

››› ㅓ 말음 어간
건너다 75, 137, 147~150, 172, 176, 199, 200
서다 137, 147, 152, 172, 175, 176, 199, 200, 209, 214, 216
켜다 137, 138, 156, 172, 176
펴다 137, 138, 156, 172

››› ㅔ 말음 어간
궤다 66
떼다 66
메다 65, 107~109, 204~206, 216
베다 66

››› ㅗ 말음 어간
고다 141, 177
꼬다 158, 176, 177, 180, 181, 206, 214
보다 180, 181
쏘다 155, 156, 180
쪼다 105

››› ㅚ 말음 어간
괴다 112
되다 194, 195, 215
사뢰다 112, 113
아뢰다 112

››› ㅜ 말음 어간
가두다 126
가루다 110, 112, 113
거두다 126, 141, 180, 181
꾸다 138, 181
끼우다 154
누다 178, 179
두다 138
배우다 140, 154
싸우다 140, 141
쑤다 138, 156
주다 72
추다 115, 117

››› ㅟ 말음 어간

뛰다 194

››› ㅡ 말음 어간

가쁘다 136, 143
고프다 141, 143, 173, 197
끄다 141, 173
나쁘다 143, 173
다다르다 21, 105, 106, 142, 146, 147, 209, 216
담그다 126, 141
따르다 111, 126, 139, 141, 142, 178, 179, 199~201, 208
뜨다 141, 173
모으다 126, 141
부르트다 168
서글프다 143
슬프다 202~205, 216
쓰다 116, 141, 147~149, 172, 186
아프다 120
애달프다 143
예쁘다 143
우러르다 173~175
치르다 142
크다 141, 173
헤프다 143

››› ㅣ 말음 어간

그르치다 171
그치다 171, 172
기다 194, 196
내키다 146
눕히다 112
뉘우치다 171
다니다 75
떨어지다 85
마시다 176, 177
마치다 171
만지다 149
미치다 171
사무치다 171
삼키다 136
씻기다 177, 178
잠기다 113
즐기다 72
지다 59, 85
치다 59, 60, 139, 141, 172, 196, 197, 215
피다 72, 73, 156

››› ㅕ 변칙 어간

하다 109, 155

››› 르 변칙 어간

고르다 127, 174
구르다 173, 174
그르다 116
까부르다 174
끄르다 115
다르다 126, 127, 146, 198
빠르다 99, 105, 106, 198, 206, 213, 215, 216
아우르다 174
저지르다 174
흐르다 64, 136

김 현

· 서울 출생.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1997).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2003).
·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수원 역임.
· 서울시립대, 서울대, 인하대, 가톨릭대, 경기대, 홍익대 강사 역임.
· 일본 慶應義塾大学 訪問講師 역임.
· 현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주요 논문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1997).
「모음간 w 탈락과 w 삽입의 역사적 고찰」(1999).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어간의 재구조화」(2001).
「音韻規則과 形態音韻規則의 區分에 대하여」(2003).
「母音推移의 原因과 音韻 資質」(2004) 등.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초판 1쇄 인쇄 -------------------------- 2006년 7월 27일
초판 1쇄 발행 -------------------------- 2006년 8월 3일

지은이 -- 김 현
펴낸이 -- 지현구
펴낸곳 -- 태학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498-8
전화 : (031) 955-7580
전송 : (031) 955-0910
등록 제406-2006-00008호
전자우편 : thaehak4@chol.com

ISBN 89-5966-100-7 94710
ISBN 89-7626-147-X (세트)

값 14,000원

☞ 이 책은 지은이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國語學 叢書 目錄

①	李崇寧	(근간)
②	姜信抗	한국의 운서
③	李基文	國語音韻史硏究
④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硏究
⑤	鄭然粲	慶尙道方言聲調硏究
⑥	安秉禧	(근간)
⑦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 연구
⑧	宋　敏	前期近代國語 音韻論硏究
⑨	Ramsey, S. R.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⑩	蔡　琬	國語 語順의 硏究
⑪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⑫	李珖鎬	國語 格助詞 '을/를'의 硏究
⑬	徐泰龍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⑭	李南淳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⑮	金興洙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⑯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⑰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⑱	宋喆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硏究
⑲	白斗鉉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⑳	郭忠求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㉑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㉒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㉓	鄭在永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㉔	韓東完	國語의 時制 硏究
㉕	鄭承喆	濟州道方言의 通時音韻論
㉖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근간)
㉗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근간)
㉘	신지연	국어 지시용언 연구
㉙	權仁瀚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㉚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 叢書 目錄

㉛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㉜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㉝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㉞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㉟	황문환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㊱	남윤진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㊲	임동훈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㊳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㊴	李浩權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㊵	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㊶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㊷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㊸	신승용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㊹	양정호	동명사 구성의 '-오-' 연구
㊺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㊻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㊼	석주연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㊽	박소영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 구조
㊾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㊿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51	이은섭	현대 국어 의문사의 문법과 의미
52	鄭仁浩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
53	이선영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54	김 현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